



2003 원신배,

신년그림 = 오원배(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 새해의 초대장

문정희

소나무 늘푸른 남산 한 가운데  
싸야한 추위 속을 헤집고  
맑은 새해가 떠오른다

벌써 첫 봄을 알리는  
첫 새의 소리처럼  
희망으로 두근거리는  
우리 동국대학교에  
소나무 향내 그득한 새해가 떠오른다

젊음이 내뿜는 입김으로  
뜨거운 깃을 펴는  
중앙 도서관 앞으로  
그대의 싱싱한 입술이 열려온다

모든 기억들이 새로 손을 펴서  
태양을 씻어 올리며  
“한번 더!” 하고  
불끈 일어서는 저 소리

사망에 설레는 희망  
새로 눈뜨는 새해 아침  
누군가 눈부신 한 송이 꽃을 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푸르고 아름다운  
남산 한가운데  
우리 동국대학교의 심장으로  
걸어오고 있다  
장엄한 초대장을 들고 깃을 펴고 있다

문정희 시인(문과대 국문 70졸)은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새해' '절레' '남자를 위하여' 외 다수의 시집을 발표했으며 현재 본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 지면안내

2면 신년사

6면 촛불시위의 의미 대담



소과개정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수 만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가운데 5주 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촛불시위를 제정한 네티즌과 여  
중생 압사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모여 촛불시위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8~14면 동대문학상 · 학술상

15면 시와 노래로 풀어낸 양심 이야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주최로  
진행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이하 양밤)'이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이에 문화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이야  
기하는 양밤의 의미 등에 대한 대담을  
마련하고 이번 행사를 살펴보았다.

16면 만화로 돌아보는 2002년

다사다난했던 2002년 한 해동안 학내의 주요 이  
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만화를 통해 돌아본다.

# 새로운 변화 속 하나되어 발전하는 새해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광명으로 가득찬 이 아침의 찬란한 빛이 한 해가 다 하도록 우리들의 가슴속에 마음으로 생동하기를 바라면서, 동국학원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본인은 지난해 12월 20일 오복인 스님께서 동국학원 이사장 직을 퇴임하심에 따라, 그 후임으로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몇가지 여러분의 관심 사항에 대해 서만 소견을 피력, 새해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임운영의 기초는 전임 이사장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법인은 내실을 충실히 하고, 신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데 운영의 목표를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산하기관의 인사와 경영의 합리화 등 몇몇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한 큰 운영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둘째, 대학 내 여러분의 큰 관심사인인 총장 선임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법인의 지도체제가 확립되는 대로 임원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총장선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인의 원칙이 존중되고 승복과 화합의 마력이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일산병원은 현재 활동 중인 개원준비위원회의 방안이 제출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원되도록 학교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과대학생들의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조기에 정착, 2천만 불자들의 염원에 실망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해에도 격동의 전환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불안정한 국제

사회의 변화가 그것이고, 안으로는 국가의 새 지도자를 맞이하여 동서화합과 세대간 갈등의 해소가 국민적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대학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 문제의 선봉에서 서서 험난을 높이 들고 역사의 올바른 길을 향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갈고 닦아 주체성을 확립하고 너그럽고 아량 있는 감성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판단하고 감성으로 깨닫는 모든 갈등을 녹여 가는 화합의 문화를 우리 대학인들이 이제 새롭게 재창조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다하신 오복인 전임 이사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임기간 중 동국대학교를 질적·양적으로 눈부시게 발전 시켜 놓은 송석구 총장님의 공로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길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서정대

대망의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맞았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또 한 해를 맞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동국가족 모두 거수마룡(車水馬龍)의 장대한 한 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해인들 중요하지 않은 해가 있겠습니까 마는 계미년 새해는 새로운 총장 선임과 병원 개원 등과 같이 특히 우리 동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계미년 새해는 매년 맞는 새해와는 다른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계미년 새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쇄신과 화합의 슬기로운 조화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환경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면밀히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를 정비하는 성숙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동안 변화를 추구해 왔으며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혁의 속도를 높고 양론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줄곧 불교적 지혜를 바탕으로 화해 가운데서 쇄신을 추구해 온 우리의 비전이 어느 정도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수직적인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 20만 동문 등 동국 구성원이 화합 단결하는 가운데 변화에 대한 비전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서 타인을 비판하기만 하는

것은 곧 독선이고 아집입니다. 이러한 독선과 아집으로는 미래 전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결음걸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직접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는 단지 남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결음걸이를 바로 보고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화합과 화해 가운데서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생각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와 거기서 전망을 확보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계미년 새해는 대학 중흥의 갈길에 놓여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대학의 목표는 분명하게 서 있으며, 이는 구성원의 화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동국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해 돼야”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미년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 보다도 뜻깊은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년은 우리학교로서는 시련과 위기의 기간이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남달랐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회가 학교정상화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것과 연초부터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지난 11월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과 함께 총장후보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까지의 과정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학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은 그러한 기회를 보다 확고히 우리

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학교의 새로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학교구성원들과의 원만한 협력을 통해 제반 문제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교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면서 동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금년은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동국가족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회 총회장 박종훈

## “구성원 단결로 힘차게 도약할 때”

동국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해야 할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불교종합병원 준공, 15대 총장후보자 선출 선거 등 어느 해 못지 않게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동국발전에 뚜렷한 전진을 이룩한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여타 대학들도 열린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과 더불어 매우 유동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으며, 우리대학에서도 선두대학의 견제와 후발대학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구

성원들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동국대학교의 제도 약이라는 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향한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은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불교종합병원은 조속하고도 원만히 개원되어 국내의 어느 병원보다도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단결하여 우리 모두의 염원인 동국대학교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매진해야 합니다.

서울캠 직원노조 지부장 강형석

## “동문화합으로 동국발전 이바지할 것”



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풍이 스산한 이때 존재대안 하심을 양축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장으로서 저는 오랫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신 임원여러분들과 동문제형들의 성원과 사랑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창회 발전에 초석을 쌓고 동량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모든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어 동국발전이라는 큰길을 같이 갈 것입니다. 또한 '천시지리가 불여인화'란 말이 있듯이 동문사회의 인화를 최우선시하여 유대를 결속하고 우애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동창모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동창회의 숙원사업은 우리를 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

다. 이미 계획된 바 있는 이 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느니 만큼, 기금 모금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창회의 취약한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도 있는 힘을 다 쏟아 성사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점사업은 여러분들과 20만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없이는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인이 앞장서겠습니다. 믿어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20만 동문 여러분! 동창회의 역할은 회원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데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교에 대하여 사랑과 힘을 모아주실것도 당부드립니다.

임오년이 가고 계미년 새해가 동뒀습니다.

뜻깊은 새해가 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류주형

## “주어진 위치에서 모든 능력 발휘하길”

학우여러분! 추운 겨울밤하얗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다가오는 2003년은 어느 해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났었고, 우리 동국대학교도 새로운 총장님과 함께 개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작년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어 3월 보궐선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방학중에 진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큰 예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단과대 학생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새터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일곱 학우에 대한 당연한 도리

인 2.17 추모제는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서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로 높은 투표율로 선거가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는 물결과 SOFA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투쟁에는 언제나 우리 청년학생들이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는 청년학생답게 현재 자신이 주어진 위치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효순이와 미선의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1만2천 학우 여러분!! 남은 방학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서울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임수욱

## “신념따라 행동하는 지성인 되길”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에서 학업을 하는 동국인 여러분! 또한 같은 동국인으로서 열심히 학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분들께 두손모아 인사 드립니다.

먼저, 계미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복실한 양의 미소와 같이 동국인 모두에게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건설하고 정신적으로 튼튼한 학생으로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쳐도 꿋꿋이 일어설 줄 알고 신념에 맞는 일이면 폭식으로 밀어붙일 줄 아는 젊고 멋있는 청년이 되는 한해가 되길 바라오며, 저 밝은 미래를 위해 지성인으로서 가슴을 펼치며 자랑스럽게 뛰쳐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분명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저렸던 지난해의 안 좋았던 일들은 언뜻의 아름다운 미소처럼 하나의 미소로 넘기시고 밝게 피어날 앞날을 위해 여유와 희망을 풍둔 삼아 다 부지개 걸아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이제 멋지게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우리의 미래와 동국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쌓인 먼지 훌훌 털어버리고 찬란히 빛날 동국을 기동 삼아 기분 좋고 행복한 한해를 보냅니다.

제19대 경주캠 총학생회장 김정태

## 목격글

### 불교대

해가 지날수록 '나' 역시 나이를 먹어 가는데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묻는다면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믿고 오늘 당장 힘들어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가 참 좋은 날'임을 우리 자신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불하세요. 김동국

### 이과대

새해에는 계획 잘 짜서서 2003년 한해 멋지고 알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의 유순하고 평온한 성질처럼 밝고 희망찬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미리부터 부풀어 오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하시고 싶은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장진욱

### 법과대

2003년은 혼자 하는 변혁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변혁을 만들어 나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혁의 물결에서 학생 특유의 정열과 패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넘칠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 학생이 앞장서서 변혁의 주체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조천호

### 사과대

언제나 새 해를 맞는 시점에서 정체를 모를 기대감이 부풀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과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6대 사과대 사업구상에서부터 새내기맞이 사업과 등록금 문제, 공간문제, 학제문제 등의 교육 전반에 관한 것들입니다.

1천 200 사과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힘있게 학생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새해 맞으세요. 오원기

### 경영대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통령, 새로운 총장님 그리고 귀여운 우리 03학번 새내기들까지... 그 어느해보다 새로운 기분이 드는 2003년 새해입니다.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거짓에 싸우고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의 2003년을 설계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준호

### 사범대

학우여러분! 이제 2003년이 다가옵니다.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패기와 열정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사회를 변혁해가는 것, 자신의 삶을 내실 있게 꾸리는 것, 청년학생답게 과감하고 통쾌하게 해봅시다. 2003년을 멋지게 자기도약의 해로 만들어봅시다. 이승호

### 정산대

떠오르는 저 태양같이 2003년 새해가 정보산업대 학우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야심에 찬 개혁 정신을 북돋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산업대 학우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윤지

### 야간강좌

오늘은 어제와 다름없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시간은 그새 '2003'이라는 새로운 명찰을 달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가지게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하고 활발하게 동악을 누비고 다닐 새내기들의 활기찬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지룡

## 은방글

### 불교문화대

희망의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국학원의 모든 것이 바뀌고 나라의 수반이 바뀌는 새로운 한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밝은 미래와 꿈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에게는 온방골에, 아니 동국학원 전체 그리고 이 세상 곳곳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계미년에 여러분에게 비추는 태양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전해주길 기원합니다. 류규렬

### 자연대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맞추기 위

해서 학우들은 어느 한해보다 더욱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방골 학우들의 앞길에 항상 행복한 일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몸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박영우

### 법정대

유난히 시끄럽고 어수선했던 2002년이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새롭다'라는 의미는 '시작'이란 단어와 맞물려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2003년은 저와 학우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계획해오던 일들과 지키지 못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여 멋지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희영

### 상경대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 우리 동국인 모두 차질없이 성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해를 제 인생에 몇 없는 기회로 삼아 저의 능력과 노력을 꽃 피우겠습니다. 학생회단의 학생회가 아니라 항상 학

우 곁에서 묵묵히 소리 없는 혁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현아

### 관광대

다사다난했던 2002년 한해가 지나가고 2003년 계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캠퍼스에 얼룩졌던 모든 일들은 모두 털어버리고 2003년의 새로운 정부출범과 더불어 양의 승성처럼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생각하며 강한 추진력으로 모든일을 해쳐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동국대 2만학우들의 각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라며 2002년 어린나이에 한 방울 이슬로 사라져간 두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 김창진

### 공학대

다사다난했던 2002년 한해가 어느덧 가고 새로운 200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하듯이 저희 공학대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은 방학 잘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뜻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배진수

#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스님 선임

## 녹원스님 지난달 20일 사임 ... 본교·조계종 변화 예상

오녹원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공식적으로 사임하고 서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이 동국학원 제20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지난 13여년간 동국학원 이사장직을 수행한 오녹원 이사장은 임기를 약 1년 앞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정대 스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녹원 스님이 올 초 재단 공금횡령사건의 책임을 지고 올해 안으로 이사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동국학원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24일부터 4년

간 정대스님을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23일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녹원 스님이 정대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으나 이번 결정은 동국학원 정관 28조 2항 '이사장 궐위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는 오는 23일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정대 스님을 재선임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임원 승인 요청과 이사장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특히 이번 이사 선임은 교육부 통보 시한까지 조계종 종립

학교관리위원회의 추천후보가 없어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이다.

새 이사장에 선임된 정대스님은 "교계에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며 "결코 개인의 의사나 독단으로 학교 일을 결정하지 않고 이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조계종 중원종법상 총무원장과 기타 공식적인 장의 겸임이 불가능해 오는 24일 전까지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이번 동국학원 이사장 교체는 학내·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교의 경우 제15대 총장 선출과 불교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

다 이사장 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조계종은 정대 스님의 사퇴로 총무원장직이 공석이 돼 총무원장 선출로 인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장 선임=이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의견조를 후 논의 △불교병원 개원준비위=총장의 권한을 월권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오는 1월 하순 경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하기로 했다.

조슬기 기자  
cholf56@dongguk.edu

# 정시모집 경쟁률 6.73대 1

## 점수분포 예년과 비슷 ... 인문계 2~3점 상승할 듯

200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본교의 경쟁률이 6.73대 1로 예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중 △예술대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실기부문 28.4대 1 △사범대 체육교육과 12.8대 1 △문과대 인문학부 12.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부터 분리 모집한 공과대 건축학과는 4.23대 1로 공과대 평균 4.69대 1보다 약간 낮았다.

각 모집단위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가공=5.36대 1 △나공=6.73대 1 △다공=11.4대 1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모집단위별 경쟁률의 편차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절반이상의 모집단위가 나공에 편중된 것과 달리 올해는 각 단위별로 고르게 모집했기 때문이다. 나공 입시전형에서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인터넷 100% 원서접수를 시

행하면서 마감시간직전까지 더 치열해진 눈치경쟁도 경쟁률 편차를 줄이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접수결과 지원자들의 점수분포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수능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워 수험생들이 안전지원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6일 발표된 가군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예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인문계열의 평균점수는 2~3점 상승하고 이공계는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이번 입시에서 지방수험생들을 비롯한 입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국내최초로 정시모집 인터넷 100% 원서접수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본교는 학내 서버를 늘려 전산 장애를 방지하고, 입시도우미를 선발해 원서접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24시간동안 응답해 주었다. 특히 자체 원서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것은 외부업체의 서버 불안정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서접수 막바지에 접어들어 외부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내년부터 들어나는 인터넷접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상담원과 대면상담이 줄어든 만큼 원서접수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제31회 동국인의 밤' 개최

## 제1회 동국청우상 문태식 동문 수상

'제31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지난달 23일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총동창회(회장=류주형)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박영식(정외61졸) 동문을 비롯한 사법·행정고시 및 신춘문에 당선자 등 57명이 축하패를 받았고,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한 문태성(정치59졸) 동문 외 37명은 공로패를 받

았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제1회 동국청우상은 문태식(사학49졸)동문에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류주형 신임 총동창회장은 "동창회 본부의 내실을 기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동문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동문회관 건립의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성탄 ...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의 밤' 행사가 지난달 24일 광화문에서 진행됐다. 촛불 시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사람들은 가슴 속의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성탄전야를 즐겼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2003년 연구년교수 선정 송석구 총장의 24명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가 2003학년도 연구년·해외연수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1학기 연구년 교수는 △송석구(철학) △송희자(수학) △홍신선(문예창작) 교수 등 9명이며, 2학기 연구년 교수는 △조의연(영어영문

학) △송병호(경제학) △김무곤(신문방송학) 교수 등 16명이다.

또한 이형우(행정학) 교수는 해외연수 교수로 선정돼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미국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구년 교수 인원을 10%로 늘려 신청한 교수 모두 선정됐다"고 말했다.

# 동대 학술·문학상 시상

## 김주환·염승숙·강윤희 등 수상

제40회 동대문학상과 제17회 동대미술상 시상식이 지난달 24일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학술상은 인문과학부문 △장원=김주환(사학4)의 '막스의 주체철학 지양에 대한 소론' △가작=김영애(국교4)의 '변형어의 언어적 특성과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이며 사회과학부문은 장원작 없이 △가작=장재홍(정외3)의 '한국선거에서의 지역주의: 지역주의의 성격과 전개방향'이 수상했다. 자연과학부문은 수상작이 선정되지 않았다.

문학상은 소설부문 △장원=염승숙(문창2)의 '달은 참살적으로만 들어져 있다', 희곡·시나리오부문

△장원=강윤희(문창2)의 '별서 그러나 아직' △가작=최문애(문창2)의 '엄지손가락을 든 풍경', 시부문은 장원 수상자 없이 △가작=김은석(국문3)의 '메밀배개를 사다'가 수상했다.

총동창회장 류주형 동문 임시 이사회서 선출

본교 총동창회 임시 회장으로 류주형(농57졸) 동문이 선출됐다. 류 동문은 전임 권노갑 회장의 사퇴로 지난달 11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1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 박부권 교수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임명

본교 박부권(교육학) 교수가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 임명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회 등 6개 분과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박 교수는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에 기용됐다.

사회·문화·여성분과는 △교육 △여성 △복지정책 등을 총괄하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등의 문제가 중점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 디킨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학술정보교환 등 추진 예정

본교가 호주 디킨대학교와 지난달 16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번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본교는 △교수·연구원·학생 교류 △공동연구, 공동심포지엄 및 학술회의의 공동주최 △학술정보 및 자료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본교는 세계 14개국 4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 보리소

## 와신상담

새해가 되면 한해의 복을 빌어주는 덕담을 들려주는 게 우리의 미덕이다.

그래서 올해엔 "와신상담(臥薪嘗膽)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 한해동안 일어났던 분하고 섭섭했던 일들을 새해에는 와신상담하지 말고 툭툭 털어 버리자는 말이다. 이 고사의 유래는 중국 춘추시대 때의 이야기이다.

당시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오나라 왕이 전쟁에 패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그때 오나라 왕은 아들인 부처를 불러 "부디 내 원수를 갚아다오"라고 유언을 했

고, 부처는 그 뒤부터 장작을 깔아놓고 잠을 자며, 출입하는 신하들에게 "나는 월나라가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라고 말하게 했다.

이와 같이 부처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원수 갚을 기회를 노렸다. 그로부터 2년 후, 부처는 월나라를 항복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한편 포로가 된 월나라 왕은 부처에게 애원하여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 그는 돌아오자 방에다 짐승의 쓰디쓴 쓸개를 매달아 놓고 드나들 때마다 혀로 핥으며 "너는 회개

에서의 치욕을 잊었는가?"라고 자신을 꾸짖었다. 즉 보복의 의지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수년 후 월나라는 다시 오나라를 멸망시켜 승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고사로부터 '와신상담'이란 사자성어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와신상담'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혀 불교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작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매일 쓰디쓴 쓸개를 핥는다는 것은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가

능성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무엇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을 애써 잊지 않으려고 그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말해 잊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잊어버리는 쪽이 더 낫다는 말이다. 하긴 살다보면 간단히 잊을 수 없는 경우의 일도 있다. 그것조차 무리하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와신상담'까지 하면서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그걸 말하고 싶었다.

장 계 환  
불교대 불교학과

본 사 사 령

◇ 임수습기자  
▲ 도영흔 (상경대1)  
- 이상 1월 1일자

# 2003학년도 학사일정(안)

년	월	일	학사내용	비고		
2003	3	3(월)	개강			
		3(월) ~ 5(수)	1학기 휴학 신청(2차)	각 교과과		
		3(월) ~ 5(수)	1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4(화)	2003학년도 입학식	총무팀		
		5(수) ~ 7(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각 교과과		
		8(토)	1학기 특별시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17(월) ~ 19(수)	조기졸업신청	각 교과과		
		27(목) ~ 28(금)	수강과목 취소(W)	각 교과과		
		2004	2	6(일)	1학기의 1/3일	
				4 11(금)	4·19 등반대회	학생복지실
24(목)	1학기의 1/2일					
8(목)	개교 97주년 기념일					
8(목)	부처님오신날					
11(일)	1학기 2/3일					
13(화) ~ 15(목)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26(월) ~ 30(금)	전공/복수전공 신청(2학년)			각 교과과		
2(월) ~ 15(일)	1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9(월) ~ 11(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각 교과과		
16(월) ~ 18(수)	2학기 휴학신청(1차)	각 교과과				
16(월) ~ 20(금)	2학기 수강신청	각 교과과				
16(월) ~ 27(금)	1학기 성적 처리(인력, 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23(월) ~ 7. 16(수)	하계 계절학기	학사지원실				
23(월) ~ 8. 24(일)	하계방학					
2004	2	18(월) ~ 20(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2차)	각 교과과		
		18(월) ~ 28(금)	2학기 등록	재무회계팀		
		20(수)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무팀		
		25(월)	개강			
		25(월) ~ 27(수)	2학기 휴학 신청(2차)	각 교과과		
		25(월) ~ 27(수)	2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27(수) ~ 28(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각 교과과		
		30(토)	2학기 특별시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16(화) ~ 18(목)	조기졸업신청	각 교과과		
		2 9 25(목) ~ 26(금)	수강과목 취소(W)	각 교과과		
28(일)	2학기의 1/3일					
10 16(목)	2학기의 1/2일					
2004	3	2(일)	2학기의 2/3일			
		4(화) ~ 6(목)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24(월) ~ 28(금)	전공/복수전공 신청(1학년)	각 교과과		
		24(월) ~ 12. 7(일)	2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8(월) ~ 10(수)	1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각 교과과		
		8(월) ~ 12(금)	200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각 교과과		
		8(월) ~ 19(금)	2학기 성적 처리(인력,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11(목) ~ 15(일)	200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1차)	학사지원실		
		15(월)~2004.1. 8(목)	동계 계절학기			
		15(월)~2004.2.29(일)	동계방학			
2004	2	13(금)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무팀		
		16(월) ~ 18(수)	1학기 복학, 재입학 신청(2차)	재무회계팀		
		16(월) ~ 27(금)	1학기 등록	각 교과과		

# 언제나 한결같은 신문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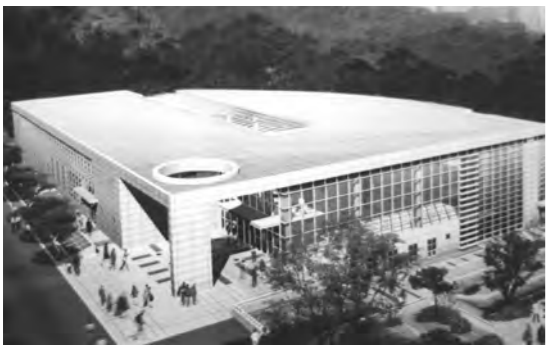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알찬 동대신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대신문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전국의 고교교사,  
사찰 및 언론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배포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료는 동대신문 발전에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도서신관 자료실 중심 ... 13일 개관

## 주제별 자료실 · 소장자료 개가식 운영



오는 13일 개관하는 신축 중앙도서관.

신축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 오는 13일 개관한다. 자료실 중심으로 구성된 도서관은 지하3층, 지상3층으로 △지하3층=주차장 △지하2층=인문과학자료실 △지하1층=사회과학자료실, 특수자료실 △지상1층=불교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 △지상2층=사무실,

멀티미디어실 △지상3층=열람실이다. 도서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열람실=총 1천800여석으로 중앙도서관(이하 중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열람실 부족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30여석의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이 따로 마련돼 대학원 공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도 리모델링 전까지 학부생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열람실좌석 관리시스템' 도입이다. 이는 열람

실에 입실하기 전 지상2층 로비에 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관계자는 "자리를 맡기 위한 소란을 줄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주제별 자료실로 운영돼 전공서적과 관련서적을 한 자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50%이상 서고에서 보관한 자료를 자료실 확충으로 70%이상 개가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서고도서관의 경우 열람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지상 2층에 68석의 A/V실(Audio Visual)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비디오 등을 상영하며

도서관 이용 교육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전시실이 마련돼 3월 개관 기념 미당 서정주 시인 전시회를 갖고 학기중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각 층마다 무선랜이 설치돼 휴대용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며, 휴게실과 복사실 등이 갖춰져 학생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6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도 리모델링은 현재 설계 중이며 2월말 경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 농구부, 농구대잔치 출전 오는 4일 연세대와 첫 경기

농구부(감독=최성호)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2002-2003 농구대잔치에 참가한다.

총 11개 팀이 참가해 리그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상무 △한양대 △고려대 △명지대 △연세대와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첫 시합은 오는 4일 오후 5시 20분 연세대와 갖는다.

이번 대회의 전 경기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며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 생협 독립법인 규약 통과 독립법인 3월 출범 예정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여영문학, 이하 생협)이 독립법인을 위한 규약을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규약내용은 △총회운영 △임원선거 △대의원선출 △현물출자 등이며 이는 지난해 10월 승인된 정관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생활발전 연구위원회(위원장=유덕기·생명자원산업유통학)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논의하고 이날 중 열리는 이사회 안전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오는 2월안으로 독립법인

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해 3월부터 독립법인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학 중 전 부서 단축근무 도서관 자료실 5시까지

학내 전 부서가 내달 13일까지 방학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단, 신축 도서관 자료실은 개관일인 13일부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열람실은 오는 4일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1,2월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 시행하는 '차 없는 날'이 적용되지 않는다.

### 편입학 접수 오는 13일부터 본교 홈페이지 통해 접수

2003학년도 1학기 편입학 접수가 오는 13일부터 3일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모든 단과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편입학은 일반 편입의 경우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며 학사 편입학은 출신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를 지원할 수 있다.

필답·면접·실기고사는 22일 진행되며, 합격자는 29일 본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영석, 빈슨메시프 등정 성공

### 오는 2월 북극점 정복 도전

박영석(체고91㎝) 동문이 지난 11월 24일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메시프(4,897m) 등정에 성공했다.

이번 성공으로 박 동문은 에베레스트 등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등정했으며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 중 남·북극점만 남겨놓아 세계최초 산악그랜드슬램(히

말라야 14와 완등,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와 관련해 박영석 동문은 "오는 2월 북극점 등정을 시작으로 11월 남극점 정복에 도전해 내년 2월중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연 회장 권준일 후보 당선

### 동아리 지원금 투명운영 약속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19대 동아리 연합회 선거 결과 기호 갑 권준일(토목2, TIME)후보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77명 중 53%가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갑 후보는 94표 중 50표로 53.2%의 지지를 얻었으며, 기호 을 정해정(영문2, 막스철학연구회)·박선희(교육2, 민중미학연구회)는 36표로 38.3%의 지지를 얻었다. 8표는 무효처리됐다.

갑 후보는 △순수한 동아리 연합회의 역할 증대 △동연 사업에 학생들의 관심 유도 △새터 참여 △동아리 박람회 통한 신입생 유치 노력 △동연제 분과지원 위주로 진행 △동아리 특별지원금 공정 배분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권준일 당선자는 "각 동아리가 연합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동아리 지원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3학년도 시무식 오는 2일 정각일

2003학년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이 내일(2일) 열린다.

시무식은 송석구(철학) 총장을 비롯해 여러 교직원들이 참석해 신년을 맞아 인사와 담소를 나누는 자리이다.

예불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각원에서 열리며 하례는 11시부터 상록원 교직원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임수옥(화공3)

## "새터 단과대별 자체진행"

### 등책협·새터 추모제 논의 중



총대의원장 임수옥(화공3)이 지난달 16일 열린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이하 총운영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에 그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비대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은 매주 총운영위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 법대 학생 징계처분 철회, 2000년 2·17 새터 추모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새터 계획은.  
= 총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조직력 등 역량부족으로 중앙 새터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각 단과대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새터를 운영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 3개 단과대가 연대할 것이다.  
또한 새터 추모제는 현재 기획단을 구성중이며, 당시 새터

사고 학생들이 올해 졸업을 하게 돼 학교측이 약속한 명예졸업장 수여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등록금 투쟁 등 학원자주화 투쟁(이하 학자투) 준비는.  
= 등록금정책협의회(이하 등책협)와 관련된 이월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측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안에 등책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학생 대표자를 선출해 등록금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1월 말 진행될 전체 학생회간부 수련회에서 학자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 총대의원장과 겹치면서 어려운 점은.  
= 총대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3월 진행될 새터 부정기 감사다. 감사는 각 단과대 대의원장과 총대 집행부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진행하며 조만간 특별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가 총학생회 보궐선거 이후 진행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비대위와 총대 모두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 회전무대

### 과거투어

O...홈페이지 '캠퍼스 영상투어'를 시청한 학생들은 어리둥절해 한다는데.

알아보니 도서관과 불교병원이 완공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제작한 영상물이 그대로 게시됐기 때문이라고.

신입생들의 시청이 많은 만큼 수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움직이지 않는 동영상은 보셨나요(!)"

### 연중공사

O...해화관과 교수회관 사이에는 365일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공사 후 남은 건축자재들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고 쌓아둔 흙더미는 바람에 날려 지나가는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보개를 이용해 흙더미를 방지하고 주변의 건축자재들을 한 곳으로 치워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공사, 시작은 있고 끝은 없다(!)"

### 어색한 진압

O...얼마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일부 경찰들은 힘자랑(?)을 했다는데.

알아보니 신고된 집회장소를 넘었다는 이유로 몇몇 경찰들이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촛불집회가 '무폭력 시위'를 상징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정부의 지나친 진압이 아니었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집회문화를 바꾼 촛불집회, 진압문화 바꾸기는 실재(!)"

### 복도 지킴이

O...요즘 학생회관 1층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물건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실내 디자인 개조로 몇몇 학생회가 학교에 반납해야 하는 기자재를 복도에 쌓아둔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는 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방화맞은 기자재들이여 떠나라! 집으로..."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으리



# 2.17 추모제

2월 17일 오전 9시(가)

-2000년 2월 17일을 기억하는 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문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260-3611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새내기와 2003 새내기 새로배움터 재학생 자봉단 및 참가단 모집



### 문의 각 단과대 학생회

- 불교대 김동국 016-691-6908
- 문과대 최경희 011-9855-9976
- 이과대 장진욱 017-334-7539
- 법대 조친호 011-9644-3028
- 사과대 김종연 011-9139-1943
- 경영대 김준호 011-9929-2165
- 생자대 이현재 017-394-5397
- 공대 김민성 019-322-6956
- 정산대 서윤지 016-717-6314
- 사범대 이승효 019-223-6672
- 예술대 김상선 011-9551-7111
- 야총 구자룡 016-741-1634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정원 모집 경쟁률 4.71대 1 복수지원 이탈 우려 ... 전 구성원 홍보 나서야

수험생 부족 현상에 대비한 각 대학들의 입시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캠퍼스 학생선발실(실장=차준환)은 지난 13일 정원 내 모집인원 1천847명에 8천706명이 지원해 4.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외과대학, 의과대학, 사회체육학과 등 일부 인기학과의 지원률이 확연히 높은 현상은 작년과 같은 맥락을 유지했으며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드러냈다.

하지만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전형인 정원 외 모집에서는 1.41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경쟁률과 관련해 학생선발

실의 차준환 실장은 "전체 수험생 부족현상으로 인해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해와 달리 이번 해에는 본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지원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영남대를 비롯한 대구, 경북권의 일부 대학이 모집 전형을 다군으로 변경하는 등 모집 전형이 분교와 중복되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입시 지원자들이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됨에 따라 본교 지원률이 낮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각 전형마다 복수지원자가 많아 합격생들의 등록률을 높

이기 위해서는 입시철과는 또다른 홍보방안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대의 경우 지원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학과별로 교수들을 비상대기 하도록 하는 등 학교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일대는 학교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업무를 분담해 담당 교수도 학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생선발실의 김영수 과장은 "본교도 입시홍보 책자 발행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한 학교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측의 적극적인 홍보만이 지원 학생들의 대학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뿐만이 아닌 교수들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본교 교수들은 일부 관련 교수를 제외하고 입시에 대비한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험생 부족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입시와 관련하여 교수, 학생, 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 총학 기호2번 김정태조 당선 지지율 42.31% ... 1천435표 득표

2003학년도 제19대 총학생회장·부 학생회장 선거 결과 기호2번 김정태(불교3)·노선택(국통3)조가 당선됐다.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총학생회 투표 선거결과 총 유권자 8천316명(4학년은 제외한 유권자 수 6천261명) 중 3천391명이 참여해 54.16%의 투표율을 보였다.

각 후보별 득표수를 살펴보면 △기호 1번 이지민(사북3)·김민희(화학3)조 73표(20.73%) △기호 2번 김정태(불교3)·노선택(국통3)조 1천435표(42.31%) △기호 3번 김광수(경영3)·이충훈(사체3)조 1천111표(32.76%) △무효 128표(3.77%) △기권 11표의 득표를 보

였다. 또한 같은날 치러진 제10대 불교문화대 학생회 선거는 류강렬(불교3)·김진(국약3)조가, 제 15대 상경대 학생회 선거는 이현아(경영3)·정재현(회계2)조가 당선됐다. 제10대 불교문화대 학생회선거는 총 유권자 수 417명 중 389명이 참여해 93.2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316표(81.23%) △반대 53표(13.62%) △무효 18표(4.63%) △기권 2표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15대 상경대 학생회선거는 총 유권자 수 844명 중 517명이 참여해 61.2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465표(89.94%) △반대 47표(9.09%) △무효 5표의 지지율을 보였다.

# 회전무대

## 빨빠른 움직임(?)

○...최근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특강 강의실에서는 눈치를 보며 문을 여닫는 분주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무슨 말이고 하니 매시간 수강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한 몇몇 학생들이 도장을 하다 수강증 확인을 하면 강의실을 벗어나기 위해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런 일부 학생들로 인해 정작 정규수강생들은 자리부족으로 원거리(?)수업에 임해야 된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눈치작전에 빠른 사법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

## 욕구 불만족

○...본교 일부 연구소 홈페이지의 방문객들은 욕구 불만족에 눈살을 찌푸린다는 데.

알아본즉 허술한 게시물 관리로 연구소 관련정보는 고사하고 성인사이트를 비롯한 신용대출등의 광고가 대신하고 있어 불법사이트를 방불케 한다고.

이로인해 방문객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한 정보메일로서 삭제해 금합니다(!?)"

## 돌고도는 세상

○...원효관 중앙계단의 약도는 방문객들에게 미로찾기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알아본즉 사무실 위치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약도는 수정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헛걸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로인해 당초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의도와 달리 학생들로부터 불만의 눈초리만 받고 있다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니들이 원효관내 규칙을 알아?"

## 학사일정 정정기간(?)

○...지난 성적정정 기간에 학생들은 조바심으로 컴퓨터와 동고동락(?)했다는 데.

무슨말이고 하니 성적정정기간이 12월20일 까지임에도 일부 과목의 성적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성적에 대한 의외적 기회조차 없었다고.

이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것다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껌데기만 있는 정정기간은 가라(!)"



**대학발전(!)...** 지난 23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김영중 부총장, 백상승 경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발전을 위한 교수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5일간 계속된 이번 전시회는 본교 교수와 명사들의 그림, 조각, 서예 47점이 전시되었으며, 지역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학부 easy01@mail.dongguk.ac.kr**

# 교내 간이 골프실습장 설치

## 학내 구성원에게 개방 예정 ... 교외실습비 납부 불만 해소

오는 1월 중 골프실습장이 교내에 설치되어 2003년도부터 교양선택과정 2영역 '스포츠와 여가생활' 강좌 중 골프수업이 학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체육과는 실습장으로 사용해 온 신라 컨트리클럽을 대신해 지난 12월 학교측에 교내 골프실습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체육과의 한 관계자는 "교내 골프실습장을 설치함으로써 방과 후 학생들이 교외 연습장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과 골프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별도로 지불해야 했던 교외실습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골프실습장은 교내 테니스장 백보드에 넓이 500㎡정도에 거리 10m되는 10개 이상의 타석을 설치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의 심규택 직원은 "오는 1월 중 골프실습장 설치 완료를 통해 3월부터 시설물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테니스장 내에 설치되는 만큼 공이 튀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신경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내에 골프실습장이 설치되면 사회체육학과 실습 및 교양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양질의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프실습장은 교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만큼 해당강좌 학

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여가시간에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회체육학과 정길상 교수는 "사회체육학과 실습 및 교양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회원제라든지, 일정 회비 납부를 통해 일반 학생, 교직원들도 이용하는 방안이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실습장 관리를 사회체육학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실력 있는 풀퍼가 일반 학생, 교직원들에게 레슨하는 것도 교내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하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 편입학모집 접수

학생선발실(실장=차준환)은 오는 13일부터 3일간 2003학년도 1학기 편입학 접수를 받는다.

모집 인원내에 대해 알아보면 3학년 일반 편입은 43개 학과에 336명, 학사편입은 44개 학과에 최대 모집 가능인원으로 111명이다.

학사 편입학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일반 편입학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27일 면접, 실기고사를 거쳐 29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예정이다.

# 신년하례 및 시무식

총무팀(팀장=채찬호)은 오는 3일 11시 정각원에서 '2003년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개최한다.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신년하례 및 시무식은 송석구 총장의 신년사에 이어 예불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일부 교직원들만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닌 전 교직원들이 모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공모전 대거 입상

경주시와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에서 공동주관한 '화강실문화수기&경주관광진흥 아이디어' 공모에서 본교 동문과 재학생이 대거 수상했다. 조태수(사체99졸)동문은 관광진흥 아이디어부분에서 금상을, 최지은(호경2)양은 은상을, 조임경(국문2)양이 동상을 수상했다.

# 2002 학생회비를 둘러싼 논란 투명한 집행 필요성 대두 사용내역 전면공개 고려해야

최근 학생회 사업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학기 학생회는 총대의원과 대립양상을 보이며 예년에 비해 사업이 미진했고 사업에 대한 감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날 12일에는 2학기 학생회비가 모두 지급돼 학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 학생회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학생회비는 학기초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의 지분책정 후 대의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배된다.

학생회는 매 사업 준비시 배분된 학생회비의 한도내에서 학생회비를 신청하며 이는 총대의원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2학기에는 학생회에서 총대의원의 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학생회비는 지급되지 않고 사업이 끝난 방학중에 한 학기 지분 전액이 지급됐다.

학생회비를 보관하고 있던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학생회 사업이 미진했다는 이유로 학생회비를 다음학기부터 넘겨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회비는 학생회사업으로 대부분 사용됐으며, 사용되지 않은 일부 금액은 다음해 학생

회 사업을 위해 이월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단체의 경우 학생회비의 상당액이 학생회사업으로 집행되지 않아 각 학과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생회비의 지급은 그간 총대의원회(의장=박창욱·법(아4))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관련 서류만을 받고 이뤄져 여느해보다 불투명하게 집행되었다.

특히 지난 12월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주체인 총대의원과 피감사자인 대부분의 학생회집행부가 인수인계를 마치고 부재중에 있어 임기기간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매년 2학기 후반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학생회에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교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약속을 타파하고 학생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회는 재정운용이 투명해 질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동시에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전면공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시모집

**입주 개요**

- 모집기간 : 2003년 2월 28일까지
- 모집업체수 : 20개 내외
- 입주예정일 : 2003년 3월 1일
- 입주기간 : 1년(2년 연장 가능)
- 창업동아리와 경주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해온 기업은 입주심사 시 가산점 부여

**■모집분야**

- 유·무형 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산업
- 정보통신 및 생물공학 산업
- 인터넷 방송 및 영상물 기획·제작업
- 기타 제조업 및 지식기반 산업

**■지원 내용**

- 입주보육실(8평~30평) 및 전용통신망 제공
- 센터 공용장비와 최적의 개별 냉·난방 및 방범보안시스템 제공
- 법률·세무·특허·경영컨설팅·기술이전·자금알선·창업교육 등 지원시스템
- 입주기업 개별 전담지도 보육덕터제 운용
- 24시간 개방 연구체제 가능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창업정보 제공

**■입주자 부담금**

- 보증금 : 평균 10만원
- 월관리비 : 평균 1만원
- 기타 : 협정분담금 및 용역실비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신청서의 서류심사 및 실사
- 대표자에 대한 면접 평가
- ※심사결과 입주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개별통지
- 교부 및 접수처 : 본교 벤처창업보육센터(우편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03년 2월 28일(금)까지
- 문의 : 벤처창업보육센터 ☎(054-770-2472)/www.vbi.dongguk.ac.kr

### 도서관 개관시간 조정 안내

2002학년도 동계 방학 기간 중 개관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02. 12. 16(월)~ 2003. 2. 13(목)

2. 조정내용

가. 09:30~15:00 - 일반도서실, 참고도서실, 정기간행물실, 한의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나. 09:30~17:00 - 의학도서관

다. 06:00~24:00 - 일반열람실(제 2, 5열람실)

※ 도서관을 계속 이용할 특별열람실 소지자는 2003. 02.14(금)~02.20(목)기간 동안에 일반도서실(지하1층)에서 이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54)770-2457

### 공인중개사 강좌 개설

- 21C 국가공인 고소득 최고유망 자격증 -

1. 모집대상 -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는 분 (학력·성별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

2. 교육기간 - 2003년 1월 6일~2003년 3월 31일

3. 접수기간 - 2003년 1월 3일까지

4.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사진(3×4)2매

5. 수강료 - 55만원(교재비 별도), 카드 결제가능

6. 수강생 특전

- 본과정 수료자에게 교육원장 및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 본 대학교 도서관 이용(학생증 발급)
- 본 대학교 부속병원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 문의전화 : (054) 770-2554  
홈페이지 : www.dongguk.ac.kr/~edu

벤처창업보육센터
도서관
사회문화교육원

# “수 많은 촛불속에 보았다 민주적 집회의 새 싹이...”

소파개정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수 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참여민주주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진행중인 민주적 집회방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쟁 또한 촛불시위가 보여준 새로운 모습이다.

이에 촛불시위를 제안한 네티즌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관계자가 모여 촛불시위의 의미와 집회 문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 촛불시위의 원동력

조성국(민중의 소리 기자, 이하 조) = 오랫동안 계속돼온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분노와 미국에 대한 패배의식이 결국 폭발한 것이다. 여중생 압사사건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 계기를 만들었고 인터넷이라는 소통공간과 ‘할 말을 하는’ 젊은 세대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기보(촛불시위를 제안한 네티즌, 이하 기) =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개인 등 사이버 창작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온 이들은 지난해 겨울 김동성·오노 사건으로 이른바 ‘감성적인 반미’의 흐름을 만들었고 결국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또한 기성언론의 역할도 컸다. 문화방송은 아침프로그램을 통해 반미를 이야기하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김선영(사회학과 학생회장, 이하 선) =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에 동의한다. 앞서 젊은 세대가 ‘할 말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인터넷이나 기성매체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할머니, 아이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기존의 경직된 집회문화와 다른 것을 느낀 것이다.

김인식(민노당 학생위원장, 이하 인) = 올해 반미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운동진영도 느끼고 있었다. 한총련 학생들이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성조기를 태우거나 미 대사관에 진입하려 할 때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아도 박수를 쳐 줬다. 운동진영은 반미운동에 예전보다 더욱 큰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쳤다.

현재 전국민적인 촛불시위의 뒤견에는 지난 6월부터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시민단체들과 학생운동진영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 깃발논쟁의 의미

선 = 촛불시위에 참가하기 전에 총학생회에게서 함께 가지는 제안을 받았지만 깃발아래 일렬로 줄서서 가는 건 싫었다. 결국 친한 친구들과 따로 시위에 참가했다.

깃발에 대한 거부는 규격화되기 싫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나 자신이 깃발에 맞춰 가기 싫다는 것 일뿐, 개별 조직이 깃발을 들고 참여하는 것까지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

인 = 실제 집회에 가보면 깃발에 맞춰 바둑판처럼 앉았다.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집회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깃발자체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커다란 눈덩이는 더 큰 눈사람을 만든다. 깃발은 그러한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기 = 특정한 색깔을 가진 조직에 끌려가는 느낌이 싫어 깃발을 내리라는 주장은 얼마 전 ‘먼저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권영길 후보를 부각시킨 민주노동당의 어거피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사회자가 권영길 후보를 추켜세우며 발언을 요청한 것도 시민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인 = 당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민노당은 이번 운동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며 운동을 해왔고 이러한 면을 대중에게 호소해 지지를 얻고 싶다는 뜻이다.

이는 이제까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사건이 확대되자 슬쩍 합류하는 기성 정당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 대중과 소통하려면

기 = 14일 집회를 앞두고 중앙무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자유발언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제까지 집회가 운동진영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대중의 목소리를 모아 광장의 문화를 생성해보자는 것이다.

수십대의 핸드마이크를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면 소규모 자유발언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 = 우리가 광장에 모인 데에는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지 위한 이유도 있다. 소통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십만 명 넘는 인원이 모인 상태에서 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 =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외국의 집회를 보면 그들은 웃으면서 한다. 담소하면서 즐겁게 나간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이제 쌍방향 소통은 인터넷과 광장 두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운동진영끼리는 소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집회에 나온 개인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소통한다면 그들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대중이 되는 것이다.

최근식(범대위 사이버 대표, 이하 최) =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던 사이버 운동도 많다. 미제품 불매운동이나 온라인 항의도 대표적인 경우다.

다만 집회의 경우 광장이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이다.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선 = 온라인에서는 이미 ‘리플’ 달고 논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것을 오프라인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권의 언어부터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절로 소외감,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인 = 바뀌어서 쓰기 어려운 사회과학 용어도 있지만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집회는 진전이 있었다. ‘평화시위 가로막는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8박자 구호가 이제는 그냥 ‘비켜라’는 말로 바뀌었다.



김인식(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획일적 집회문화 고쳐야”



김기보(촛불시위 제안한 네티즌) “대중과의 소통이 관건”

## 남겨진 과제

선 = 해결되는 것이 없이 정체돼 있으면 자치기 마련이다. 자국이 필만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 = 어떠한 주제 건간에 대중들은 할 말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상황이 마무리된 후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자유 무역 협정 등 다른 주제로 새로운 집회가 형성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 = 이번 시위는 집회에 대한 놀이의 금기, 토론의 금기를 깨뜨렸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다. 다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방식, 문화를 고민할 것이다.

itsU@dongguk.edu



## 네티즌의 ‘촛불시위’ 말말말

지난해 11월 31일 첫 촛불시위가 진행된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연일 촛불시위와 관련한 글이 오르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소감부터 새로운 시위제안까지 네티즌들의 글을 모았다.

△마구 욕을 퍼붓는 사람과 이를 조용히 서서 듣는 사람 중 누가 더 존경받겠는가.  
= 비폭력·평화 시위로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차라리 햇볕시위를 하자.  
= 미군에게 더욱 강력한 소파개정지를 보여야 한다며.

△촛불행렬에 박수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통에 눈감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 지나친 민족주의적 감정은 위험하다며.

△태극기를 사용하지 아니다. 민국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 특정 조직의 깃발대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깃발을 들자며.

△범대위, 네티즌을 믿어라.  
= 중앙통제 방식을 버리고 집회를 네티즌 및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신년 반미촛불축제를 광화문에서 벌이자.  
= 2002년 마지막 날부터 2003년 1월 1일까지 최대규모의 반미시위를 벌이자며.

bluemt@dongguk.edu

# 불평등한 한미소파...대안은 개정 뿐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파개정 토론회가 진행됐다.

여중생압사사건의 피고 미군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주한미군주둔지회협정(이하 한미 SOFA) 개정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불평등한 한미 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SOFA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등 정당과 불평등한 SOFA개정국 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시민단체가 발제를 진행한 가운데 외교안보심의회 등 정부측 인사 4명이 함께 토론을 벌였다. 정부 인사가 이례적으로 이 같은 토론회에 참가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SOFA 개정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첫 발제를 맡은 국민행동 이장희 공동대표(한국외대 교수)는 “특히 여중생 사망 사건처럼 ‘공무 중 사건’ 판단을 미군 장성급이 하는 ‘조항’과 ‘미군의 요

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항(particular importance) 외에 한국이 재관권을 포기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SOFA는 본협정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3가지 문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부속문서를 문제로 들었다. 본협정은 미일, 미독 SOFA와 큰 차이가 없지만 부속문서(합의의사록, 양해사항)에 본협정의 내용을 백지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앞서 이 교수가 지적했던 공무판단에 관한 내용은 합의의사록에 있는 조항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시민, 단체 모두 SOFA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정부측 인사는 이들과 대립된 입장을 보이며 정부의 SOFA 개정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시민단체가 형사재판권의 행사가 적었다는 지적에 법무부 성영훈 검사는 “대부분 사안이 경미해 한미간 협의가 가능했다”고 말해 청중의 반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한미 합동위원회 형사분과 위원회의 SOFA개선에 합의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는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변 이정희 변호사는 “개정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선으로 흥내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는 초동수사 과정에 한국경찰 공동 조사를 허용하고 미군 범죄 발생 1시간 내에 미 정부대표 출석을 명문화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여는 때보다 높은 SOFA 개정 요구는 정부의 한미간 협정에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SOFA 개정의지를 밝힌 만큼 차기 정부가 개정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주)

## 동약로 품행제로



“이거 종료하지마. 오늘 신청 못한 교양 내일 신청할거니까.”

“와~ 계속 로그인 해놓으면 내일도 되는거야?”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9일, 일부 1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강신청기간이 지났음에도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았다. 2·3학년이 수강신청을 하는 다음날 당일에 신청하지 못한 강좌를 신청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이다.

이번 수강신청 기간 동안 1학년 학생들이 2·3

학년 수강신청 기간에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이 입소문을 통해 퍼졌다.

그것은 1학년 수강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는 것이다. 덕분에 1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강좌를 편의대로 들을 수 있게 됐지만 그 불평은 고스란히 2·3학년에 전해졌다.

“어? 교양강좌 좌석이 왜 이렇게 빨리 마감됐지?”

본교 서물캠퍼스는 일부 강좌에 한해 좌석수를

1학년 20%, 2·3학년 25%로 배정해놓았다. 하지만 미리 대기 중이던 1학년 학생들이 학년별로 배정된 좌석을 다수 차지하는 바람에 2·3학년이 인기 강좌를 신청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러한 문제는 로그인과 미리 해놓을 경우 학년 코드를 읽는 과정이 사라지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사지원실은 다음 수강신청부터 적정 신청기간 전에 이루어진 로그인은 자동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컴퓨터

터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학사행정에 관한 문제점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상의 보완에 앞서 학생들의 양심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남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일테니 말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동대문학상

## 시부문 가작수상작

### 메일 베개를 사다

보도블럭 날따란 비닐 위로  
전세놓고 앉은 메일 베개를  
굴판지에 쓴 효능효과 뒤로  
다갈색 물결 휘젓는 검버섯 핀 손  
자잘한 꿈들은 그림자로 만들어 내놓고 있다  
오후의 가벼운 메일 껍질들 투르르르  
편두통처럼 이리저리 수북히 쌓여간다  
불꺼진 집 보일러 연소통에서 올리던  
한겨울 바람 소리를 낸다  
베갯잇 얇은 통 속  
바닥부터 차오르는 불면의 시간  
갈증과 시름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어둡다  
메일 베개 하나 안고 가는 길  
머릿속 뭉친 꿈들이 손끝에서 꿈틀거린다  
밤마다 뜨거워지는 원통형 몸 속에  
꿈의 연료 한뼉씩 채워서 가면



## 제40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b>시부문</b>	<b>소설부문</b>	<b>희곡·시나리오부문</b>
<b>장원</b> 수상작 없음	<b>장원</b> 달은 참살떡으로 만들 어져 있다	<b>장원</b> 벌써 그러나 아직
<b>가작</b> 메일 베개를 사다 김은석 (문과대 국문3)	염승숙 (예술대 문창2)	강윤희 (예술대 문창2)
	<b>가작</b> 수상작 없음	<b>가작</b> 엄지손가락을 든 풍경 최문애 (예술대 문창2)

<b>심사위원</b>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한용환 (사범대 국어교육과)	이중대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	------------------	-----------------	------------------

## 시부문 수상소감

### 시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한참 전에 썼던 시들에  
게서 작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쓴 것  
들을 다시 볼 때면 꼭 고  
치고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들도 계속  
그런 과정 위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든 끊임없이 바꾸고 고쳐  
나가는 속에서 시 쓰는  
마음은 변함없이 나를  
움직여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많은 일들을 시로 옮겨보  
는 과정을 쫓고 있는 지금,  
아직 부족한 점들을 일깨  
워주시는 심사위원 선  
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석 (문과대 국문3)

축하인사를 받으며  
효명할 사람이 많지만  
늘 나를 돌아보게  
했던 시분과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건  
냅니다. 삶 속에서 보  
고 쓰고 얘기하는 가  
운데 제게 많은 것  
들을 보내준 선배들,  
지금까지 잘 따라  
온 후배들은 즐거운  
힘이 되었습니다.  
훈장말이 아니라  
말을 걸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가 되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간의 시간을 발판  
삼아 더 커나가겠습  
니다.  
책을 만들며 또 다  
른 생활의 토대가 되  
어 준 교직원협의회  
식구들에게도 고마  
움을 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한  
편서 더 배우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 시부문 심사평

### 선명한 주제의식 표현 부족

글이 일정하게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  
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주 익  
속하게 접해온  
시적 틀은 그  
만큼 낡은  
느낌을 준다.  
이 낡은  
느낌은 독  
자들의 긴  
장감을  
떨어뜨리고  
또 작품  
내용을  
그렇고  
그런 것  
쯤으로  
쉽게 여  
기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들  
을 통  
독한  
느낌은  
바로  
시적  
틀이  
모두  
그  
동안  
우  
리가  
익  
속  
하  
게  
접  
해  
온  
낡  
은  
것  
들  
뿐  
이  
라  
는  
점  
이  
다.  
이  
런  
바  
예  
쁜(?)  
말  
중  
심  
으  
로  
자  
신  
의  
정  
감  
을  
다  
들  
어  
보  
려  
는  
작  
품  
에  
이  
르  
기  
까  
지  
우  
리  
가  
습  
작  
기  
에  
흔  
히  
범  
하  
기  
쉬  
운  
흔  
들  
을  
그  
대  
로  
보  
여  
주  
고  
있  
었  
던  
것.  
정  
말  
좋은  
시  
의  
힘  
은  
생  
각  
과  
틀  
에  
있  
어  
자  
기  
다  
운  
새  
로  
움  
에  
서  
온  
다.  
그  
런  
가  
운  
데  
서  
도  
김  
은  
석  
작  
의  
'메일  
베  
개  
를  
사  
다'  
란  
작  
품  
을  
만  
난  
것  
은  
선  
지  
로  
서  
는  
아  
는  
수  
확  
이  
었  
다.  
전  
혀  
뜻  
밖  
이  
었  
지  
만  
노  
정  
에  
서  
메일  
베  
개  
하  
나  
를  
사  
들  
고  
가  
게  
된  
사  
연  
을  
화  
자  
가  
안  
정  
된  
톤  
으  
로  
진  
술  
하  
고  
있  
는  
이  
작  
품  
은,  
그  
러  
나  
좀  
더  
주  
제  
의  
식  
이  
선  
명  
했  
다  
러  
면  
하  
는  
아  
쉬  
움  
이  
남  
는  
다.  
말  
이  
쉽  
지  
선  
명  
한  
주  
제  
의  
식  
이  
라  
면  
얼  
마  
나  
글  
감  
에  
대  
한  
치  
열  
한  
해  
석  
끝  
에  
일  
어  
지  
는  
것  
이  
라.  
당  
선  
작  
없  
는  
가  
작  
으  
로  
미  
는  
이  
유  
가  
바로  
여  
기  
에  
있  
는  
점  
도  
밝  
혀  
둔  
다.  
앞  
으  
로  
의  
분  
발  
을  
기  
대  
하  
다.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7면에서 이어짐

△201원 가정희(신도), 강유순, 교육자(동문), 광동영(신도), 권영준(신도), 권영철(신도), 권예현(동문), 김경원(신도), 김덕순(신도), 김덕애(신도), 김덕운(신도), 김민(신도), 김문희(동문), 김병복(신도), 김병현(동문), 김선민(신도), 김선주(동문), 김성우(신도), 김신순(신도), 김옥숙, 김민애(신도), 김정희(신도), 김철식(신도), 김철미(신도), 나한사(신도), 명영환, 문금순(신도), 박경진, 박대성, 박만도(신도), 박성봉(동문), 박인호(동문), 박종길, 박진신, 박경민(신도), 박정일(신도), 백지원(동문), 서인자(신도), 서재호(신도), 성관섭(쌍봉암 주지), 성낙천(신도), 신영균, 신훈, 안종민(신도), 안희운(신도), 양우정(동문), 양의환(동문), 염구섭(신도), 영봉스님(경도사), 오광종(동문), 원종철(신도), 윤양명(신도), 윤영자(신도), 윤옥순(신도), 윤진영(신도), 은선사(신도), 이경자(동문), 이광명자(신도), 이국영(신도), 이동수(신도), 이두영(신도), 이말연, 이방관(동문), 이상민(동문), 이상원(동문), 이상호(동문), 이재실(신도), 이재우, 이준택(신도), 이홍재(동문), 이철용, 임옥이(신도), 임지유(동문), 정명희(동문), 정성삼(신도), 장재문(신도), 장영수(신도), 장이순(신도), 장철수(동문), 조성국(동문), 조성국, 주성태, 주해련(학부도), 채세범(동문), 최정화, 최상섭(신도), 최영규(신도), 최용해, 최홍호(신도), 함상진(신도), 한준경(동문), 한재욱(신도), 홍경식(동문), 홍준기(동문), 홍인남(신도), 이명 7건

△41원 계동수(신도), 박상선(신도), 김미자(신도), 김영길(동문), 김용택(신도), 김태환(동문), 신경순(신도), 오세현(신도), 우정(신도), 이미애(신도)

△301원 박순애(신도)

△201원 강경자(신도), 강석재(동문), 강은성(신도), 강정남(동문), 강준익(신도), 강갑주(동문), 강갑동(신도), 강민(신도), 강병동(동문), 김선녀(신도), 김선아(동문), 김순미(신도), 김우중(신도), 김운근(동문), 김유배(행정대학원), 맹희원(신도), 문광수(동문), 문용수(신도), 박문수(동문), 박복수, 박성수(신도), 박영수(동문), 박영은(신도), 박유하, 박정숙, 박희옥, 방영기(신도), 석지형(대승사 주지), 손병성(동문), 손수현(신도), 송석현(신도), 신선준(동문), 신순옥, 오은섭(신도), 오정환(신도), 원종현(동문), 유종관(신도), 이강우(신도), 이기남(신도), 이민익(동문), 이순철(신도), 이재홍(동문), 이정자(신도), 이정훈(신도), 이종길(신도), 이주복(동문), 이종섭(신도), 이지희(동문), 임정숙, 임정자(신도), 정은모(동문), 정인선(신도), 정종영(신도), 조선영(동문), 조종민(신도), 조홍서(동문), 지분스님(용주사 주지), 최용국(신도), 최경우(신도), 하순녀(신도), 한용길(신도), 한혜현(동문), 해은사, 홍의선(신도), 황영조(신도), 황재준(신도), 이명 3건

△121원 원진국(신도)

△201원 원상스님

△211원 이명

△211원 이명

△211원 강병욱(동문), 강신호(동문), 권만규(신도), 김갑수(동문), 김경남(신도), 김경철(동문), 김기민(신도), 김남훈, 김년두(신도), 김정일(신도), 김종희(동문), 노명희(동문), 대성스님, 도선사적보살, 도영숙, 무주사, 무해스님(법륜사), 민대원(신도), 민우동(동문), 박신자(신도), 박정열(동문), 배성인(동문), 배은실(동문), 백승배, 백윤현(신도), 보덕현호, 서상운(신도), 서일식(동문), 석립사, 성관섭스님(전법사), 송승복, 신정식(신도), 안재선(신도), 엄복균(신도), 오금주(신도), 오순분(신도), 옥태일(동문), 유보향(신도), 윤병덕(신도), 이방기(신도), 이상희, 이상훈(동문), 이재관(동문), 이태근(신도), 장병식(동문), 전병택(동문), 전성수(신도), 정용재, 정재숙(신도), 정해집(동문), 조남욱, 조병인(동문), 조숙영(동문), 정안사, 최규식(동문), 최명자(신도), 최형석(신도), 한영순(신도), 한예석(동문), 홍도순(신도), 이명5건

△151원 김용순(신도)

△111원 강석순, 강신현(신도), 강창도, 경영학과일동, 광기식(신도), 권오현(신도), 김경태(신도), 김경미(신도), 김경식(신도), 김경희, 김귀우(신도), 김기홍, 김병태(신도), 김복동(신도), 김선여, 김수진(동문), 김순녀(신도), 김연희(신도), 김영희(신도), 김영주(신도), 김옥순(신도), 김은순(신도), 김인선(신도), 김재우(신도), 김정호(신도), 김경희(신도), 김자현(신도), 김진홍(신도), 김진원(신도), 김광준(신도), 김해옥, 김해숙(신도), 김혜자(신도), 남금애(신도), 남순덕(신도), 도길자(신도), 도광근(신도), 문정순(신도), 문영(신도), 박경환(신도), 박규용(신도), 박근영(신도), 박금순(신도), 박두호(동문), 박미영(신도), 박복순(신도), 박상호(신도), 박성재(신도), 박성호, 박수현, 박수현(신도), 박영실(신도), 박재욱(동문), 박정민(동문), 박정순(신도), 박정희(신도), 박준원(신도), 박현성(신도), 백소영, 보불심인담, 서이련(신도), 석광호(신도), 성영환(신도), 손귀란, 송여련화(신도), 신금철(신도), 신명자(신도), 양미용(신도), 오민익(신도), 오재영(신도), 오해린(동문), 윤달스님(미타암), 원현숙(동문), 유부동지(신도), 유수경(신도), 유승배(동문), 유영진(신도), 유종길(신도), 유준수(신도), 윤정미(신도), 윤정환(신도), 윤정일(신도), 이경미(신도), 이경희(신도), 이관희(신도), 이금강(신도), 이금순(신도), 이문희(신도), 이봉규(신도), 이봉숙(신도), 이순희(신도), 이승희(동문), 이영숙(신도), 이유선, 이인경, 이정순(신도), 이종식(신도), 이창식(신도), 이창분(신도), 이춘희(신도), 이현규(신도), 이현숙(신도), 이효민(동문), 임석원(동문), 재비사, 장명배(신도), 장용희(신도), 장의숙(신도), 66전계훈(신도), 정영숙, 정찬석(학부도), 조금순, 조용희(신도), 조현경(신도), 최금규(신도), 최단정(신도), 최동근(신도), 최상규(신도), 최상민(신도), 최수호(신도), 최외숙(신도), 최인선(동문), 최현구(신도), 표경화(신도), 표병희(신도), 표윤기(신도), 표진화(신도), 하상란(신도), 한현희, 해산(신도), 홍명자(신도), 홍성환(동문), 홍주영, 황숙순(신도), 황인수(신도), 황희숙(신도), 이명13건

△211원 김일재(신도)

△51원 박관순(동문), 이동은(신도), 이정장(동문), 임상숙(신도), 이명 8건

△31원 김일재(신도)

**장학기금**

△51원 성도스님(선광사)

△11원 2800원 에스원

△21원 한국교통총합개발

△71원 200원 아주하이텍

△81원 주승권(동문), 한신총합건설단지센터

△41원 동진캐피탈, 조은시스템, 캡스

△31원 800원 이준원

△21원 750원 이명

△31원 김상수(일반대학원), 김인경(행정대학원), 소신여, 엑스퍼트, 이재진(전자공학과 교수), 토목환경공학과총장, 한국경호정보시스템

△21원 김도원(주)정우테크, 김영선(행정대학원), 김진국(진현삼우), 박병욱(동문), 박영자, 신재호(전자공학과 교수), 포흥

△11원 대영축산발전공사, 배제이, 보라미, 조영실, 조현남(신도), 황병희(황병희법률사무소)

△31원 김규현(교직원), 김범중(교직원), 김영진(교직원), 김홍호(교직원), 류종운(교직원), 박상관(교직원), 방동혁(교직원), 변민우(교직원), 유광호(교직원), 유한원(교직원), 이종석(교직원), 전병건(교직원)

△31원 한류희(동문)

**특정목적기금**

△11원 6500원 골드윈코리아

△51원 영일무역

△21원 선도스님(선광사)

△11원 5000원 경주정각원

△11원 4500원 김상범(일반대학원), 김희준(동문), 노동일(일반대학원), 박인규(동문), 안종천(동문), 오정석(동문), 임지유(동문), 정인재(동문), 정주화(동문)

△11원 5000원 원운수(동문)

△11원 2000원 대교관

△11원 1000원 이호현(동문)

△11원 5100원 세운메디칼

△11원 권오규(동문), 김병철, 남원기(동문), 류주영(동문), 박종흠(동문), 태평양

△91원 4500원 광동영(동문), 김광진(일반대학원), 문승호(동문), 서강수(동문), 손태규(동문), 신정식(일반대학원), 신화식(동문), 윤병국(동문), 이종주(동문), 이상운(동문), 이명태(동문), 주승권(동문), 황원민(동문)

△11원 2000원 황원민(동문)

△21원 800원 1천204원 前日傳學

△91원 2000원 경화상사, 김영중(경영학과 교수), 신일식(교직원), 신일정공, 향적스님(해인사지주암), 현양

△41원 300원 범문사

△41원 100원 원문스님(통도사 주지)

△21원 600원 오메가메디칼

△31원 2000원 김근삼(동문), 김기현(동문), 김덕수(동문), 김복순(국사학과 교수), 김오관(동문), 김재우(동문), 김창현(동문), 박정우(교직원), 변유식(동문), 서병수(교직원), 신진철(동문), 에스티제너라, 윤종일(동문), 윤영중(동문), 이갑득(화학과 교수), 이동용(생명공학과 교수), 이두철(동문), 이부영(동문), 이상수(동문), 이인(동문), 이점원(미술학과 교수), 이태경(컴퓨터학과 교수), 이형구(불교학과 교수), 정현숙(동문), 정병현(의과대학 교수), 정현진, 정희민(동문), 홍수스님(조계종총무원), 최달영(한의학학과 교수), 황정수(의과대학 교수)

△21원 2000원 석광영(교직원), 에스엘엔터테인먼트, 에스티씨엔터는, 최성영(회계학과 교수)

△11원 5000원 박봉준(동문)

△11원 2000원 이준원(관광대학 교수), 최병규(교직원)

△11원 1000원 경주발자수호회, 고산스님(생계사), 김규현(행정대학원), 김남일(의과대학 교수), 김상목(서울산업대 교수), 김용택(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철호(한의학학과 교수), 김희진(동문), 나병욱(교직원), 류현주, 박두관(교직원), 박상진(공정생활관장), 박장순(교직원), 변정용(컴퓨터학과 교수), 보성스님(천부사주지), 서태양(관광경영학과 교수), 손세호(교직원), 송부자(교직원), 송민규(교직원), 신대용(교직원), 안석호(교직원), 안원규(불교학과 교수), 안준옥(교직원), 오승현(컴퓨터학과 교수), 오영석(행정학과 교수), 오창린(미술학과 교수), 이창석(교직원), 이상기(교직원), 이수우(교직원), 이영경(조경학과 교수), 이영철(경영학과 교수), 이영실(의과대학 교수), 이진희(교직원), 이철우(교직원), 이희욱(미술학부 교수), 임배근(경제학과 교수), 임수연, 임재철(컴퓨터학과 교수), 임태경(화학학과 교수), 장기태, 장갑동(영어영문학과 교수), 장내원(영어영문학과 교수), 정성호(교직원), 조영관(경영학과 교수), 주재환(교직원), 주재호(정보산업학과 교수), 차준환(교직원), 채대성(국제통상학과 교수), 채찬호(교직원), 최규철(사회체육학과 교수), 최창식(불교학과 교수), 한국교육미디어, 한태호(교직원)

△81원 김명철(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오강희(교직원), 유한숙(동문), 이명우(동문), 최훈식(신도)

△51원 1000원 진일스님(일반대학원)

△51원 김태호(교직원), 권학배(교직원), 김경원(교직원), 김근욱(교직원), 김경기(교직원), 김병무(교직원), 김영재(경영학과 교수), 김규종(교직원), 등륜스님, 류민희, 문재욱(교직원), 박수경

(교직원), 박용호(교직원), 성일수(교직원), 소명희(영어영문학과 교수), 신익중(교직원), 예정미(영어, 이상봉(교직원), 이상우(의과대학 교수), 임한승(의과대학 교수), 정문환(교직원), 최해방(교직원), 최현익(교직원), 최효식(국사학과 교수), 한병모(교직원)

△41원 1500원 송영대, 장기현(동문)

△31원 1000원 구윤길(교직원), 권미선(교직원), 권순경(교직원), 금장생활관직원일동, 김도승(동문), 김동철(한문학과 교수), 김병관(교직원), 김성철(일반대학원), 김수태(교직원), 김영열(교직원), 김용석(교직원), 김은연(교직원), 김인경(간호학과 교수), 김정호(동문), 김주태(동문), 김진수(동문), 김진철(교직원), 김창근(교직원), 김태홍(교직원), 김태석(교직원), 김한준(교직원), 네오그린, 민병열(동문), 박갑술(동문), 박옥선(교직원), 박용재(동문), 박해철(교직원), 배병국(교직원), 백경일(가정교육과 교수), 산용스님(통도사), 서동해(동문), 서상현(영상정보통신대학원), 서종욱(교직원), 선오스님(통도사), 안규호(영상정보통신대학원), 안후근(교직원), 양순우(교직원), 오세찬(동문), 오원목(간호학과 교수), 이동희(동문), 이성태(동문), 이수광(교직원), 이승환(교직원), 이용하(동문), 이원재(교직원), 이현정(교직원), 임기환(동문), 임신규(교직원), 장영배(영상정보통신대학원), 정준경(교직원), 정석보(동문), 정순호(동문), 장항원(교직원), 조점준(교직원), 조태수(동문), 차교섭(교직원), 최수호(교직원), 최숙희(교직원), 최영식(교직원), 최완홍(동문), 최용근(교직원), 한진홍(교직원), 한평희, 허남은(영상정보통신대학원), 허형도(국제통상학과 교수), 현답스님(통도사), 황우자(불교아동학과 교수), 황윤성(동문)

△21원 김태현(동문), 박발하(신도), 성달순

△151원 정도스님, 해명우진(신도)

△11원 김태남(동문)

**동국사발저금통기금**

△71원 3500원 김규현(교직원)

△41원 1600원 김경태(교직원)

△41원 1500원 이범선(신학과 교수)

△41원 1100원 박근서(교직원)

△31원 4800원 김호성(인도철학과 교수)

△21원 1900원 박상관(교직원)

△11원 1800원 최광재(교직원)

△11원 1300원 최영익(교직원)

**기금접수 ARS 안내**

**060-700-0119**

■ 금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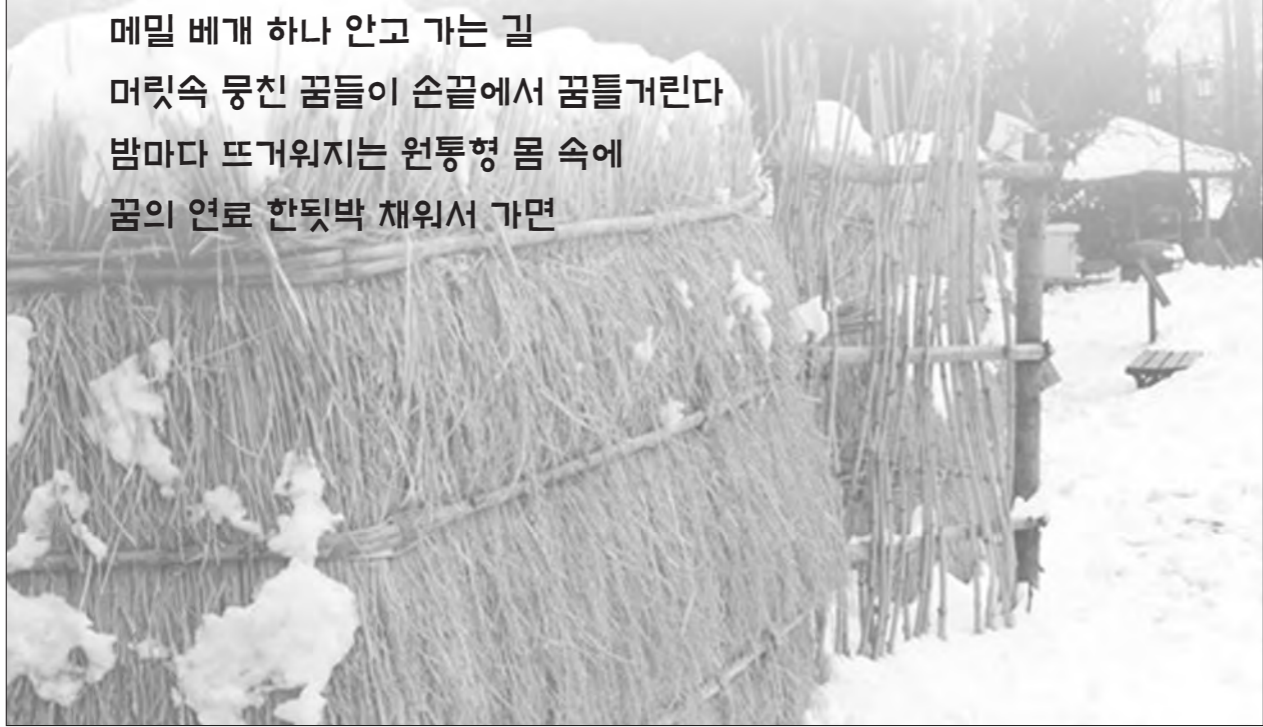
☎ (02)2260-3300, 2260-3791~5

# 동대문학상

## 시부문 가작수상작

### 메일 베개를 사다

보도블럭 널따란 비닐 위로  
전세놓고 앉은 메일 베개를  
굴판지에 쓴 효능효과 뒤로  
다갈색 물결 휘젓는 검버섯 핀 손  
자잘한 꿈들은 그림자로 만들어 내놓고 있다  
오후의 가벼운 메일 껍질들 투르르르  
편두통처럼 이리저리 수북히 쌓여간다  
불꺼진 집 보일러 연소통에서 올리던  
한겨울 바람 소리를 낸다  
베갯잇 얇은 통 속  
바닥부터 차오르는 불면의 시간  
갈증과 시름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어둡다  
메일 베개 하나 안고 가는 길  
머릿속 뭉친 꿈들이 손끝에서 꿈틀거린다  
밤마다 뜨거워지는 원통형 몸 속에  
꿈의 연료 한뼉씩 채워서 가면



## 제40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b>시부문</b>	<b>소설부문</b>	<b>희곡·시나리오부문</b>
<b>장원</b> 수상작 없음	<b>장원</b> 달은 참살떡으로 만들 어져 있다	<b>장원</b> 벌써 그러나 아직
<b>가작</b> 메일 베개를 사다 김은석 (문과대 국문3)	염승숙 (예술대 문창2)	강윤희 (예술대 문창2)
	<b>가작</b> 수상작 없음	<b>가작</b> 엄지손가락을 든 풍경 최문애 (예술대 문창2)

<b>심사위원</b>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한용환 (사범대 국어교육과)	이중대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	------------------	-----------------	------------------

## 시부문 수상소감

### 시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한참 전에 썼던 시들에  
게서 작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쓴 것  
들을 다시 볼 때면 꼭 고  
치고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들도 계속  
그런 과정 위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든 끊임없이 바꾸고 고쳐  
나가는 속에서 시 쓰는  
마음은 변함없이 나를  
움직여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많은 일들을 시로 옮겨보  
는 과정을 쫓고 있는 지금,  
아직 부족한 점들을 일깨  
워주시는 심사위원 선  
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석 (문과대 국문3)

축하인사를 받으며  
효명할 사람이 많지만  
늘 나를 돌아보게  
했던 시분과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건  
냅니다. 삶 속에서 보  
고 쓰고 얘기하는 가  
운데 제게 많은 것들  
을 보내준 선배들, 지  
금까지 잘 따라온 후  
배들은 즐거운 힘이  
되었습니다. 혼잣말이  
아니라 말을 걸고 대  
화할 수 있는 시가 되  
도록, 게을리하지 않  
도록 그간의 시간을  
발판 삼아 더 커나  
가겠습니다.

책을 만들며 또 다른  
생활의 토대가 되어  
준 교직원협의회 식  
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좋은 기  
회를 찾았습니다. 한  
편서 더 배우고 열  
심히 쓰겠습니다.

## 시부문 심사평

### 선명한 주제의식 표현 부족

글이 일정하게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  
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접해온 시적 틀은  
그만큼 낡은 느낌을 준다. 이 낡은 느낌은 독자들의 긴  
장감을 떨어뜨리고 또 작품내용을 그렇고 그런 것쯤으  
로 쉽게 여기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들  
을 통독한 느낌은 바로 시적 틀이 모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접해온 낡은 것들뿐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예  
쁜(?) 말 중심으로 자신의 정감을 다듬어 보려는 작품  
에서부터 과도한 시적 수사로 문맥을 비틀어 본 작품들  
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습작기에 흔히 범하기 쉬운 흠들  
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정말 좋은 시의 힘은 생  
각과 틀에 있어 자기다운 새로움에서 온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은석 양의 '메일베개를 사다'란  
작품을 만난 것은 선지로서는 작은 수확이었다. 전혀 뜻  
밖이었지만 노점에서 메일베개 하나를 사 들고 가게 된  
사연을 화자가 안정된 톤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 작품은,  
그러나 좀 더 주제의식이 선명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말이 쉽지만 주제의식이란 얼마나 글감에  
대한 치열한 해석 끝에 얻어지는 것이라.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도 밝혀둔  
다. 앞으로의 분발을 기대한다.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7면에서 이어짐

△201원 가정희(신도), 강유순, 교육자(동문), 광동명(신도), 권영준(신도), 권영철(신도), 권예현(동문), 김경원(신도), 김덕순(신도), 김덕애(신도), 김덕운(신도), 김민(신도), 김문희(동문), 김병복(신도), 김병현(동문), 김선민(신도), 김선주(동문), 김성우(신도), 김신순(신도), 김옥숙, 김민애(신도), 김정희(신도), 김철식(신도), 김철미(신도), 나한사(신도), 명영환, 문금순(신도), 박경진, 박대성, 박만도(신도), 박성분(동문), 박인호(동문), 박종길, 박진신, 박경민(신도), 박정일(신도), 백지원(동문), 서인자(신도), 서재호(신도), 성관섭(쌍봉암 주지), 성낙천(신도), 신영균, 신훈, 안종민(신도), 안희운(신도), 양우정(동문), 양의환(동문), 염구섭(신도), 영봉스님(정도사), 오광종(동문), 원종철(신도), 윤양명(신도), 윤영자(신도), 윤옥순(신도), 윤진영(신도), 은선사(신도), 이경자(동문), 이광명자(신도), 이국영(신도), 이동수(신도), 이두명(신도), 이말연, 이방관(동문), 이상민(동문), 이상원(동문), 이상호(동문), 이재실(신도), 이재우, 이준택(신도), 이철재(동문), 이철용, 임옥이(신도), 임지유(동문), 정명희(동문), 정성삼(신도), 장재문(신도), 장영수(신도), 장이순(신도), 장철수(동문), 조성국(동문), 조영순, 주성태, 주해련(학부도), 채세범(동문), 최정화, 최상섭(신도), 최영규(신도), 최용해, 최홍호(신도), 한상진(신도), 한준경(동문), 한재욱(신도), 홍경식(동문), 홍준기(동문), 홍인남(신도), 이명 7건

△41원 계동수(신도), 박상선(신도), 김미자(신도), 김영길(동문), 김용택(신도), 김태환(동문), 신경순(신도), 오세현(신도), 우정(신도), 이미애(신도)

△301원 박순애(신도)

△201원 강경자(신도), 강석재(동문), 강은성(신도), 강정남(동문), 강준익(신도), 강갑주(동문), 강갑동(신도), 강민(신도), 강병동(동문), 김선녀(신도), 김선아(동문), 김순미(신도), 김우중(신도), 김운근(동문), 김유배(행정대학원), 맹희원(신도), 문광수(동문), 문용수(신도), 박문수(동문), 박복수, 박성수(신도), 박영수(동문), 박영은(신도), 박유하, 박정숙, 박희옥, 방영기(신도), 석지형(대승사 주지), 손병성(동문), 손수현(신도), 송석원(신도), 신선준(동문), 신순옥, 오은실(신도), 오정환(신도), 원종현(동문), 유종관(신도), 이강우(신도), 이기남(신도), 이민익(동문), 이순철(신도), 이재홍(동문), 이정자(신도), 이정훈(신도), 이종길(신도), 이주복(동문), 이종섭(신도), 이지희(동문), 임정숙, 임정자(신도), 정은모(동문), 정인선(신도), 정종영(신도), 조선영(동문), 조종민(신도), 조홍서(동문), 지분스님(용주사 주지), 최용국(신도), 최경우(신도), 하순녀(신도), 한용길(신도), 한혜현(동문), 해은사, 홍의선(신도), 황영조(신도), 황재준(신도), 이명 13건

△121원 원상스님

△21원 이명

△21원 강병욱(동문), 강신호(동문), 권만규(신도), 김갑수(동문), 김경남(신도), 김경렬(동문), 김기민(신도), 김남훈, 김년두(신도), 김정일(신도), 김종희(동문), 노명희(동문), 대성스님, 도선사적보살, 도영숙, 무주사, 무해스님(법륜사), 민대원(신도), 민우동(동문), 박신자(신도), 박정열(동문), 배성인(동문), 배은실(동문), 백승배, 백윤현(신도), 보덕현호, 서상운(신도), 서일식(동문), 석립사, 성관섭스님(전법사), 송승복, 신정식(신도), 안재선(신도), 엄복균(신도), 오금주(신도), 오순분(신도), 옥태일(동문), 유보향(신도), 윤병덕(신도), 이방기(신도), 이상희, 이상훈(동문), 이재관(동문), 이태근(신도), 장병식(동문), 전병택(동문), 전성수(신도), 정용재, 정재숙(신도), 정해집(동문), 조남욱, 조병인(동문), 조숙영(동문), 청안사, 최규식(동문), 최명자(신도), 최형석(신도), 한영순(신도), 한예석(동문), 홍도순(신도), 이명5건

△151원 김용순(신도)

△11원 강서순, 강신현(신도), 강창도, 경영학과일동, 광기식(신도), 권오현(신도), 김경혜(신도), 김경미(신도), 김경식(신도), 김경희, 김귀우(신도), 김기홍, 김병태(신도), 김복동(신도), 김선여, 김수진(동문), 김순녀(신도), 김연희(신도), 김영희(신도), 김영주(신도), 김옥순(신도), 김은순(신도), 김인선(신도), 김재우(신도), 김정호(신도), 김경희(신도), 김자현(신도), 김진홍(신도), 김진원(신도), 김광준(신도), 김해옥, 김해숙(신도), 김혜자(신도), 남금애(신도), 남순덕(신도), 도길자(신도), 도광근(신도), 문정순(신도), 문영(신도), 박경환(신도), 박규용(신도), 박근영(신도), 박금순(신도), 박두호(동문), 박미영(신도), 박복순(신도), 박상호(신도), 박성재(신도), 박성호, 박수현, 박수현(신도), 박영실(신도), 박재욱(동문), 박정민(동문), 박정순(신도), 박정희(신도), 박준원(신도), 박현성(신도), 백소영, 보불심인담, 서이련(신도), 석광호(신도), 성영환(신도), 손귀란, 송여련화(신도), 신금철(신도), 신명자(신도), 양미용(신도), 오민익(신도), 오재영(신도), 오해린(동문), 윤달스님(미타암), 원현숙(동문), 유부동지(신도), 유수경(신도), 유승배(동문), 유영진(신도), 유종길(신도), 유준수(신도), 윤정미(신도), 윤정환(신도), 윤정일(신도), 이경미(신도), 이경희(신도), 이관희(신도), 이금강(신도), 이금순(신도), 이문희(신도), 이봉규(신도), 이봉숙(신도), 이순희(신도), 이승희(동문), 이영숙(신도), 이유선, 이인경, 이정순(신도), 이종식(신도), 이창식(신도), 이창분(신도), 이춘희(신도), 이현규(신도), 이현숙(신도), 이효민(동문), 임석원(동문), 재비사, 장명배(신도), 장용희(신도), 장의숙(신도), 66전계훈(신도), 정영숙, 정찬석(학부도), 조금순, 조용희(신도), 조현경(신도), 최금규(신도), 최단정(신도), 최동근(신도), 최상규(신도), 최상민(신도), 최수호(신도), 최외숙(신도), 최인선(동문), 최현구(신도), 표경화(신도), 표병희(신도), 표윤기(신도), 표진화(신도), 하상란(신도), 한현희, 해산(신도), 홍명자(신도), 홍성환(동문), 홍주영, 황숙순(신도), 황인수(신도), 황희숙(신도), 이명13건

△81원 김일제(신도)

△51원 박관순(동문), 이동은(신도), 이정장(동문), 임상숙(신도), 이명 8건

△31원 김일제(신도)

**장학기금**

△51원 성도스님(선광사)

△11원 2880원 에스원

△21원 한국교통총합개발

△71원 29만 이주하이텍

△81원 주승권(동문), 한신총합건장단센터

△41원 동진캐피탈, 조은시스템, 캡스

△31원 98만 이준원

△21원 75만 이명

△31원 김상수(일반대학원), 김인경(행정대학원), 소신여, 엑스퍼트, 이재진(전자공학과 교수), 토목환경공학과총장, 한국경영회계비시스템

△21원 강도원(주)정우저우, 김영선(행정대학원), 김진국(진현삼우), 박병욱(동문), 박영자, 신재호(전자공학과 교수), 포흥

△11원 대영축산살계공사, 배비제이, 보라미, 조영실, 조현남(신도), 황병희(황병희법률사무소)

△31원 김규현(교직원), 김범중(교직원), 김영진(교직원), 김중호(교직원), 류종운(교직원), 박상관(교직원), 방동혁(교직원), 변민우(교직원), 유광호(교직원), 유한원(교직원), 이종석(교직원), 전병건(교직원)

△31원 한희희(동문)

**특정목적기금**

△11원 65만 5천 골드윈코리아

△51원 영일부

△21원 선도스님(선광사)

△11원 50만 2천 경주정각원

△11원 45만 5천 김상범(일반대학원), 김희준(동문), 노동일(일반대학원), 박인규(동문), 안종천(동문), 오정석(동문), 임지유(동문), 정인재(동문), 정주화(동문)

△11원 50만 원운순(동문)

△11원 2만 2천 대교관

△11원 1만 이호현(동문)

△11원 51만 7천 70원 세운메디칼

△11원 권오규(동문), 김병철, 남원기(동문), 류주영(동문), 박종흠(동문), 태광양

△91원 45만 2천 광동명(동문), 김광진(일반대학원), 문승호(동문), 서강수(동문), 손태규(동문), 신정식(일반대학원), 신화식(동문), 윤병국(동문), 이종주(동문), 이상운(동문), 이명태(동문), 주승권(동문), 황원민(동문)

황원민(동문)

△81원 1만 1천 284원 前田博孝

△91원 2만 2천 800원 김경호(경영학과 교수), 신일식(교직원), 신일정공, 향적스님(해인사지주암), 현양

△41원 30만 1천 500원 박문사

△41원 1만 1천 500원 문도사 주지

△21원 68만 2천 400원 오메가메디칼

△31원 2만 2천 800원 김근삼(동문), 김기현(동문), 김덕수(동문), 김복순(국사학과 교수), 김오관(동문), 김재우(동문), 김창현(동문), 박정우(교직원), 변유식(동문), 서병수(교직원), 신진철(동문), 에스티제너라, 윤종일(동문), 윤영중(동문), 이갑득(화학과 교수), 이대용(생명공학과 교수), 이두철(동문), 이부영(동문), 이상수(동문), 이인(동문), 이점원(미술학과 교수), 이태경(컴퓨터학과 교수), 이현규(불교학과 교수), 정현숙(동문), 정병현(의과대학 교수), 정현진, 정희민(동문), 홍수스님(조계종총무원), 최달영(한의학학과 교수), 황정수(의과대학 교수)

△21원 1만 1천 500원 석광영(교직원), 에스엘엔터테인먼트, 에스티씨엔터는, 최성영(회계학과 교수)

△11원 50만 2천 800원 박봉준(동문)

△11원 20만 2천 이준원(관광대학 교수), 최병규(교직원)

△11원 1만 1천 500원 경주발자수호회, 고산스님(생계사), 김규현(행정대학원), 김남일(의과대학 교수), 김상목(서울산업대 교수), 김용택(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철호(한의학학과 교수), 김희진(동문), 나병욱(교직원), 류현주, 박두관(교직원), 박상신(공정생활관장), 박장순(교직원), 변정용(컴퓨터학과 교수), 보성스님(천부사주지), 서태양(관광경영학과 교수), 손세호(교직원), 송부자(교직원), 송민규(교직원), 신대용(교직원), 안석호(교직원), 안원규(불교학과 교수), 안준옥(교직원), 오승현(컴퓨터학과 교수), 오영석(행정학과 교수), 오창린(미술학과 교수), 이창석(교직원), 이상기(교직원), 이수우(교직원), 이영경(조경학과 교수), 이영택(경영학과 교수), 이영실(의과대학 교수), 이진희(교직원), 이철우(교직원), 이희욱(미술학부 교수), 임배근(경제학과 교수), 임수연, 임재철(컴퓨터학과 교수), 임태경(화학학과 교수), 장기태, 장갑동(영어영문학과 교수), 장내원(영어영문학과 교수), 정성호(교직원), 조영관(경영학과 교수), 주재환(교직원), 주재호(정보산업학과 교수), 차준환(교직원), 채대성(국제통상학과 교수), 채찬호(교직원), 최규철(사회체육학과 교수), 최창식(불교학과 교수), 한국교육미디어, 한태호(교직원)

△81원 김병철(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오강희(교직원), 유한순(동문), 이명우(동문), 최훈식(신도)

△51원 1만 1천 500원 진일스님(일반대학원)

△51원 김대호(교직원), 권학배(교직원), 김경원(교직원), 김근욱(교직원), 김경기(교직원), 김병부(교직원), 김영재(경영학과 교수), 김규종(교직원), 등륜스님, 류민희, 문재욱(교직원), 박수경

(교직원), 박용호(교직원), 성일수(교직원), 소명희(영어영문학과 교수), 신익중(교직원), 예정미(영어, 이상범(교직원), 이상우(의과대학 교수), 임한승(의과대학 교수), 정문환(교직원), 최해방(교직원), 최현익(교직원), 최효식(국사학과 교수), 한병모(교직원)

△41원 15천 250원 송영대, 장기희(동문)

△31원 2만 2천 800원 권미선(교직원), 권순경(교직원), 금장생활관직원일동, 김도승(동문), 김동철(한문학과 교수), 김병관(교직원), 김성철(일반대학원), 김수태(교직원), 김영열(교직원), 김용석(교직원), 김은연(교직원), 김인경(간호학과 교수), 김정호(동문), 김주태(동문), 김진수(동문), 김진철(교직원), 김창근(교직원), 김태홍(교직원), 김태석(교직원), 김한준(교직원), 네오그린, 민병열(동문), 박갑술(동문), 박옥선(교직원), 박용재(동문), 박해철(교직원), 배병국(교직원), 백경일(가정교육과 교수), 산용스님(통도사), 서동해(동문), 서상진(영상정보통신대학원), 서종욱(교직원), 선오스님(통도사), 안규호(영상정보통신대학원), 안후근(교직원), 양순우(교직원), 오세현(동문), 오원목(간호학과 교수), 이동희(동문), 이성태(동문), 이수광(교직원), 이승환(교직원), 이용하(동문), 이원재(교직원), 이현정(교직원), 임기환(동문), 임신규(교직원), 장영배(영상정보통신대학원), 정준경(교직원), 정석보(동문), 정순호(동문), 정향란(교직원), 조점준(교직원), 조태수(동문), 차교섭(교직원), 최수호(교직원), 최숙희(교직원), 최영식(교직원), 최완홍(동문), 최용근(교직원), 한진홍(교직원), 한평희, 허남은(영상정보통신대학원), 허형도(국제통상학과 교수), 현답스님(통도사), 황우석(불교아동학과 교수), 황윤성(동문)

△21원 김태현(동문), 박발하(신도), 성달순

△151원 정도스님, 해명우진(신도)

△11원 김태남(동문)

**동국사발저금통기금**

△71원 3천 400원 김규현(교직원)

△41원 16천 300원 김경대(교직원)

△41원 15천 700원 이범선(신학과 교수)

△41원 1천 600원 박근서(교직원)

△31원 4천 800원 김호성(인도철학과 교수)

△21원 9천 700원 박상관(교직원)

△11원 8천 600원 최광대(교직원)

△11원 3천 700원 이명익(교직원)

**기금접수 ARS 안내**

**060-700-0119**

■ 금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1 ~ 5

# 제40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소설부문 수상소감

## 잘 끊어진 ‘보리차’가 될 때까지 정진할 것



염승숙 (예술대 문학2)

주전자 속에 물을 가득 붓고 팔팔 끓인 뒤 불을 끄니다. 그리고는 보리차 티백 하나를 동동 띄우고 주전자 뚜껑을 닫지요. 뜨거운 물에 살갗을 데이면서도 작은 티백은 루룩루룩 제 몸을 쥐어짜고 있을 테지요. 분명.

눈물겹도록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끊어진 물처럼 뜨겁게, 나를 쥐어 짜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제게 용기가 되어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작품을 읽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예술문화 식구들, 소설이라는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소설분과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늘 커다란 나무 밑동 같은 위로와 힘을 주는 현주 선배에게 누구보다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의 크기만큼 늘 곁에 있어 따뜻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리차는 아직 다 끊여지지 않았지요. 마시게엔 아직 너무 뜨겁고 맹물에 조약돌을 삶은 듯 심심한 맹탕입니다. 수돗물의 씁쓸한 맛이 보리차의 구수함으로 변하는 과정, 아직은 그 과정 속에 제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작품을 읽어주시고 뽑아주시는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소설부문 장원수상작

# 달은 찹쌀떡으로 만들어져 있다

가로등

그를 처음 본 건, 내가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맛고 있던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다. 흰 새라니 먼지처럼 흩날리던 그 밤, 집 앞에서 나는 맞았다. 처음에 아버지는 웃김으로 나의 몸을 후려치다가 지푸만 달아나는 내 뒤를 쫓아 나와 기어이 대문 앞에서 빗자루를 집어 들었다. 내 목덜미를 움켜쥐고 빗자루를 휘두르며 아버지는 한여름의 땀발레라 서 있는 듯 땀을 쏟았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쉬지 않고 내 귓가로 흘러들었다. 벼동대며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려대는 나의 행동에도 아랑곳없이 아버지는 빗자루의 누런 머리칼이 저의 사라졌을 때에야 나를 핏개치듯 놓아주었다.

“또 그런 짓을 했단 보라. 이번엔 빗자루지만 그 댐 네 다리가 부러질 거다.”

탁탁 소리 나게 손바닥을 털며 아버지가 바닥에 던진 빗자루는 허리가 부러져 있었다. 나는 차갑게 얼은 아스팔트 위로 눈물과 흥분으로 뜨거워진 얼굴을 대며 쓰러졌다. 여린 눈송이들이 아스팔트에 닿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나도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만 싶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나는 탈진해 있었다. 도벽. 나는 슈퍼 아저씨에게 먹살이 잡혀 집으로 끌려왔다. 내 손에 쥐어진 생리대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다.

“애가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살 때 말 듯 계속 이걸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얼굴이 수염자극으로 도배된 슈퍼 아저씨는 내 손에서 생리대를 확 잡아채 흔들며 말했다.

“그래 나는 부러 모르는 척 계산하는 시늉을 하며 시침을 딱 때고 있었지. 그러더니 애가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고양이 달걀 굴리듯 나는 이미 천장 모서리의 거울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는데 말예요. 영약하게도 보조 가능 깊숙이 이걸 찰라 넣고서요. 그래 내가 썩싸게 달려 나가 이 애의 목덜미를 밟다 확 잡아챘지요. 북두칠성이 앵글이었으니 제까지 게 부인할 수 있나요. 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벌어진 입과 엄마의 휘둥그레진 눈을 피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슈퍼 아저씨는 손에 생리대를 킁 채로 줄기차게 때들어왔고 아버지는 붉으라푸르라해진 얼굴로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나는 아저씨의 손에 쥐어진 생리대의 비닐 끈대기가 구겨지고 비닐어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 발등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껏 무언가를 훔치다 발각된 적은 처음이었다. 내 몸 어딘가에 웅송그리고 있는 도벽의 흉통은 생리 때만 되면 고개를 치켜들었다. 중 1때 처음 시작한 월경은 내게 무언가를 훔치게끔 만들었다. 그것은 한자의 부수를 외워 시험 보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고 가까스로 수학 문제의 답을 도출해낸 일 만큼이나 짜릿하고 흥분되는 것이었다. 초경 이후에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훔치고 싶은 욕망에 시달렸다. 처음엔 방과 후 학생들로 붐비는 문방구에서 볼펜이나 사프스, 지우개 등을 훔쳤다. 편의점에서 작은 열쇠고리 같은 것들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떡볶이를 먹다 필요하지도 않은 포크를 실내용 가방에 넣고 짝이 새로 산 연두색 사프를 훔쳐 주머니에 넣고는 모르는 척 했다.

훔친 물건들은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집 앞에 나 있는 작은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버렸다.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실개천에 사프며 지우개, 온갖 훔친 물건들을 쏟아 붓고 가만히

바라보면 물 속에 잠긴 그것들이 꼭 내 모습인 듯 여겨졌다. 그리 깨끗하지 않은 물에 제 모양을 일그러뜨린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찝찝하게 아파 오는 배를 움켜쥐었다.

나를 가져가 줘. 훔쳐 봐. 세상의 모든 사물 하나 하나가 내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듯 했다. 이 겁쟁이. 날 훔쳐.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종내 아무렇지도 않게 무언가를 훔칠 수 있게 되었다. 모기처럼, 나는 세상의 살갗 어딘가를 물고 피를 내었다.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아이고, 애야. 원, 애를 죽일 작정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자식을 이 꼴로……. 이 놈아. 그러게 왜 그런 괴망스러운 짓을 하나…….”

눈물 그득한 눈을 내 얼굴에 갖다 대며 엄마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있던 탓에 몸이 얼어 잘 움직일 수도 없었다. 지푸만 몸은 젖은 종이처럼 흐물러졌고 시야는 안개에 가려진 듯 희미해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때, 그대의 모습이 보였을까. 그녀는 두터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골목의 끝에 서있었다. 처음부터 그 곳에 있었다는 듯 머리 위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거대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맹렬한 증오가 내 정신을 훔쳤다. 순간 나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정신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휘청댄 그 찰나에 흰 눈 소복한 그녀의 머리 위로 등실, 달 하나가 웃었다.

## 병뚜껑

그를 다시 본 건, 중학교 3학년 개학날이었다. 불발학도 끝난 삼월의 따뜻한 햇살에 파묻혀 학교는 활기를 띠었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11 때문에 25번이었던 나는 1분단의 넷째 줄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입에 모터를 단 듯 조잡했고 교실은 그런 아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활새같이 먼지를 게워 울렸다. 나는 모든 게 짜증났다. 햇빛 가득 쏟아지는 커다란 창문과 온통 초록으로 채워진 깨끗한 칠판, 맑음하게 털린 지우개와 얇전히 놓인 색색의 분필들, 줄 맞춰 놓여진 책상 그리고, 봄 햇살처럼 환한 얼굴의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은 제각각 모여 떠돌고 있었다. 불 아니면 넷, 혹은 그 이상. 여자아이들은 홀수로 모여 다니지 않는다. 셋이나 다섯으로 짝을 지어 다닐 경우 종내 누군가는 혼자자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교실 전체를 휘감는 아이보리색 햇살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모두 흐릿하게만 보였다.

나는 한 덩이의 커다란 꽃가루처럼 아이들과 격리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내 결의로 다가오지 않았다. 씹을지지는 않았다. 오래 그렇듯 나는 아이들의 경계를 받고 있었다. 재 좀 이상해. 아무거나 다 훔친대. 조심해야 돼. 무섭다 야. 아이들은 내 뒤에서 혹은 앞에서 고개를 돌린 채로 서로 수군거릴 것이다. 결코 쳐다보지 말고 얘기할 것. 짧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 여자아이들은 싫어하는, 혹은 두려운,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존재 앞에서 눈치를 보거나 피하지 않는다. 보다 완벽히 관계를 흐림을 차단시킬 것. 구름의 꼭대기에 앉아 비를 내릴 듯 끝도 없이 오만해질 것. 알고 있으므로, 나에 대한 아이들의 경계심이 나 역시 당연히 거여졌으므로 나는 결코 쓸쓸해하

지 않았다. 혼자라는 이유로 노여움을 타지 않았다. 슬퍼하거나 외로움을 탈 정도의, 감상적인 아이는 못 되었다. 나는.

나는 그렇게, 그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열여섯의 봄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에야 부스스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앉고서도 한참을 부스스레대고 꿀꺽대었다. 선생님은 교탁을 탁탁 치며 주의를 집중시켰다. 들어와, 그리고 다시 열린 교실 앞문. 나는 나른하게 늘어져 눈만 겨우 뜨고 있던 터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났다. 그대의 얼굴이 또렷이 내 눈으로 들어와 박혔다. 그대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 애의 발걸음에 맞추어 내 심장도 뚜벅뚜벅 뛰는 듯 했다. 지난 겨울,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골목의 끄트머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던 그애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맑음한 교복을 입고 매끈한 다리도 교실의 마룻바닥을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언뜻 보아도 백 칠십 센티미터는 되어 보였다. 흐리흐리한 몸매에 교복 치마의 무릎 선 밑으로 보이는 다리가 길고 매끈했다. 밑거름 반죽처럼 새하얀 얼굴 위로 밤색 머리칼이 흩날렸다. 귀가 드러나는 커트 머리가 자연스러웠다. 시원시원한 눈매에 미소 지은 입기가 두드러졌다. 잘 부탁합니다. 고른 치열 사이로 내뿜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교실을 휘 돌러보는 그대의 눈을 피해 나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눈에 각인된 그대의 모습을 지워야지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어두웠으므로,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으므로 그애가 나를 기억하지는 못하리라. 쉽지가 않은 눈동자를 굴리며 주먹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내 자신이 나조차도 당황스러웠다. 그애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혹여 그애가 맞아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작디작은 눈에 남작하게 늘린 코. 웃음기 없이 앙 다물어진 못난 입술로 나는 내 안에서 그애를 바꾸어 놓았다. 그대의 얼굴을 마구 일그러뜨리고 난 후애야 나는 적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했다. 내게 학교생활이라는 것은 이제껏 그랬듯이 누구와 어울리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만 그대의 존재만이 나를 신경 쓰이게 했다. 그녀는 3분단 일곱째 줄에 앉았다. 교실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아이들은 종종 걸음을 치며 맴돌리듯 그애에게 붙어 다녔다. 이것 좀 먹어봐. 수학 숙제 다 했어? 아이들은 빵을 내밀고 초콜릿을 내밀고 숙제 공책을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수줍게 건네지는 쪽지와 편지들을 나는 보았다. 그애는 늘 웃으며 그것들을 받았다. 고마워. 이 한마디의 말이면 족했다.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것만으로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제 것으로 당연하게 받았다. 한 달이 지나고 그녀는 자연스레 반장이 되었다. 반 전체 학생 수 사십 팔 명에서 그 애는 삼십 팔 표를 득표했다. 아홉 표를 얻어 부반장이 된 아이는 그애 옆에 서서 연신 실실했다. 나는 기권했다.

그애의 존재만으로 교실은 환해졌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오래 그애의 자리로 몰려들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나는 3분단의 일곱째 줄에 앉아 아이들이 내민 과제와 초콜릿을 먹으며 웃고 있을 그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애의 유머는 인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짧은 커트머리

시 수치와 굴곡감으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 포카칩

그애는 쪽지처럼, 내 책상에 병뚜껑을 놓아두었다. 아침마다 책상 서랍에 놓여지는 병뚜껑을 들어 올리며 아랫입술을 꼭 깨물게 되면 서도 나는 웬지 모르게 그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 버리지는 말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런 나 자신을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버리는 척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하루에 하나씩, 병뚜껑은 내 교복 상의 주머니에 쌓여갔다. 때로 그애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눈길을 주지는 않았다. 그애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다. 여전히 창 밖을 바라보며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찰라 넣고 까글까글하면서도 매퍼러운, 그애가 준 병뚜껑을 만지작거렸다.

“포카칩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햇살이 따사로운 유월의 어느 날이었다. 청소시간이 끝나고 8교시가 시작되기 전의 쉬는 시간. 누군가 등 뒤에서 와서, 과거 먹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애였다. 나는 아이들이 잘 오지 않는 학교 건물의 소각장 옆 풍터에 앉아 포근한 햇살에 나른한 몸을 맡기고 있던 터였다. 그애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아 손에 든 포카칩 봉지를 내밀며 뜽뜽하게 내게 포카칩의 두께를 물었다. 나는 잠시 그애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봉지 속으로 손을 넣어 과거를 꺼내 입에 물었다.

“0.134센티미터야.”  
그렇게 말하며 그애가 싱크 웃었으므로,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난 포카칩을 먹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완전한 하나의 포카칩을 부서뜨리지 않고, 씹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식도를 넘겨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말아야.”

그애는 나른하게 고개를 위로 젓으며 눈을 감았다. 눈을 돌려 그애의 흰 얼굴과 목덜미, 어깨선을 훑쳐보았다. 나는 말없이 포카칩을 아삭아삭 부서뜨려 먹었다.

“0.134센티미터인 포카칩을 부서뜨리지 않고 내 안에 여덟 개쯤 쌓으면 1.072센티미터가 될 거야. 10센티미터를 쌓기 위해서는 아마도 팔십 개의 포카칩을 먹어야 하겠지. 내가 팔백 개의 포카칩을 부서뜨리지 않고 내 안에 쌓으면……무려 1미터가 되는 거야. 포카칩

## 소설부문 심사평

# 서술적 담대성과 강인성 돋보여

응모된 작품들 중에서 염승숙(예술대 문학2)의 ‘달은 찹쌀떡으로 만들어져 있다’를 수상작으로 선택하는 데 오려 주저하지 않았다.

다소 기발해 보이는 제목과는 달리 이 작품이 재현해내고 있는 경험 자체는 흡사도 평범해 빠진 것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그 시기 누구라도 겪었을 만한 사춘기의 경험을 회상해 내고 있는 데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시종일관 긴박감으로 읽는 이를 사로잡는다는 사실은 놀랄기만하다. 아마도 뛰어난 묘사 능력, 심리의 깊이를 꿰뚫는 예리한 통찰력, 적절하게 시퀀스들을 배분하고 조합하는 균형감, 과감한 생략과 가속 등에 힘입는 결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냉정하게 경험과 거리를 유지한 채 서사를 통하는 서술적 담대성과 강인성이 돋보인다.

이 소설은 평범한 사실 - 소설의 흥미는 경험 그 자체보다는 경험을 재현해 내는 솜씨에 더욱 좌우된다는 사실을 새삼 환기시켜 준다. 조금은 무게가 떨어지지만 장원에 뽑혀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한용환  
시법대 국어교육과 교수

가 잘 어울리는 미소년 같은 얼굴에 키까지 큰 그애에게 아이들은 호감을 가졌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반이 지난 무렵 치러진 전체 중간시험에서 전교 3등이라는 그애의 성적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애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더욱 증폭시켰음은 물론이었다. 나는 그애에게 일찍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애와 시선을 마주칠 일은 애 만들지 않았다. 그애의 자리 근처로 가는 일도 없었다. 수업시간이면 그애가 국어책을 읽고 칠판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지만 애써 귀담아 듣지 않았고 눈으로 보지도 않았다. 나는 창 밖 풍경에 시선을 두거나 풀지도 않는 수학책에 얼굴을 묻고 잠을 잤다. 오월로 접어들며 나는 곰살거리게 몸을 어찌하지 못하고 더욱 나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엔가 창문 밖에서 벌어지는 체육시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 어깨로 무언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내 목덜미 부근을 때리고는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 찰나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만 나는 모든 척 했다. 바닥에 떨어진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싶지도 않았다. 몇 분단의 아이들이 활짝 나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뛰었다. 나 자신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이 느껴졌다. 핏물이 배일 듯 잠근 잠근 입술을 씹었다. 가로등 밑에 서 있던 그애의 모습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애써 교과서에 눈을 두고 손에 쥔 볼펜이 부러져라 세게 집을 주어 잡았다.

권이여 또 하나의 무엇이 나의 머리칼을 스칠 듯 지나쳐 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휩 돌렸다. 그애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주위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나와 그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중 몇몇은 입을 삐죽대며 나를 흘겨보기도 했다. 나는 입을 앙다문채로 그애를 노려보았다. 나를 놀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검은 눈동자에 내 모습을 담고 웃는 듯 안 웃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가로등 밑에서 보았던 그애가 확실했다. 나는 눈개풀을 바르르 떨며 그애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았다. 가까스로 화를 식인 내 눈에 들어온, 그애가 내게 던진 그것은 노란색 병뚜껑이었다. 알 수 없는 외래어 글자가 써져 있는 병뚜껑의 뒷면에는 병뚜껑 모양대로 오려진 노란 종이 붙어 있었다. 작게 써진, 그러나 또렷이 보이는 검은 글씨. 그 순간 심장이 발바닥 밑에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나는 또다

1미터. 상상이 되나?”

그애는 상상만으로도 환호한다는 듯 한 표정을 하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이러한 이유가 뭐야?”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그애에게 내뿜듯 물었다.

“친해지고 싶다고 했잖아. 병뚜껑 뒤에 쓴 거 안 읽어봤니?”  
그애는 큰 눈을 깜박거리며 의아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애의 눈 속 가득 내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 꿀꺽, 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목이 타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애가 나를 훑어지게 바라볼수록 답답함은 더욱 심해졌다. 무언가 끈끈한, 달라붙어 잘 떼어지지 않는, 낯선 기분이 온몸을 휘감고 돌았다.

“확실하게 말할게. 난, 네가 싫어.”  
나는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교복 치마를 탁탁 털고 일어났다. 일어나는 그 찰나에, 그애의 손이 내 손을 확 낚아챘다.

“항상 생각했어. 부서지지 않은 완전한 포카칩을 내 안에 가득 쌓으며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광경. 목, 식도까지 포카칩이 차오르는 모습. 내게 사는 건 그다지 행복한 일이 아니야. 포카칩을 먹으며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는 일보다도 더 재미있어.”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애가 그러린 내 손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가지 마. 이 포카칩 다 먹고 같이 들어가자.”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일까. 나는 그애가 내린 포카칩 봉지를 빼앗아 휘 던져버렸다. 내뿜어치려고 했던 마음과는 달리 허우적대는 내 손 때문에 방향이 틀어진 포카칩 봉지는 위로 날아갔다. 날리며, 봉지 안에 있던 동그란 포카칩 하나가 하늘로 솟았다. 그것은 물연 괴판 하늘에 뱅그러나 놓여진 낫달과 겹쳐지며 순간적으로 나로 하여금 무엇이 포카칩이고 무엇이 달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만 포카칩이 달처럼 하늘에 고정된 그 순간 부시도록 흰 빛에 가슴이 뛰여 나는 질근, 눈을 감아버렸다.

## 반지

학교 앞 새로 생긴 커다란 편의점 있지? 학교 끝나고 그리로 와, 그애가 내린 포카칩 봉지를 내던진 이후로 그애는 내게 말을 걸지

10면에 계속

# 제40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9면에서 계속

않았다. 그날 나는 그대의 손을 뿌리치고 교실을 향해 뛰었다. 뛰면서, 나는 나 스스로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릴 일은 없으리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교실로 들어왔을 땀 이미 8교시가 시작되어 있었다. 그대는 8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이 되어서야 교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어디 갔었나? 표정이 왜 그래? 아이들이 우르르 그대에게 물러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쉬는 시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렸다. 주머니 속에 가득한 노란색 병뚜껑들이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다. 화장실로 들어가 나는 성급히 교복을 벗어 거꾸로 든 채 마구 흔들었다. 쓰레기통 속으로 병뚜껑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교복을 탁탁 털어 다시 입고 돌아선 그 자리에 그대가 서 있었다. 나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대를 지나쳐 교실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대 역시 나를 외면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처러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내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여겼다. 나는 또다시 찌뿌찌뿌 아파 오는 배를 감싸 쥐고 내 뒷자리의 아이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몰래 보라색 펜 하나를 주머니에 찔러 넣는 일을 계속했다. 다시 하루하루가 똑같아졌다.

그리고 몇 달 쯤 시간이 흘렀을까. 쌀쌀해진 아침 공기를 맡으며 학교에 온 아침 내 책상 서랍에 다시금 노란색 병뚜껑이 놓여져 있었다. 펜시점이라니. 내가 그 곳에 가야할 이유는 없었다.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나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었다. 나를 그 곳으로 오라고 말하는 그대가 우습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내가 8교시가 끝나고 샤프펜슬이머 지우개, 누군가의 생일선물 따위를 사기 위해 아이들이 삼삼 오오 북적이는 펜시점 앞으로 걸어간 것인지, 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펜시점으로 가기 위해 교문 앞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그대는 펜시점 입구에 서 있다가 나를 보고는 고개를 돌려 펜시점 안으로 들어갔다. 무표정한 그대의 얼굴이 웬지 모르게 나를 조바심 내게 했다. 나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듯이 걸어 펜시점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 문을 연 펜시점은 크기도 크거나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렸다. 나는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그대를 찾기 위해 눈을 희번덕거렸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계산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돈을 받았다.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화분을 옮기고 물건을 정리하느라 땀방울이 들어찬 사람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대가 보이지 않아 나는 마음이 달았다. 편지지와 엽서가 가득 꽂혀져 있는 곳을 지나고 인형이 산처럼 쌓여진 모퉁이를 돌았을 때야야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무언가에 잔뜩 몰두해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한동안 그렇게 그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왜 하필 나인 걸까. 나는 무얼 바라 이곳에 온 걸까. 이토록 조바심을 내며 그대의 자취를 좇아 온 나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목구멍을 타고 기어올랐다. 그대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오라는 대로 잠깐씩 펜시점에 나타난 내 모습이 우습고 역겨워졌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그대에게 다가갈 때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따끔히 말해줄 참이었다. 얼굴이 붉어진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막 그대의 등 뒤에 섰을 때 그대가 갑자기 나를 향해 획 돌아섰다. 그리고는 내 뒷입술과 아랫입술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내 손이 찢어진 교복 상의

주머니 속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었다. 순식간이었다. 그것은 아무런 감촉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단 한번 깜박이지도 않고 크게 확대된 동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나는 나도 모르게 획 몸을 틀어 펜시점의 입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기 시작했다.

“아니 이와 학생, 지금 뭐가 뻐냈지?”  
 등 뒤로 들려오는 아저씨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나는 펜시점의 자동문을 빠져나왔다. 문이 열리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누군가 나의 목덜미를 확 잡아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는 듯 온몸이 혹속 더워졌다. 펜시점을 빠져 나온 후에야 다리가 후덜덜 떨려



왔다. 쉬이 발을 땀 수 없었다. 아스팔트에 달라붙은 더러운 걸처럼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누가 나를 좀 떼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한동안 펜시점 앞에 죽 쥘려져져 있는 수많은 초콜릿과 사탕, 선물 상자들 앞을 구경하는 척 하며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서성였다. 차마 돌려지지 않는 발걸음이 원망스러워 짜증이 났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허둥대고 있었다. 무언가를 집어 올리는 손길이 바들바들 떨렸다.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는 간단한 일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트 모양의 막대사탕 하나를 집어 올리며 나는 문득 그대의 머리카락 색깔이 어땠는가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 사탕을 내려놓는 동안 그대의 눈과 코의 모양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다시 노란색 포장지를 집어 드는 동안 그대의 입이 지워지고 그대의 매끈한 다리가 부서졌다. 새까만 구두도, 구두코에 달린 작고 검은 리본도 사라져갔다.

펜시점 입구는 들어가는 사람들과 나오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북적였다. 나는 고개를 빼돌려 머뭇머뭇 펜시점 안을 기웃거리 보았지만 그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 그대의 턱살을 쥐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저씨를 뻔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대의 주위로 사람들이 물러들어 수군대고 있었다. 주인아주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그대의 교복주머니와 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이 보였다. 씩씩거리는 아저씨의 붙어진 얼굴과 그대의 흰 얼굴이 대조적이었다. 계속해서 뻔히 쳐다보기만 할 뿐 그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얼굴이 벌개진 아저씨가 갑자기 그대의 머리통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거짓 부



림이야? 꺼내서 보여주세요. 어디다 감춰요?”  
 고함을 지르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울렸다. 아저씨의 거친 손길에 그대의 밤색 머리칼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먹 친 손을 파들과 떨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가 휘두르는 커다란 손에 맞고 있는 모습은 분명 그대가 아니리라 생각되었다. 그대는 늘 웃는 얼굴이어야 했다. 초콜릿과 사탕을 받으며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여야 했다. 수학문제를 잘 풀고 우스개 소리를 잘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이여야만 했다. 내게 사는 건 그다지 행복한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런 말을 입에 담은 것조차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 그는, 그런데, 그런 그대가 섬뜩하도록 무표정한 얼굴로 턱살이 잡힌 채 서 있었다. 입을 가리고 눈을 치켜 뜬 채 무언가를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저씨의 힘찬 육살을 들으며 매를 맞는 그대의 모습이라니....., 그럴 수

는 없었다. 나는 뒤돌아 달렸다. 껌처럼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던 내 낡은 구두가 낱듯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때로부터, 그리고 매 맞는 그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다리를 어찌 하지 못하고 나는 달리고 또 달렸다. 슬지 않아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발길에 채였다. 서걱서걱 비명을 질러대는 그것들을 밟고 또 밟았다. 버스로 일곱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 집 앞 다리아래에까지 이르렀을 때 나는 꼭 주저앉았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모아 웅크렸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은 채로 나는 오랜 시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땀 이미 어스름하던 저녁 노을이 모두 저 버린 감각한 어둠 속이었다.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만이 내 귓가를 적시고 있었다. 모래와 자갈들이 신발에 채였다. 스산한 찬바람이 머리칼을 날려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멀리, 보이는 집들의 불빛들이 색색깔의 사탕처럼 점점이 반짝거렸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눈을 부릅뜨고 계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허리가 부러진 빗자루처럼, 꼭 것처럼 내동댕이쳐지던 가로등 아래서의 밤도 생각났다. 십일월 초의 쌀쌀한 바람이 자꾸만 머리칼을 날리고 이마를 쓸고 속눈썹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차가운 손을 문지르며 교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에 만져진 그것. 그것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나는 그 순간 내 속눈썹을 흔들고 지나갔을 뻔한 바람이 문득 원망스러워졌다.

그대,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어두운 밤, 흙 묻은 자갈처럼 웅크리고 앉아서서 작게 중얼거렸다.

## 달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사위가 어두워질수록 물 흐르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 바람이 날카롭게 나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자꾸만 눈자위가 붉어지는 듯한 기분에 나는 계속해서 소매로 눈가를 훔쳐거렸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찢러 넣고 일어섰다. 드문드문 올라와 있는 잡초들을 밟으며 개천 가까이 다가갔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물에 녹아 사라지는 존재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 손아귀에 힘을 주고 팔을 크게 돌려 그대가 내게 준 그것을 물에 던졌다. 반지, 작고 예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흐르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버렸을 것이다. 던진 그 자리, 떨어진 그곳 그대로 가라앉았을 것이었다. 흐르지 않는다 해도 좋았다. 흘러가버리지 않고 다만 가라앉아만 쫄다 해도 더 ভাল 것이 없었다. 그로 인해 뽀얀 듯 충혈 되어 있는 자위와 누군가 훔쳐가 버린다면 좋을 심장이 다독거려질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깨질 듯 관자놀이를 툭툭 찢러대는 두통이 그대로, 그대로 가라앉아만 쫄다면.....,

깊어지는 어둠 어딘가에서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있는 힘껏 던져버린 반지는 떨어져, 물 흐르는 대로 바람부는 대로 자리하리라. 떨어진 반지보다 못하게 나는 어둠에 깊숙이 파묻힌 채로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선 그 자리에, 또 다시 그대가 있었다. 잘려나간 나무뿔뿔처럼 쓸쓸하게, 그대가.

“가진 물건이 없으니 뭐 어찌했어. 방방 뛰다가 결국엔 놓아주더라.”

땀뻑한 목소리로 그대는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투. 언제부터 서 있었던 것일까.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던 다행이었다. 크고 숨을 들이쉬었다가는 급히 뱉었다.

“앞으로 이러지마, 날 놀리지도 말아. 그냥 내버려 둬.”

난 속사포처럼 말을 뱉었다. 어서 빨리 지금의 이 시간을 벗어나야만 했다. 가방은 그대가 서 있는 자리의 뒤에 얹혀져 놓여있을 것이었다. 나는 저벅저벅 걸어 그대의 곁으로 다가갔다.

“사람 맘을, 그렇게 모르냐.”

가방 끈을 잡으려 하는 내 팔을 그대가 잡았다. 회고 호박진 그대의 손힘이 역했다. 그대는 금방이라도 물어버릴 듯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대에게 손목이 잡힌 채로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면 안 될 것만 같았다. 그저 순순히 그대에게 손목이 잡혀 뿌리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지한 화면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잡으면 잡히는 대로, 다가오면 가까워지는 만큼, 다만 가만히 멈춰 그 자리에 있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돌연 마음이 잔잔해졌다.

“.....아주 어렸을 때 난, 달은 찹쌀떡으로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 달에 살고 있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훗날 달에 구멍이 나도 찹쌀을 찧는 토끼가 떡을 만들어 붙여 그것을 메울 거라고 믿었어.”

그대와 나란히 앉아 나는 조용조용 말을 이었다. 내 마음 어디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용기가 들어있었을까. 바늘귀의 매듭을 잃은 실처럼 목소리는 느슨히 흘러나왔다. 그대는 그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간간히 개천으로 작은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보이는 달은 노랑지만 실제로 달은 흰 찹쌀떡으로 발라져 있을 것이므로 하얗다고, 그렇게 믿었지. 달에서 찹쌀떡을 찧고 있을 토끼가 나는 늘 궁궁했어. 찹쌀떡 안에 들어있는 달 더 단 속, 그것조차도 흰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 크면서 그 믿음은 물론 깨졌지만....., 나는 꽤 오래도록......”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오랜 시간 그대와

함께 웅크리고 있었다. 밤이었고 어두웠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다. 발밑을 구르는 모래와 자갈들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고요했다. 밤하늘에 덩그러니 매달린 보름달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기 때문일까. 어깨를 펴며 웅크린 몸을 풀고 일어섰다. 그대도 나를 따라 일어섰다.

저 달을 한번 훑쳐봐라.....,

누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함께, 질적질적 소리를 내는 자갈을 밟으며 개천으로 다가갔다. 그대와 나는 동시에 뛰어들어 달을 움켜쥐었다. 물은 종이리까지 밖에 차오르지 않았다. 세계 힘을 주어 움켜쥐고 또 움켜내었다. 이지러진 달을 건져내고 또 건져내었다. 웃이 흠뻑 젖도록 계속해서 달을 훑었다. 온몸으로 물이 흘렀다. 목덜미에, 가슴팍에, 조각조각 달이 새어들었다. 물인 듯 달인 듯 나는 흐무러졌다. 그것이 마지막, 나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 찹쌀떡

근데 이상한 애가 내 앞에 나타났어. 찹쌀떡처럼 들러붙고, 잘 떨어지지 않고, 기본 나쁘게 달고, 가까이 가면 흰 밀가루가 툭툭 떨어져 웃에 묻어날 것만 같은, 그런. 그래서 난 가까이 갈 수 없었어.

결국 찹쌀떡으로 온통 발라져 있었던 건, 열여섯 살의 나였음에도.

## 동백꽃

그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은종이처럼 날리는 흰 눈이 소복소복 온통장에 쌓이던 이듬해 이월의 졸업식장에서였다. 개천에서의 일 이후로 그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대의 부재로 인해 한동안 아이들은 슬렁대었다. 펜시점에서의 일 이 아이들 입에 오르내렸다. 모두의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대가 그럴 줄은 몰랐다면 우살을 지었다. 그대의 부모가 빛에 쫓겨 전에 살던 동네에서 도망 온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우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술집을 차려 생활해 왔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근래 들어 또 다시

빛을 감지 못해 그대의 부모가 바깥으로 떠돌다는 소식도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어 알 수 있었다. 그대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나는 매일 매일 집 주변의 상가와 주공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대의 부모가 한다는 줄집은 찾을 수 없었다. 꽤 먼 곳까지 다리품을 팔았지만 그대를 만날 수는 없었다. 혹시나 그대가 다녀가지는 않았을까 매일 아침 책상 서랍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십이월로 접어들어 학교는 곧 방학을 했고 방학과 함께 그대의 소식도 끊겼다.

그대가 사라진 이후로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통해 쓸쓸함을 지우는 방법을 배웠다. 책은 내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내 주었고 펼치기만 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책을 읽지 않는 시간이면 그대가 돌아왔을 때를 상상하며 빗장이 웃고는 했다. 그대가 내 앞으로 돌아와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했다. 외출했다 돌아오는 집 앞 가로등 밑에 훑어 그대가 서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집 근처에만 다다르면 매무시를 다듬었다.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이 북적이는 역전이나 터미널 근처를 배회하면서 혹시라도, 하는 기대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마음을 흔들여 놓았다.

돌아온 그대의 모습을 상상하는 내내 관자놀이에서 심장이 뛰었다. 발그레해지는 양 볼 때문에 미열이 일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그대는 꼭 돌아오리라. 병뚜껑 가장자리의 자갈한 톱나뭇잎 모양처럼 굴곡진 길을 돌고 돌아 내게로 오는 중일 것이었다. 아사아사 부서지는 포카칩처럼 경쾌하게 걸어 내 앞에 설 것이었다. 물인 듯 달인 듯 유유히 흘러와 그대는 분명, 내게 밤색 머리카락을 훑날리리라. 그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주는 상상을 하며 나는 그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를 바라보며 심장 웃던 그대의 가지런한 잇바더와 회고 검은 눈동자를 생각하며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는 오지 않았다.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가 오지 않았음에도 시간은 흘렀고 방학은 끝났고 나는, 열일곱 살이 되었다.

눈이 오고 있었음에도 날씨는 포근했다. 눈은 내 어깨에

닿는 듯 닿지 않는 듯 나를 비껴서 내렸다. 나는 셔터를 누르는 아버지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표정 없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다. 북적대는 사람들에 휩쓸려 꽃잎이 떨어지고 꽃다발이 구겨졌지만 그러는 사이 어느 덧 졸업식도 끝나가고 있었다. 새로 신은 구두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순간, 그 순간에 나는 흰 눈송이를 머리카락에 매달고 서 있는 그대를 보았다. 그대는 가로등 밑에 서 있던 그 날처럼 베이직색 코트를 입고 가로등이 아닌 동백꽃 아래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열 발자국만 걸어가면 닿는 곳에 그대가 서 있었음에도 나는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대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외계인을 만나기라도 한 듯, 우주인을 앞에 놓은 지구인처럼 웬지 모르는 낯설음에 마냥 그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조금 험클어진 듯한 그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알 듯 말 듯 많은 미소를 짓고 있던 그대가 돌연 환하게 웃으며 손바닥을 머리 위로 올렸다. 머리 위에서 손바닥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시늉을 해 보였다.

키가 컸구나, 너.

그대는 입 모양만으로 그렇게 말했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구겨진 꽃다발을 꼭 쥐어보았지만 눈앞은 순식간에 뿌연게 흐려졌다. 열 발자국쯤 떨어진 그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멈춰 서서 사진을 찍었다. 고개를 숙여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대는 없었다. 눈을 희번덕거렸지만 그대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눈 맞은 동백꽃만이 활활 타올라 물처럼 불처럼 그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등 뒤로 나를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꽃대가 꺾이고 비닐이 구겨진 꽃다발을 들고서 새 구두를 신은 발에 힘을 주었다. 또각또각 나를 향해 흔드는 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나이 열여섯의 문을 닫는 것과 동시에 열일곱의 나를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이었다. 조금씩 훑날리던 눈발은 함박눈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세상이 온통 희었다. 열일곱의 문은 열리며, 부시도록 환한 눈송이 하나를 비로소 내게 떨어뜨리고 있었다.

# 제40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 희곡 · 시나리오부문 장원수상작

# 벌써 그러나 아직

**등장인물**  
윤양순 (60세, 시어머니)  
노미자 (60세, 며느리)

**무대**  
일반 가정집의 거실.  
무대 왼쪽 구석에 부엌이 있다. 주로 사용되는 공간은 거실로 오른쪽에 서랍장이 놓여져 있고 서랍장 위에는 시계가 놓여져 있다. 옆에는 옷걸이가 있다. 종산층의 가정집으로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양순 잠바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양순 이래서 백화점 삼을 가야 하는 거야, 삼을. 시정통 여권네들은 교양머리가 없어서…….

그 때 미자, 양순에 짐을 가득 들고 들어온다. 부엌으로 가서 짐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는다.

양순 물 한잔.

미자 양순을 노려보다가, 양순에게 물을 갖다 주며.

미자 혼자 살아? 네가 셋달이야?  
양순 (물을 마시다가 이를 움켜쥐며) 아이고 시러워라, 이 년아! 나 병장고에 있는 물 안마신다고 그랬지! 머리 용량도 큰 것 같은데, 몇 십 년을 애기해도 못 알아먹냐.  
미자 농약 안 뿌렸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지. 콩나물에 코 디밀고 콩콩……. 농약 냄새 난다고 버럭 소리지르고 뭐 하는 짓이야? 어! 아줌마 집에서 직접 키우는 거 가져온 거라잖아!  
양순 코가 시리도록 냄새난데 농약 안쳤다고 하는걸 믿어?  
미자 시정 갈 때 따라 오지마, 알았지? 절 때 따라 오지마!  
양순 으쌰 사춘다고 꼬신 년이 누군데.

미자 양순이 마시던 컵을 뺏아서 부엌으로 걸어간다.

미자 아침에 동준애비한테 전화 왔었어.  
양순 자랑 하나? 자식한테 전화 왔다고?  
양순 집 구했대.  
양순 …….  
미자 아버님 제사 지내고 옷 어떤 거 가져갈지 생각해.  
양순 나쁜 년, 좋지?  
미자 오리 털 잠바 가져갈 거지?  
양순 안 가져가면? 내가 입게?  
미자 저런 거 하나 있으면 겨울 보내긴 딱 이겠더라, 따뜻한 것이.

부산하게 움직이던 미자, 실수로 컵을 깨뜨린다. '깡그랑' 소리 요란하게 들리고

양순 다 때려 부셔라, 부셔.  
미자 아야…….

양순 부엌 쪽으로 가며

양순 어디 봐봐? 정신을 어디에 팔아먹어서 깨부시냐?  
미자 너 씨름질하는 거 말리느라고 정신 없어서 이러잖아! 잠 보러 갈 때 다시 따라 나오지마, 알았어?  
양순 아 말야아아아.

양순 미자를 끌고 거실에 앉는다. 서랍장 위에 구급약통을 가지고 와서.

양순 출랑출랑, 까불거리더니.  
미자 너 또 빨간 약 시벌정계 발라 놀 거지? 아, 살살해 아파.  
양순 치료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업살은.

미자 유리 들어갔네, 왜 이렇게 쓰러져?  
양순 집은 어디에 구했대?  
미자 광주 쪽 인가봐.  
양순 경기도 광주?  
미자 아버님 묘 전라도 광주에 있었어.  
양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에 내 본적인데! 내가 왜 거기까지 내려가서 살아!  
미자 아버지 묘랑 가까운 집이래.  
양순 완전 산골짜기 도랑에 있는 집이겠군.  
미자 오십 평이래.  
양순 그 노인 묘나 자카다 죽어라 이 얘기지?  
미자 그래도 남편이다, 애정을 좀 가져라.  
양순 비 오는 날 먼저 풀풀 나도록 맞아야 해, 나쁜 자식, 광주에 몰힐 건 뭐야.  
미자 미우나 고우나 네 남편 제사날이다, 굶고 바른 언어만 사용하자, 양순아.  
양순 성춘향 나이에 오십 먹은 늙은이한테 시집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다가 일 년도 못 살고 늙은이 죽어버리고……. 평생 이렇게 독수공방,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데.  
미자 늙은이가 꼬신다고 넘어오는 네가 잘못이지, 뭐가 억울해? 그리고 너는 일년이라도 고소한 잠기를 밤새 쫓겨왔지, 한 달만에 남편 잃은 나보다 억울해?  
양순 넌 동준애비라도 있었잖아!  
미자 그 집 없었으면 참하고 실한 농한테 벌써 시집갔어.  
양순 지금이라도 동네 공원 나가봐, 사내놈들 많아, 네가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만, 손가락 들 힘,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사내들은 계집생각이라고 하더라, 너도 짚수해 줄 수 있을 텐데.  
미자 하여튼, 말하는 뉘새하고는, 빨리 뺏고 붙여줘, 동준애비도 되근하고 바로 온다고 했어. 잡채도 할걸 그랬나봐.  
양순 잔치날이야? 잡채는 무슨.  
미자 동준애비가 좋아하잖아.  
양순 나 간다니까 속이 시원하냐?  
미자 확인사살까지 하고 싶어? 그래, 좋다.  
양순 그래도 광주는 너무 멀다. 혼자 살기에 집도 크고……. 춘구석에 어떻게 혼자 있어?  
미자 시간이 벌써 저리 돼버렸네, 빨리 준비해야겠다. 넌 나물 좀 다듬어.

미자 부엌 쪽으로 간다.  
양순, 미자가 건넌 나물을 다듬는다.  
무대,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양순 어제……. 드라마에서 봤는데, 에스키문가?

그 일을 많은데서 사는 사람들 말야, 거긴 사람이 죽으면 오일 동안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하대.  
미자 (간을 보며) 간장으로 간 맞추면 토란국 색깔이 너무 탁해져.  
양순 그게 정례식이래.  
미자 조금 간하면 쓴맛이 너무 나는데…….  
양순 그렇게 죽은 사람 얘기만 계속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절 때 그 사람에 대해선 말도 안하고 생각도 안 한대.  
미자 아, 우리 정종 안 사왔지? 사와야겠네.  
양순 난 더도 안 바라다, 딱 삼일 동안만 내 생각 해라.  
미자 뭐?  
양순 정종 사러 안 간다고! 남정수퍼 여편네 풀보기 싫어, 봉투 값 20원씩 꼬박꼬박 챙겨받고, 정 없어.  
미자 그 여자도 너 싫다더라, 껌 한 통 사가면서 봉지하나 그냥 달라고 생떼 부린다고, 왜 그렇게 미운 털 박히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냐? 광주가면 그러지 말아라.  
양순 다 다듬었다.

콩나물 다듬은 것을 옆에 밀어두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양순.  
미자 부엌에서 자갑을 챙겨들고 나오며.

미자 정종 사올게.  
양순 혼자 있으라고?  
미자 코앞이다! 참, 약 먹었어? 안 먹었지? 약은 이제 네가 좀 챙겨라, 알았냐? 금방 갔다 올게.  
양순 내 잠바 입고 나가, 없는 거 티내냐? 밖에 나가면서 옷이 그게 뭐야.  
미자 잠바에 뭐 묻혀왔다고 괜한 생트집 잡으려고? 일 없네오.

미자 나가고

양순 빨리와.

양순, 수납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따리를 꺼낸다.

양순 으휴, 먼지…….

관객들은 보따리에 담긴 것이 웃인 것처럼 보이나 정화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양순 입어볼까?

## 희곡 · 시나리오부문 수상소감

#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는 글 쓰고파



문예창작학과 2학년 강윤희

사람들이 웃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면-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나가야 할 톨게이트를 놓치면 다음 톨게이트가 나타날 때까지 가야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니다.

잘못 들어가면 끝까지 달려야 하는 곳-고속도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하루에 2450번씩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곱씹어보는 생각입니다.

한참을 잘못 들어온 것 같고, 달리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지만, 한 번 끝까지는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 글을 읽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소감까지 기회를 주신 동대신문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 선배님, 후배님들, 막강 희곡분과 여러분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이든든하구나, 예술문학 1학년 동기들. 소중한 고마워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은 부모님, 정신적 지주 윤정언니.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웃고 우는 이유입니다. 제가 쓰는 글이 사람들이 웃고 우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달립니다.

## 희곡 · 시나리오부문 심사평

# 압축된 서사와 대사 돋보여

동대신문사가 주최하는 동대문학상에 올해부터 '희곡 · 시나리오' 장르가 신설되었다.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우리 연극과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늘 거론되는 것이 창작희곡과 시나리오의 부재라는 사실과 그 장르들이 문화컨텐츠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응모된 작품들은 모두 희곡과 시나리오의 장르적 특성을 습득하고 상당한 습작기간을 거친 작품들이었다. 그 가운데 '도시에서의 사랑' (시나리오, 이종운)은 절제된 영상으로 남녀의 애뜻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으나 서사의 개연성을 갖추지 못했고, '임지순가락은 든 풍경' (희곡, 최문예)은 노년의 슬슬함과 고통을 단아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갈등의 해소방식이 안이하다는 점이 흠이다. '꿀이 든 사과를 먹었다' (TV드라마, 강윤희)는 탁월한 언어구사와 휴머니즘의 감각화가 돋보인 반면 갈등의 예각화가 부족하였고, 당선작인 '벌써 그러나 아직' (희곡, 강윤희)은 소녀시절의 친구였던 두 여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압축된 서사와 생동감있는 대사가 돋보였다.

응모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춘문예와 다른 문학상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

이종대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양순이 보따리를 풀어서 꺼내려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린다.  
화들짝 놀라는 양순, 보따리를 안고 전화를 받는다.

양순 어, 어 동준애비냐? 어 너네 얼마? 제사음식 사러 나왔어……. 음 나도 들었다. 짐 구했대. 할아버지 제사 온다며? 못 왜? 내일? 내일 당장? 그래, 알았다. 짐 챙기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알았다. 끊는다.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는 양순.

양순 빨리도 처리하네. 빨리 나가 버리라 이거지? 빈말 이래도 할머니 소리 안 하지.

미자 들어오는.

미자 아이고, 출다 추워. 뭐해? 전화 왔었어? 그 보따리 뭐야?  
양순 네 아들 전화왔었어.  
미자 뭐래? 그 보따리는 뭔데 그렇게 꼭 감싸 쥐고 있냐?

양순, 서랍장에 다시 넣는다.

미자 풀단이야? 나도 좀 보여줘라! 뭐냐니까?  
양순 네 아들 오늘 행사 못 하신 단다.  
미자 (기운 빠진 목소리) 왜?  
양순 내일 온다고……. 짐 챙겨놓고 있으래.  
미자 온다고 해서 고기 다 채워놨는데.  
양순 내일 온대.  
미자 딱 딱 좋게 채워줬는데 오늘 올 것이지, 기운 빠지게.  
양순 내일 온 다잖아! 넌 네 아들 안 온다는 말만 들리지?  
미자 기차화통을 삶아 먹었나, 왜 소리를 질러!  
양순 정 떨어져, 모진 것.  
미자 갑자기 노망났나……. 왜 그래? 너 내일 가는데 가지 말라고 안 불잡는다고 이러냐?  
양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 너는? 아웅다웅 지냈어도 수 십 년을 같이 살았다, 꼬이고 꼬인 팔

자 서로 의지하든 세월이 일만대…….  
미자 치마라도 잡고 늘어져? 뭐가 불만이야.  
양순 시골 춘구석에 병든 환자 혼자 살게 되는 게, 걱정도 안되냐?  
미자 내가 너 병 걸리게 만들었네! 내가 너 보러 아프다고 했어? 왜 나한테 시비야!  
양순 나 가는 것 기뻐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 자식새끼 밖에 모르고, 착각하지 마 내가 아끼는 만큼 동준애비가 네 생각할 것 같아? 미 누나, 지 자식 밖에 몰라 개도! 네 인생이 불쌍하냐, 불쌍해!  
미자 뭐?  
양순 공부도 지치지 못해서 지방 전문대 나온 자식 뭐가 잘났다고 허구연날 자랑 할이야.  
미자 아! 내가 배 아파서 자식 낳아봤어? 감아지 한 마리라도 똥오줌 받아 가면서 길러봤어? 내가 자식 키우는 어미 심정을 뭘 안다고 나불거려? 동준애비 걸고 넘어지지만, 노친네가 심통은…….  
양순 사람들 아무도 내 속 불라!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아! 너도 똑같아, 다 이해하는 척 평생을 살갑게 대하더니, 결국 너도 똑같잖아!  
미자 단 한번도 너 이해한 적 없어.  
양순 뭐?  
미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나쁘다고? 너는 성인군자인 것 같냐? 솔직히 스무살 쯤 여자 오십살 먹은 대머리 늙은이, 주머니말고 뭐 보고 시집왔는데?  
양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내는 날이다, 곱게 끝내자.  
미자 내 인생, 네 인생, 다 불쌍해서 말동무나 하자고 같이 산 거지, 너한테 눈곱만큼도 정 없어, 너 간다고 하면 내가 눈물이라도 똑똑 흘려야 한다고 생각해? 웃기잖아!  
양순 관두자, 관두.

양순 밖으로 나가고 무대 점점 어두워진다.  
미자에게만 부분조명 들어오고  
전화벨 소리 들린다.

미자 어, 동준애비냐? 제사? 잘 지냈지, 짐은 이제 챙겨가지……. 난 괜찮아, 너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다. 광주가면 더 넓은 곳으로 가는데, 난 양순, 아니 어머니랑만 있으면 괜찮아, 그 래 내일 보자, 끊는다.

무대 점점 밝아지고  
미자 천천히 짐을 둘러본다.

미자 아버님 손 때 하나하나 묻은 집인데, 막상 팔려니 원, 죽어서 원망이나 안 들으려지……. 근데 이 계집에 어디까지 간 거야? 단단히 빼졌 나……. 안 그래도 동준애비사업한다고 속여서 죽였는데 왜 자식 얘기 들먹거리면서 열장을 질러……. 지르긴……. 같이 광주 가는 거라고 말할 걸 그랬냐?

미자,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서랍장으로 달려간다. 보따리를 꺼내서 거실에 앉는다.

미자 이, 이게 뭐야?

미자, 수의를 꺼내든다.  
미자 급하게 부엌 쪽으로 가서 선반에서 약통을 꺼내온다.  
약통을 손에 털자 약이 우르르 쏟아진다.

미자 이, 인간! 이번 달 약 하나도 안 먹었구만!

미자, 허탈하게 바닥에 앉아 수의를 만지작거리다.  
수의 주머니에서 사진 두 장을 발견한다.

미자 아버님 사진이네……. (다음 사진을 보며) 못난 인간……. 내 사진은 왜 가져가려고? 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얼마나 야속할까, 근대, 어디 간거야, 어딜! 날도 추운데……. 혼자 있는 거 지독히도 싫어하면서, 밖에 나갈 때 잠바 입고 나가라고 해도 지독히 말 안 듣지……. 약이나 꼬박 꼬박 챙겨 먹으면서 병 나를 생각부터 해야지……. 수의는 무슨, 미련한 여편네, 호감도 못 해 보고 가려고…….

미자 잠바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잠시 후 양순 소풍백을 들고 들어온다.  
양순 화장도 곱게 하고 단정한 모습이다.  
널브러져 있는 수의를 보고.

양순 남의 물건은 왜 만져? 모질긴……. 제사는 다 지냈냐? 노친네 정신머리하고는 문은 활짝 다 열어놓고, 문단속 잘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지, 나 없으면 이제 어찌려고…….

자리에 앉아 수의를 정리하며 사진을 보면서.

양순 당신 많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정말인데, 아무도 날 안 믿어……. 미자, 아 네 며느리조차도, 나 헛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제 당신 옆에 있어야지…….

사진을 수의 주머니에 넣는다.  
남은 또 하나의 사진 (미자) 을 보며.

양순 미자 네가 항상 옆에 있어서 혼자 사는 방법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지랄 맞은 내 성격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덩달아서 너도 욕먹고……. 너는 나랑 있는 거 싫었지만 세상 제일 편한 게 너랑 있는거야, 나는, 예휴, 벌써 시간이……. 갈 때를 모르고 너무 오래 있었나봐.

미자의 사진을 수위에 넣는다.  
양순, 소풍백에서 겨울 잠바를 꺼내서 앞치마에 놓는다.  
소풍백에 수의를 담는다.  
양순, 소풍백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렐레렐렐 뛰어 들어오는 미자.  
없어진 수의를 발견하고 놓여진 잠바를 든다.  
잠바를 조심스레 입어보는.

미자 양순아……. 아직 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

무대 점점 어두워지고, 잠진.

# 동대학술상

## 제17회 동대학술상 입상작

### 인문과학부문

**정원** 맑스의 주체철학 지양에 대한 소론 김주환(사회과학대 사회4)

**가작** 변형어의 언어적 특성과 국어교육적 활용 방안 김영대(사범대 국교4)

### 사회과학부문

**정원** 수상작 없음

**가작** 한국선거에서의 지역주의 : 지역주의의 성격과 전개방향 장재홍(사회과학대 정의3)

###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문 유현우(문과대 철학과)

사회과학부문 장하용(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 인문과학부문 수상소감

## 이론적 언어구사와 논리적 근거제시 어려워

이 글은 애초에 2, 3쪽 정도의 간단한 쪽글 형식로나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시작했던 것이었다. 즉 순전히 자기이해를 목적으로 했던 글이었는데 작성 과정에서 글의 분량이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버렸다.

이렇듯 애초부터 깔끔한 논문 형식을 의도하고 쓴 글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글이다. 예를 들어 '주체철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지도 않고 논리를 전개했으며, 부제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중심으로'임에도 불구하고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듯 기본적인 논문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의 글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막연하게 머리속을 부유하고 있는 상념들을 이론적 언어와 논리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막연했던 상념들을 이론적, 논리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데 있어서 지난해 현대사회이론을 강의하셨던 박영도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주환(사회4)

### 인문과학부문 심사평

## 독창적 주제보다 탐구의 진지성이 중요

응모 논문 4편을 명확한 문제 의식과 진지한 논증,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결론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맑스의 주체철학 지양에 대한 소론'과 '변형어의 언어적 특성과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을 각각 장원과 가작으로 결정하였다.

4편의 응모 논문이 고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논문의 형식적 구성, 선행 연구 결과와 참고 문헌의 적절한 활용, 차분한 논의의 전개 등에서 위 두 논문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변형어의 ...'은 주제의 참신성과 대안 제시가 장점이거나 변형어를 국어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약한 것이 흠이었다.

이번 응모 논문들에서 서론이 형식적으로 짜여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점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자신의 문제의식과 탐구의 방법, 서술의 범위 등을 밝히는 것이 논문의 서론이다. 서론이 형식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약하다는 반증이 된다. 인문과학 부문 논문에서는 독창적인 주제보다는 확고 탐구의 진지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주제가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논증을 통해 자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유현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 사회과학부문 심사평

## 구체적 대안 제시 미흡해 아쉬워

사회과학 분야에 응모한 총 5편의 논문에서 한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거에 관한 논문이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응모자들이 학술적인 논문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백화점식으로 개념만을 나열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의 제시가 미약한 경우, 그리고 특수한 사례를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의 경우, 지역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교적 잘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주의의 현 단계를 평가한 내용도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논문의 분석 수준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가작으로 결정했다.

장하용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회과학부문 장원수상작

# 맑스의 주체철학 지양에 대한 소론

## -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중심으로 -

### I 서론

이 글의 부제가 말해주듯, 이 글은 맑스의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필자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논의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맑스가 포이에르바하를 어떻게 비판,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만 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필자는 맑스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통해 단순히 포이에르바하 한 사람의 철학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근대철학이 서있는 지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근대철학이 서있는 지반이란 특히 '주체철학'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는 차라리 '근대철학에 관한 테제' 또는 '근대 주체철학에 대한 테제'인 셈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맑스의 근대철학에 대한 비판, 그 중에서도 특히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또한 맑스의 근대철학 비판에만 논의를 한정시키지 않는다. 이 글은 맑스주의 내부의 몇 가지 흐름에 대한 비판, 나아가 제하적으로나마 맑스 자신에 대한 비판도 수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맑스주의 내부의 몇 가지 흐름들, 그리고 맑스에게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맑스 스스로가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회귀하는 '강한'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 많은 포스트 담론들은 오늘날 맑스를 '죽은 개' 취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맑스의 사유를 근대 주체철학의 틀 안으로 환원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그들이 거대담론과 역사주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맑스의 사유 역시 그들에 의해 도매금으로 싸잡혀 폐기된다. 그러나 이들은 맑스야말로 근대 주체철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자였다는 중요한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포스트 담론들의 맑스 오독을 정정하려는 목적 역시 겨냥하고 있다.<sup>1)</sup>

### II 본론

#### 1. 논의를 위한 예비적 검토

##### 가) 맑스의 주체철학 지양 여부에 대한 제 평가들

필자는 이미 서론에서부터 맑스는 근대 주체철학의 구조를 해체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비맑스주의 진영에서는 물론이고, 맑스주의 내부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와 논쟁이 있다.

이러한 맑스 철학에 대한 해석 상의 이견과 그 논쟁을

일으키는 핵심적 지점은 맑스의 이론 구조 내부의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다.

때문에 그 상이한 해석과 논쟁의 지평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문제의식에 한정해서, 상이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을 다소 단순화해본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맑스가 헤겔의 변증법의 합리적 핵심과 신비적 외피를 각각 무엇으로 봤는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변증법의 일반적 운동형태를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서술한 사람은 헤겔이다. 헤겔에게 있어서는 변증법이 거꾸로 서 있다. 신비한 겉질 속에 들어 있는 합리적 알맹이(핵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 세우야 한다.<sup>2)</sup>

왜냐하면 주시하다시피 헤겔은 근대철학의 정점을 이루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맑스 말마따나 헤겔을 바로 세웠다 는 맑스 자신의 변증법이 헤겔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따라 맑스 철학의 주체철학 지양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리 말해두자면 필자는 헤겔 철학의 '신비한 외피'와 '합리적 핵심'은 '엔겔스의 생각처럼 각각 '방법'으로서의 '변증법', 헤겔 철학의 보수적 '체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소련 교과서의 설명처럼 각각 '관념론'과 '유물론'을 일컫는 것'이라고 파악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차 밝혀지겠지만, 필자는 '신비한 외피'를 헤겔 철학의 '주체철학적 논리 구조'로, '합리적 핵심'을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맑스가 '헤겔에 있어서 신비적 외피에 은폐된 합리적 핵심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주체철학적 논리구조 속에 은폐되거나 억압되었던 사회적 연관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복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했듯이 엔겔스는 헤겔철학의 합리적 핵심을 변증법의 '방법'으로, 신비적 외피를 '체계'로 파악한다.<sup>3)</sup> 엔겔스가 헤겔을 이해하는 방법에 따르면 변증법은 그 '방법'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상이며, 왜냐하면 변증법은 "세계는 ... 과정의 총체이며, ... 모든 것이 부단히 변화하면서 혹은 발생하며 혹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변증법은 일체의 "종국적 의의를 가지는 절대적 진리라든가 이 진리에 상응하는 인류의 절대적 상태라고 하는 따위의 관념을 타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엔겔스는 변증법의 '방법'을, '중지없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과정'의 논리로 파악한다. 다만 헤겔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그 끊임없는 운동을 중지시키고 '체계'를 완성하려는 헤겔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된다.<sup>4)</sup> 그리고 이때 운동의 원동력은 헤겔처럼 '정신의 자기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의 고유한 운동 논리'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의 철학에서 '체계'를 버리고, 변증법의 '방법'을 보존하는 '지양' 과정을 거쳐 '변증법적 (운동)법칙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고 또 자연에서 발전시킴'으로 써 맑스는 자신의 독특한 유물론 - 변증법적 유물론 - 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엔겔스에 따르면 맑스는 헤겔의 절대정신의 자리에 물질세계를 위치시키고 종말론적 종착지를 제거함으로써 거꾸로 서있던 헤겔을 유물론적으로 전도시킨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소련 철학교과서의 설명방식이 합리적 핵심을 유물론으로 파악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엔겔스의 설명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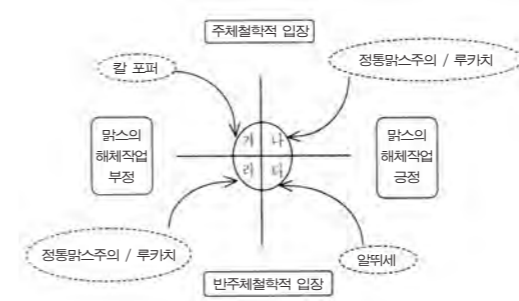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엔겔스의 설명이나, 소련 교과서의 설명 모두가 헤겔의 변증법의 구조 중 절대정신의 자리에 물질을 위치지을뿐 헤겔 변증법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정신의 운동으로 사회와 역사를 설명하는 대신 물질세계의 운동으로 사회와 역사를 설명하려는 강한 집착을 표현하고 있는 엔겔스의 '자연변증법'과 경제결정론 또는 토대환원론적 맑스주의로 귀결되었다. 이는 엔겔스와 소련 교과서의 맑스주의는 근대적 주체철학의 구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sup>5)</sup>

위와 같이 엔겔스의 맑스 이해의 오류는 결국 맑스의 사유를 주체철학으로 회귀시킨 공헌(?)을 했는데, 엔겔스 이외에도 맑스주의 내부와 외부에서 맑스의 주체철학 지양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일꾼이 이렇다. 이러한 해석 유형은 지금까지의 맑스 해석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으로 평가 받아온 흐름인데, 이 흐름에는 첫째, 엔겔스-레닌-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통 맑스주의와 둘째, 루카치, 사르트르류의 맑스주의 등이 속한다.

엔겔스-레닌-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통 맑스주의는 맑스의 철학 혁명을 '존재와 사유의 선차성 문제'라는 구도에서 파악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맑스는 '관념론적 변증법'을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이행시켰으며, 이러한 이행의 요체는 사유의 선차성에서 물질의 선차성으로의 이행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맑스는 사유의 영역에서 진행된 헤겔변증법을 물질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루카치나 사르트르(특히 루카치)는 맑스의 '노동 개념'이 헤겔의 변증법을 해체시킨 것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맑스는 헤겔의 의식활동으로서의 '정신의 노동' 개념을 '대상적 활동으로서의 인간 노동 개념'으로 이행시킴으로써 헤겔의 의식철학을 분해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상적 활동으로서의 인간 노동을 헤겔의 변증법으로 설명함으로써 결국 정통 맑스주의와 마찬가지로 맑스의 철학 혁명을 정신의 공간에서 물질의 공간으로의 중심이동으로 파악할 뿐, 헤겔의 변증법적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는 루카치가 헤겔의 절대정신의 자리에 주체철학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을 위치지음으로써 헤겔식의 거대주체를 보존시켰으며, 거대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헤겔식의 자기 확인의 논리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담지한 계급이라는 역사철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결국 (나)유형의 맑스 해석은 공통적으로 존재와 사유, 물질과 정신의 주체철학적 문제들에서 각각 사유에서 존재로, 정신에서 물질로의 이행을 맑스의 철학



(나)유형은 스스로는 주체철학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맑스는 주체철학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맑스를 긍정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역설적 관점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주체철학의 지양을 관념론의 지양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 유형은 지금까지의 맑스 해석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으로 평가 받아온 흐름인데, 이 흐름에는 첫째, 엔겔스-레닌-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통 맑스주의와 둘째, 루카치, 사르트르류의 맑스주의 등이 속한다.

엔겔스-레닌-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통 맑스주의는 맑스의 철학 혁명을 '존재와 사유의 선차성 문제'라는 구도에서 파악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맑스는 '관념론적 변증법'을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이행시켰으며, 이러한 이행의 요체는 사유의 선차성에서 물질의 선차성으로의 이행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맑스는 사유의 영역에서 진행된 헤겔변증법을 물질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루카치나 사르트르(특히 루카치)는 맑스의 '노동 개념'이 헤겔의 변증법을 해체시킨 것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맑스는 헤겔의 의식활동으로서의 '정신의 노동' 개념을 '대상적 활동으로서의 인간 노동 개념'으로 이행시킴으로써 헤겔의 의식철학을 분해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상적 활동으로서의 인간 노동을 헤겔의 변증법으로 설명함으로써 결국 정통 맑스주의와 마찬가지로 맑스의 철학 혁명을 정신의 공간에서 물질의 공간으로의 중심이동으로 파악할 뿐, 헤겔의 변증법적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는 루카치가 헤겔의 절대정신의 자리에 주체철학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을 위치지음으로써 헤겔식의 거대주체를 보존시켰으며, 거대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헤겔식의 자기 확인의 논리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담지한 계급이라는 역사철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결국 (나)유형의 맑스 해석은 공통적으로 존재와 사유, 물질과 정신의 주체철학적 문제들에서 각각 사유에서 존재로, 정신에서 물질로의 이행을 맑스의 철학

혁명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헤겔의 변증법적 구조 자체를 물질과 존재의 영역에서 재생산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다)유형의 맑스 해석은 반주체철학적 입장에서 맑스가 주체철학의 논리 구조를 해체시켰다고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해석 유형은 앞뒤에서 대표한다. 주시하다시피 앞뒤에는 반인간주의, 반역사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주체철학적 입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는 1845년의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와 '독일이데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맑스가 주체철학에서 벗어났다고 파악한다.<sup>6)</sup>

이러한 앞뒤세의 맑스 해석은 맑스주의 이론 지평에 있어서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는 이론적 통찰이었다. 그러나 앞뒤세의 맑스 이해는 두가지 측면에서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앞뒤세는 맑스의 이론 구조 내부에서 맑스의 주체철학 해체 작업을 설명하기보다는 바실라르, 정신분석학, 스피노자 등의 비맑스주의적인 통찰을 우회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맑스에 외적인 것들을 맑스 내부에 억지로 끼어넣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발생한다.<sup>7)</sup> 둘째, 비록 앞뒤세는 "최종심판"의 고독한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음지라도 그는 "경제적인 것에 의한 최종심판에서의 결정"이라는 개념을 제도입함으로써 주체철학의 잔재를 내보이고 있다.<sup>8)</sup>

(라)유형은 반주체철학적 입장에서 서서 맑스의 사유를 주체철학을 해체시키지 못했음만 아니라, 전형적인 주체철학적 지반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해석유형이다. 이들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코와 하버마스의 맑스 평가에 한정시키기로 한다.

후코는 "서구사회의 심층단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 실질적인 단층을 도입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는 한시대 동안 ... 당시의 인식론적 배치 내부에서 완벽하고 평등하고 인락하며 총중형 형상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 인식론적 배치를 뒤흔들 어떤 힘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배치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마치 ... 물속의 고기와 같이 19세기의 사고 내에서 존속한다"라고 말한다.

한편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와 헤겔의 유사점은 놀라울 정도이다. ... 마르크스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주체철학의 근본개념적 속박에서 파한 것이다. ... 헤겔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계몽의 변증법의 추진력에 의존한다. ... 마르크스는 근대철학의 모델 안에서 단지 중점을 옮기지만 하면 되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후코와 하버마스의 맑스 해석은 공통적으로 맑스 사유 내부의 일면만을 과장하고 있다. 그들의 맑스 해석의 오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에 그것의 체계적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것의 요체를 간단히

# 제17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 12면에서 계속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푸코는 맑스의 기획이 목표하는 바가 노동의 인간화를 해체시키는 것이었다는 점과 고전정치경제학을 맑스가 해체시키는 공극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sup>30)</sup>, 허버마스는 맑스의 사회적 노동개념에 내포된 사회적 연관의 역할을 간과하여 그것을 도구적 행위로 환원시키고 있다<sup>31)</sup>

## 나)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의 주체철학적 문제들

### (1) ‘경제학-철학 수고’에서의 맑스의 소외 분석

이 글의 서두에서 필자는 맑스의 ‘포이에르바허에 관한 테제’는 근대주체철학의 기반을 해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맑스의 이론작업은 동시에 1845년 이전 맑스 자신의 사유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주지하시피 청년기 맑스는 여전히 주체철학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학-철학 수고’에 나타나고 있는 주체철학의 문제들은 ‘소외’ 개념과 ‘유적존재’, ‘노동’ 등의 개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맑스가 이 저작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소외’와 ‘유적존재’, ‘노동’ 개념이 정확히 헤겔의 주체철학적 논리 구조를 따라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외’ 개념을 중심으로 ‘유적존재’와 ‘노동’ 개념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헤겔 변증법에** 있어서 ‘소외’는 절대정신의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완결 과정의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개념이다. 우선 소외 또는 외현화 모체가 되는 어떤 것이 자신의 일부를 대상세계에 투사, 또는 각인시킨다는 의미이다. 한편 소외는 반드시 ‘전유’라는 개념을 함축으로 가지는데, 점유란 소외된 대상이 본래적 모체로 회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나시피 헤겔의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은 절대정신의 자기인식 과정이다. 그런데 이때 절대정신은 자기 내부에서 자기인식을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자신의 영상으로 파악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듯이, 절대정신은 자기인식을 위해 자신을 외부에 대상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절대정신(정립)이 정신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외부에 자신이 각인된 대상을 산출(반정립)하는 과정을 ‘소외’ 또는 ‘외화’라 일컫는다. 그리고 이렇듯 대상화된 절대정신은 다시 절대정신 자신에게로 귀환하는 ‘전유’과정을 거침으로써 대상화된 자기자신을 인식하게 된다(종합). 이때 절대정신은 자신을 한꺼번에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유한적으로만 자신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절대정신은 언제나 부분적인 자기 자신만을 고찰할 수 있다. 때문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절대정신은 유한정신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듯 절대정신은 언제나 부분적인 자기 자신만을 인식하기에 ‘본래적 자기 자신’과 ‘인식된 자기 자신’ 사이에는 항상 양자의 불일치와 모순 상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소외와 전유의 반복 운동이 추동되고 소외와 전유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 가서 절대정신은 완벽한 자기인식을 완료하여 절대정신 자신을 완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과정의 논리구조를 염두 해두면서 맑스의 소외 논의를 고려해보자. 맑스는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 소외의 유형을 지적한다.<sup>32)</sup> 네 가지 소외란 인간의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인간의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인간의 유적존재로부터의 소외 또는 자기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인간의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타인과의 관계(즉 인간 관계)로부터의 소외’를 일컫는다. 이 네 가지 소외의 유형은 단순히 산발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각각 유기적인 논리적 연관을 통해 도출된다.

**첫째, 인간의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생산물은 노동자의 노동의 대상화, 곧 대상화된 노동자의 노동이다.<sup>33)</sup> 따라서 노동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생활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 즉 그것은 노동자에게 전유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가의 가치 증식을 위해, 자본가에게 전유되기 위해 생산되며, 노동자는 오히려 노동대상의 노예가 된다. 즉 노동자의 (소외된)대상화된 노동은 전유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된 체로 존재한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노동자의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공핍을 생산하며, 노동은 궁전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지옥을 생산하<sup>34)</sup>’는 결과가 발생한다.

**둘째, 인간의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 그렇다면 위와 같이 노동생산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맑스는 이것은 노동자가 ‘생산활동 자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sup>35)</sup>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기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sup>36)</sup>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 곧 강제노동임<sup>37)</sup>’ 수밖에 없다. 이렇듯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기자신을 긍정하는 것 대신에 부정용, 행복 대신에 불행용, 자유로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신체를 채찍질하고 정신을 황폐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38)</sup>

**셋째, 인간의 유적존재로부터의 소외 또는 자기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인간이 자신의 노동생산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정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를 수 없으며, 인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활동은 이제 인간과는 무관해지고 인간 자신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유적 존재로서 속

자기 자신의 본질로부터 소외된다.

**넷째, 인간의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타인과의 관계로부터의 소외.** 인간 개개인들이 유적존재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개별 인간들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인간들의 공통본모이자 공통적인 본질을 이루기 때문에 개별 인간들을 유적존재로 묶어줄 수 있었던 인간의 본질(노동)은 타인과의 공통본모의 역할, 개별 인간들을 유적 존재로 묶어주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인간들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며, 타인을 단지 자신과 맞서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타자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자신은 소외되고 인간관계는 파괴된다.<sup>39)</sup>

알다시피 1843년의 ‘헤겔법철학 비판’에서부터 맑스에게 있어서 헤겔 철학 극복 문제는 청년기 맑스를 특징짓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본고의 관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헤겔법철학 비판’에서 주목해 볼만한 부분은 맑스가 ‘철학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철학을(특히 헤겔 철학) 지양할 수 없으며 … (헤겔) 철학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철학을 실현할 수 없다<sup>40)</sup>’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다소 서둘러 말하자면 이후 맑스 연구의 방향은 ‘헤겔 철학을 비롯한 철학 일반의 지양과 실현’을 ‘실현’과 ‘과학’을 매개로 해서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헤겔 극복의 노력이 1844년의 ‘경제학-철학 수고’에서는 다음의 몇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는 맑스의 사유의 발달사에 있어서 ‘경제학-철학 수고’가 차지하는 중요한 의의가 된다. 첫째, 헤겔이 간과했던 경제학의 영역이 맑스의 중요한 사유 영역으로 고려됨으로써 이후 본격화되는 철학에서 과학으로의 중심이동과 그것을 통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예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헤겔에 있어서 정신의 외현화는 개념이 유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대상화라는 개념으로 대체됨으로써 관념론에서 유클론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sup>41)</sup>

그러나 ‘경제학-철학 수고’의 위와 같은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전개되는 맑스의 소외 분석은 철저히 헤겔의 논리를 따라 수행된다. 본고의 맥락과 관련하여 맑스가 헤겔의 변증법 논리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헤겔의 변증법이 주체철학의 논리구조의 정점을 이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헤겔의 주체철학적 논리구조를 따른 결과 맑스의 소외분석에서 주체철학의 주요한 특징인 **주체의 이분화**라는 특징과 **역사철학적 사유**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2) 주체이분화와 역사철학적 사유<sup>42)</sup>

맑스의 소외 분석은 전형적으로 주체의 이분화와 역사철학적 사유라는 근대 주체철학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맑스에게 있어서 주체의 이분화란 ‘**소외되지 않은 인간**’ 대 ‘**소외된 인간**’ 또는 ‘**유적존재**’ 대 ‘**경험적 인간, 노동자**’의 틀로, 역사철학은 절대정신의 자기실현과정 대신에 **유적존재의 자기실현과정**이 들어서는 틀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근대철학에 있어서 주체의 이분화는 인식론 질서의 변화, 특히 인식주체와 대상이 위치하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반복되어 나타난다. **데카르트**의 인식론에 있어서 인식주체와 대상은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때문에 인식주체가 ‘인식한 대상’은 곧 ‘대상’ 자체였다. 그리고 이때 양자를 매개하는 수단은 ‘이성’이 맡게 된다. 그러나 칸트 시대에 오면 데카르트 인식론이 근거하고 있는 인식주체와 대상의 동질적 공간이 파괴된다. 때문에 인식주체가 ‘인식한 대상’은 ‘대상’ 자체와 동일할 수 없는 것으로 사고된다.

이 때문에 이제 인식주체와 대상의 세계는 남을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 간극을 매개하려는 노력은 대상의 ‘형식’과 ‘물자체’로의 분리, 인식주체의 ‘경험적 주체’와 ‘선형적 주체’로의 분리, 매개수단으로서 인식의 ‘감성’과 ‘오성-이성’으로의 분리와 각 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리 매개의 노력으로 나타난다. 특히 칸트에게 중요시되는 부분은 선형적 주체와 경험적 주체의 분리인데 ‘인간’은 ‘경험적 주체’로서 경험과 인식을 통해 사물의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지평을 조작하고 인식과 경험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선형적 주체’로서의 위치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선형적 주체의 범주는 양상을 달리하면서 반복되는데, 특히 **헤겔**에 와서 선형적 주체는 절대정신의 이름으로 재생산된다.<sup>43)</sup> 즉 헤겔의 절대정신은 주체와 객체, 보편과 특수, 필연과 우연, 무한과 유한의 분리를 절대정신이라는 일자를 통해 매개시키고 이를 절대정신 자신의 내부로 종합, 포섭시킨다. 이 지점에서 주체의 이분화는 특징으로 하는 주체철학의 논리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이 분명해지는데, 이는 분리의 결과를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매개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에 대한 **철학적 ‘폭력’**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헤겔에 있어서 이는 분명해 지는데, 특수외 보편으로의 환원, 사물의 세계의 정신세계로의 환원, 우연의 필연으로의 환원, 유한의 무한으로의 환원이 그것이다.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맑스** 역시 주체의 이분화와 그것의 어느 한쪽으로의 폭력적 종합이라는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유적존재와 경험적 인간 혹은 노동자라는 이분법과 그것의 유적존재로의 종합이라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맑스가 ‘노동’을 유적존재의 실현의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유적존재를 헤겔의 절대정신의 층위에 배치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맑스의 언급에서 분명해진다.

인간은 다른 어떤 대상 세계의 가용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자신을 유적

존재로서 현실적으로 실증한다. 이러한 생각이 곧 활동적인 유적생활이다. 자연은 이러한 생산을 통해서 인간의 작품과 인간의 현실로 동정한다. 따라서 노동의 대상은 인간의 유적 생활의 대상화이다. 인간은 지성을 통해 자기를 이종화하여 자기자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직관할 뿐 아니라, 활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자기를 이종화하여 자기 자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직관하기도 한다.<sup>44)</sup>

여기서 맑스는 세계의 가용, 생산을 유적생활로 환원하고 있으며, 이를 유적존재의 자기직관(인식)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은 맑스가 ‘사회적 관계(연관)’를 유적존재의 ‘자기관계(연관)’ 내부로 환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점 에 있어서 맑스는 헤겔의 논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알다시피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원초적 통일성으로서의 절대정신이 자기분열을 통해 주인과 노예로 분리되고, 이들의 관계가 가족, 국가, 시민사회 등의 제 사회적 관계(연관)의 요소들로 전개되며 이 과정은 종극적으로 처음의 원초적 통일성, 인륜적 총체성으로서의 절대정신으로 마무리되는 궁극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때 헤겔은 ‘**사회적 관계(연관)**’를 ‘**절대정신의 자기관계**’ 안으로 환원시켰는데, 맑스 역시 ‘**사회적 관계(연관)**’를 ‘**유적존재의 자기관계**’ 안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다.<sup>45)</sup> 만약 맑스가 이러한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맑스에게 있어서 자유의 왕국, 코무니즘사회는 유적존재의 완성이 완료된 사회일 것이며, 맑스가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라고 말하는 대신 ‘유적존재를 완성해가는 역사’나 또는 ‘유적존재의 자기실현의 역사’라고 말할것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경제학-철학 수고’에서의 맑스의 소외 분석과 유적존재, 노동 개념은 전형적인 **역사철학적 사유**를 반복하고 있다. 근대주체철학의 주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역사철학적 사유를 설정하는 것은 그것이 근대철학에 의해 수행된 근대적 시간구조의 변화와 그 긴장을 역사철학적 사유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시피 근대철학의 주요한 효과는 신과 신화에 대한 회의이다. 이로써 중세의 종합론적 시간구조가 파괴된다. 중세의 시간구조를 구조화하고 있던 신학적 종합론에서 미래는 신에 의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에 결박되고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종합론적 시간질서가 파괴되면서 미래는 과거와 분리되며 예측불가능성의 공간으로 남겨져 복수화될 가능성으로 존재하게 된다.<sup>46)</sup> 이를 위해 역사철학적 근거, 현재와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려진 미래를 **집합적 단수로서의 역사 개념(메타역사 : ‘His-story’)**를 통해 종합해낸다. 이로써 ‘작은 이야기들’(his-story)은 집합적 단수로서의 메타적 역사개념에 기초하여 위치를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역사 외부에서 이러한 집합적 단수로서의 메타적 역사를 추동시키는 **거대주체를** 각각의 근대철학자들은 생각해내는데 이는 칸트에서는 선형적 주체, 헤겔에서는 절대정신으로 설명된다. 이로써 ‘작은 이야기들’ 과거 ‘현재’ 미래’는 선형적 주체나 절대정신이라는 거대주체를 통해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맑스에게 있어서 이는 헤겔의 절대정신 대신 유적존재를 위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인용은 맑스의 사유가 역사철학적 사유물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회주의적 인간에게 있어서 이른바 세계사 전체는 인간의 노동에 의한 인간의 산출 곧 인간을 위한 자연의 생산에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인간은 자기자신에 의한 자신의 탄생 곧 자신의 생산과정을 직관적으로, 아무도 이에 개입할 수 없게끔 증명한다.<sup>47)</sup>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맑스는 헤겔의 절대정신 대신에 **유적존재**를, 절대정신과 세계 사이의 관계 대신에 **유적존재와 자연의 관계**를, 정신의 자기산출과정 대신에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기 산출과정**을, 절대자의 자기 소외의 지양인 자기복귀 대신에 **인간 소외의 지양인 유적존재로의 인간의 자기복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헤겔의 각본에 주인공만 바꾼 것에 불과할 뿐이다.

## 2.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의 주체철학적 사유물의 해체

### 가) 심비한 외외에 가려졌던 합리적 핵심 즉 ‘역사적 선형성’으로서의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 복구

본고의 관점에서 1845년의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와 ‘독일이데올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존의 저작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 ‘진리’ ‘목적’ 등의 개념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 이것은 단지 ‘다르게 설명한다’라는 특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기 사유에 대한 자기비판과 새로운 세계관의 창조<sup>48)</sup>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주체철학이 서있는 기반을 해체시키는 효과와 생산한다. 필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한 ‘합리적 핵심’ 곧 ‘사회적 관계(연관)’의 의미가 복구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제까지의 모든 유클론(포이에르바허의 뜻을 포함하여)의 주된 결합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단지 객체 또는 관조의 형식 하에서만 파악되고, 감성적인 인간활동, 즉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활동적 측면**은 유클론과 대립되는 관념론 - 이것은 물론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 - 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되었다. 포이에르바허는 ‘사유객체’와는 현실적으로 구별되는 - 감성적 객체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sup>49)</sup>

주지하시피 관념론은 대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활동에 의해 구성(칸트)되거나 산출(헤겔)된다고 봤다. 이것이 대상을 단순히 주어져 있는 객체로 파악하고 이를 관조, 직관하려고 했던 유클론에 대해 가지는 관념론의 장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념론은 대상을 주체의 의식활동에 의해 구성되거나 산출되는 수동적

객체로만 볼 뿐 대상세계의 현실적인 활동 자체는 무시하거나 알지 못했다. 때문에 관념론은 관념이나 의식이 대상세계의 현실적 활동에 의해 영향받는 대상적 활동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맑스는 (테제 : N 1)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정신, 관념의 활동이 단지 ‘활동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과, **객체는 단지 ‘대상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활동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테제 : N 1)을 통해 맑스가 유클론과 관념론 전체를 비판하는 근거이며, 맑스가 근대철학의 전형적인 주체와 대상 개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맑스에게 있어서 근대 인식론의 전형적인 형태인 진리대응론 곧 ‘사유가 대상적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결코 이론적인 문제인가’(테제 : N 2)될 수 없다.

한편으로 이는 맑스가 유클론과 관념론에서 주체와 객체 중 어느 한쪽으로 합당되어 양분되어 있던 ‘**대상성**’과 ‘**활동성**’을 종합하려고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물론 통합의 중심은 유클론이다. 때문에 우리는 맑스의 이러한 시도를 유클론적 종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유클론적 종합은 헤겔의 관념론적 종합의 ‘구조’와는 전혀 상이한 것인데, 이때 상이하다는 말은 단순히 관념론과 유클론의 차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헤겔 변증법의 ‘전제’와 ‘구조’를 맑스가 해체시켰다는 의미**이다. 헤겔은 자신의 관념론적 종합을 **절대정신의 자기관계에 제 사회적 관계(연관)와 대상-자연 세계를 환원시킴으로써** 성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원은 주-객 통일로서의 절대정신의 원초적 통일성의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논리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맑스가 주체와 객체 모두 똑같이 대상성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를 똑같은 위상에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맑스가 주체와 객체 중 어느 한쪽으로 다른 한쪽을 환원시킨다면 그는 양자 모두가 똑같이 대상성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를 똑같은 위상에 위치시킬 수 없다는 것은 양자를 충분히 독립된(완일불가능한) 범주로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맑스가 주체와 객체, 존재와 사유의 원초적 통일성을 전제하는 헤겔과 달리 주체와 객체, 존재와 사유 간의 념을 수 없는 분리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든 맑스가 주체와 객체, 사유와 대상의 **비동일성**이라는 칸트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맑스는 여기서 헤겔의 중요한 통찰인 역사에 대한 모티브를 수용한다. 이렇듯 맑스가 칸트와 헤겔의 통찰들을 적절히 접맥시킨 결과는 무엇일까? 이는 맑스가 칸트와 헤겔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그 접맥의 효과는 차라리 **칸트와 헤겔이 뒹고 서있던 근대주체철학의 기반을 전복**시키는 효과를 산출한다. 왜냐하면 맑스는 헤겔의 정제인 주체와 객체, 존재와 사유의 원초적 통일성이라는 전제를 해체한 결과 **절대정신의 내부로 환원**되었던 ‘**사회적 관계(연관)**’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복구**시킬 수 있게 되며, 칸트의 주체와 객체, 사유와 존재의 비동일성이라는 모티브를 수용한 결과 **이 사회적 관계(연관)를 주체와 객체라는 대상연관의 어느 한쪽으로 다시 환원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제 맑스는 **오히려 주체와 객체의 자기동일성을 사회적 관계(연관)를 통해 규정하게 된다.** 예컨대 맑스가 기존에 인간(주체)의 자기동일성을 유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통해, 즉 인간의 자기관계를 통해 설명하던 것에서, ‘포이에르바허에 관한 테제’에서 ‘**인간적 본질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이다**’(테제 : N 3. 강조는 인용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 즉 사회적 관계(연관)의 의미가 체계적으로 복구된 효과의 대표적인 예이다. 같은 곳에서 맑스는 포이에르바허는 “종교적 심성”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분석한 추상적 개인이 사실은 일정한 사회 형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테제 : N. 7)라고 포이에르바허를 비판한다. 이 역시 맑스가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를 복구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관점은 맑스에게 있어서 계속 유지된다. 예컨대 다음은 이러한 관점이 후기 저작인 ‘자본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만약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직접적 생산자, 즉 노동자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것은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착취수단이지, 지배 수단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자본으로 된다.<sup>50)</sup>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관계 하에서만 그는 노예로 된다. 만방적 기제는 변모로 실을 묶는 기계다. 일정한 관계 하에서만 그것은 자본으로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빼어낸다면 그것은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그 자체로서는 화폐가 아니라, 또 사람이 사탕가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이것은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그것은 역사적 생산관계이다.<sup>51)</sup>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사회구성에 관련되는 특유의 사회적 생산관계이며 이 생산관계가 물건에 표현되어 이 물건에게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 생산수단 그 자체가 자본이 아닌 것은 금 또는 은 자체가 화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sup>52)</sup>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의한 인간의 충진이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들며,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진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sup>53)</sup>

위의 인용에서 맑스는 흑인, 자본, 기계가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각각의 내부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과의 연관에서, 즉 자신의 자기관계의 연관에서 도출하지 않는다. 맑스는 차라리 이러한 자기동일성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연관), 주요하게는 생산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고 달라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연관)가 역사적으로 형성/소멸되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역사적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맑스의 합리적 핵심, 즉 사회적 관계(연관)는 여타의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푸코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역사적 선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맑스가 복구시킨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를 간과하고 맑스의 철학 역명을 ‘**대상관계**’의 틀 내부로 환원하여 이해할 경우 맑스의 철학 혁명의 요체, ‘합리적 핵심’의 의미를 놓치고 근대주체철학의 기반으로 맑스를 되돌려놓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맑스주의 내부에 이러한 경향이 ‘**아주 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맑스주의 내부에서도 대상관계의 각 계기들, 즉 주체-객체 중 어느 한 계기에 나머지계기와 사회적 관계의 체계적 의미를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주체를 특권화시킬 경우 투기치류의 보편과 특수, 주체와 객체의 통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실현이라는 인간주의적 흐름과 인간의 자발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낙관이 발생하며, 객체를 특권화시킬 경우 정통 맑스주의의 특징인 생산력주의와 경제환원론, 토대 결정론, 의식의 의 부도입 등의 논리가 도출된다.

### 나)유적 존재 개념의 폐기와 그 효과 : 주체의 이분화와 역사철학적 사유 기반의 해체

한편 아래의 인용문은 맑스가 유적존재 개념을 폐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물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맑스가 주체철학적 논리구조 속에서 은폐되거나 억압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를 복구함으로써 성취한 결과이다.

포이에르바허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 안에서 해소시킨다. 그러나 인간적 본질은 어떤 개개인에 내재하는 추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이다. 이렇듯 현실적 본질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서지 못한 포이에르바허는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 1. 역사의 진정을 도외시키고 종교적 신앙을 그 자체로서 고정시키며, 따라서 하나의 추상적 인 - 고립된 - 인간 개체를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2. 따라서 그 본질은 단지 ‘유’로만된, 다수의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결합시켜주는, 내적인 그 침묵을 지키는 보편성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테제 : N. 6. 강조는 원저자)

위 인용문에서 맑스는 인간적 본질도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말하고 있고,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서 이탈하여 추상적으로 사고되는 고립된 인간 즉 유적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포이에르바허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포이에르바허에 관한 테제’ 이전 유적존재 개념을 유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의 관심과 맥락에서 맑스가 유적존재 개념을 폐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근대주체철학의 두 축인 **주체의 이분화와 역사철학적 사유물이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주체의 이분화의 폐기**에 있어 아주 분명히 나타낸다. 왜냐하면 맑스가 유적존재라는 개념을 폐기한 결과 인간은 항상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과 모든 세대를 소여된 것**’<sup>54)</sup>으로 파악하는 생산력, 자본, 그리고 사회적 교통형태의 이러한 총합은 철학자들이나 ‘실체’나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인식시키고 공격하는 것의 실재적인 근거<sup>55)</sup>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주체의 이분화의 해체 효과는 노동개념의 이분화, 즉 ‘유적존재의 본질로서의 소외되지 않은 노동’과 ‘소외된 노동’이라는 **노동 개념의 이분법 해체**로 이어진다. 맑스는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노동’을 유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로 보다 유적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라고 말하며 있다. 그러나 유적존재라는 개념 공간이 사라짐으로써 인간을 인간일 수 있게 만드는 인간 본질로서의 노동 개념이 사고된 공간도 동시에 사라진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맑스는 ‘경쟁자의 혁명은 지금까지의 활동 양식에 맞서서 **노동을 제거**하고 계급자멸과 아울러 모든 계급자멸을 폐지한다<sup>56)</sup>’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맑스의 ‘노동의 제거’라는 말은 유적존재의 본질로서의 노동개념이 유지되는 한 결코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

한편 유적존재 개념의 폐기는 **역사철학적 사유가 들어설 중요한 공간을 제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앞서 설명했듯이 ‘경제학-철학 수고’에서의 맑스의 유적존재 개념은 역사철학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역사철학적 사유는 집합적 단수로의 메타역사를 추동시키는 거대주체를 역사와 사회 외부에서 찾았는데, 이 역사추동의 거대주체가 각각 선형적 주체, 절대정신, 유적존재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달리하면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거대주체는 역사에 의해 결정되거나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사를 결정하거나 방향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주체는 역사적 맥락에서 독립되거나 상위에 위치해야만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적 존재가 사회적 맥락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관계를 통해 설명되는 것이 이상 유적존재는 사회적 맥락에서 독립된 존재였다. ‘독일이데올로기’에서 맑스는 초기의 맑스자신과 기존의 역사철학적 사유를 통털어서 ‘지금까지의 역사관에서 … 역사는 언제나 역사 밖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쓰여져야 했다’<sup>57)</sup>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 밖의 기준’이 맑스에게 있어서는 유적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7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13면에서 계속

개인들의 전면적인 의존, 곧 개인들의 세계사적 협동의 이 자연적 형태는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인간 상호간의 작용에서 생겨나서,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완전히 낯선 힘으로서 그들을 위압하고 지배해 왔던 힘에 대한 통제가 의식적 지배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도 역시 ‘유’의 자기산출’과 같은 사변·관념적인, 곧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연관된 개인들의 연속적인 연관은 자기 자신을 산출해내는 신비를 행하는 유일할 개인으로서 소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명한 것은 개인들은 유체적으으나 정신적으로나 의심할 바 없이 서로를 만들어 나가지만, 성부르느의 년센스나 유일자나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의미에서처럼 스스로 자신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이다. … 이러한 역사관(맑스 자신의 역사관은 … 시민사회를 전체 역사의 기초로서 파악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 역사관은 관념론적 역사관처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의 범주를 찾아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 그 결론이란 의식의 모든 형태 및 사물은 정신적 비판, 그리고 ‘자기의식’으로의 해소나 ‘유령’, ‘망상’ 등으로의 전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러한 관념론적 허구들이 도출되는 현실적 사회관계의 실천적 전복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역사는 정신에 대한 정신’으로서의 자기의식’으로 해소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맑스는 자신의 유토플론적 역사관이 헤겔식의 ‘유’의 자기산출’과 같은 사변·관념적인, 곧 환상적인 방식과 자기자신을 산출해내는 신비를 행하는 **유일한 개인**으로서 표시되어서는 안됨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맑스 자신의 유토플론적 역사관은 관념론적 역사관처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의 범주,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대주체로서의 유일자**를 상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테제 : N. 4)는 우리의 맥락에서 위와 같은 역사철학적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포이어바흐는 종교적 자기소위라는 사실, 즉 세계가 종교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로 이중화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종교적 세계를 그 세속적 기초 안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세속적 기초가 그 자신으로부터 이월하여 구름 속에서 하나의 자립적 영역으로 고착된다는 사실은 이 세속적 기초의 자기분열 및 자기모순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속적 기초 그 자체는 우선 그 모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이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실천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지상가족이 신상가족의 비밀임이 폭로된 이상은 이제 지상가족 자체가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전복되어야 한다.(테제 : N. 4. 강조는 인용자)

—————

여기서 ‘구름 속에서 하나의 자립적 영역으로 고착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우리의 맥락에서 이는 역사철적 사유 또는 역사의 거대주체, 또는 주체의 이중화로 인해 초월적 위치를 차지하는 주체의 한 층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포이어바흐는 기독교가 세속적 기초로부터 분열되는 것 자체를 모순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맑스에 볼 때 이러한 분열의 원인은 오히려 세속적 기초 자체가 분열되어 있고 모순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맑스에게 문제의 원인이 ‘신성가족’이 아니라 ‘지상가족’에 있는 이상 ‘지상가족’ 즉 세속적 기초는 변혁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변혁도 주체철학처럼 초월적 범주, 즉 ‘신성가족’의 힘을 빌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테제 : N. 8)에서의 “이론을 신비주의로 유도하는 모든 신비는 인간적 실천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개념적 파악 속에서 그 핵심을 찾아낸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맑스가 역사철학적 사유를 버림으로써 맑스는 나아가 공산주의를 **목적론적 과정**의 종결적 단계나 과거의 **축적**에 의해 도출되는 단계로 설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공산주의는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 혹은 현실이 따라야 할 하나의 **이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태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운동을 공산주의라고 일컫는다”<sup>4)</sup>라는 유명한 구절은 공산주의가 **목적론적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한편 맑스는 자유의 왕국, 즉 공산주의를 필연의 왕국, 노동의 세계, 즉 사회주의사회 ‘**허리’에 위치한다**라고 말한다.<sup>6)</sup> 이는 맑스가 공산주의를 해결처럼 절대정신의 자기인식의 축적을 통해 도달하는 이론적 총체성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다) 근대적 진리 개념과 계몽주의 비판

이렇듯 맑스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근대철학의 신비적 외피 속에서 억압되었던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를 복구시킴으로써 주체철학의 중요한 두 기원인 주체의 이분화와 역사철학적 사유를 해체시킬 수 있었다. 한편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는 근대주체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진리 개념**을 새롭게 변형시키고 근대주체철학의 한 중요한 산물인 **계몽주의적 사유**를 해체한다.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결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즉 그의 사유의 현실성과 위력 및 현재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유의 현실성 혹은 비현실성에 대한 이 사유가 실천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면 논쟁은 순전히 슐러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테제 : N. 2)

주지하시피 근대인식론의 가장 큰 목표는 대상적 진리를 확증하는 문제였다. 즉 실제대상과 사유를 통해 인식된 대상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둘러싸고 근대철학은 공전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맑스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버린다. 즉 진리는 실천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맑스가 근대철학의 최고 목표였던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파악문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문제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즉 근대 인식론의 틀을 따를 때 실제대상과 인식된 대상 사이에는 결코 닮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맑스는 제대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던 근대철학은 진리를 확증하려는 강한 집착에서 어떠한 사실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정당화하는 슐러주의적<sup>7)</sup> 경향을 강하게 내보일 수 밖

에 없었다. 때문에 맑스는 실천개념을 매개로 해서 **진리 개념**을 전환시킨다. 즉 맑스에게 **진리란 실천적 맥락에 따라 상의하게 정의되는 효과**이며, 그것은 실천을 통해 현실성을 증명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맑스의 어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앞에 있는 연필은 연필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실천적 맥락에 따라 무기가 된다”<sup>8)</sup>라고. 우리가 연필을 무기로 써야할 실천적 상황에서 연필은 연필이다라는 진리는 아무런 현실성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연필은 무기다라는 사실이 더욱 현실성, 위력, 현재성 있는 설명이 아닐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른바 정몽맑스주의라는 흐름은 위와 같은 맑스의 철학 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냈느냐라는 점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이들은 오히려 맑스가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맑스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레닌의 표현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현상과 물자체 사이에는 어떠한 원칙적 차이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 유일한 차이는 알려진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뿐이다.<sup>9)</sup>

대상, 사물, 물체가 우리의 외부에 그리고 우리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우리의 감각은 외적 세계의 모사라는 점이다.<sup>10)</sup>

대상적 진리란 사유에 의해 환되게 변형된 대상(물자체)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sup>11)</sup>

우리의 감각은 외적 세계의 모사로서 간주하는 것, 객관적 진리를 승인하는 것, 유토플론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한 것 - 이것은 모두 동일한 것이다.<sup>12)</sup>

레닌은 네 번째 인용문에서 객관적 진리를 승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와 세 번째 인용문에서는 대상적 진리, 즉 인식된 대상이란 참되게 반영된 물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물자체와 현상의 구별은 무의미하고 물자체는 우리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모사된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명제에 의해 설명된다. 이러한 레닌의 생각은 앞서 살펴본 근대주체철학의 특징 즉 맑스가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레닌이 회귀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련교과서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두가지인데 첫째가 물질이 선차적이나 아니면 정신이 선차적이나나는 문제이고, 둘째가 세계는 인식이 능한가 아니면 인식불가능하가라는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련교과서는 각각의 전자의 편에 선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디까지나 근대주체철학의 지반에서 관념론을 유토플론의 입장에서 비판할 때나 가능한 것으로서 근대주체철학의 지반에 확고히 딛고 서 있다는 점에서 레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즉 이 역시 맑스가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후퇴하고 있는 관점인 것이다.

—————

환경과 교육의 변화에 관한 유토플론적인 학설은 환경이 인간에 의해 변화되고 교육자 자신이 교육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학설은 사회를 두 부분 - 그 중 한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우월하게 된다 - 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환경의 변혁과 인간 활동 혹은 자기변혁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테제 : N. 3)

한편 근대주체철학에서의 주체의 이분화는 단지 개별 인간 층위에서의 이분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층위에서 인간집단을 이분화하는 사회적 효과도 산출했다. 이때 주체의 이분화에서 한쪽의 주체가 다른 쪽의 주체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듯, 인간 집단의 이분화는 필연적으로 우월한 집단을 열등한 집단으로의 이분화를 가져온다. 이는 무지몽매한 인간을 계몽된 인간들이 지도하고 계몽시켜야 한다는 인텔리틱 계몽주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인텔리틱 계몽주의는 근대주체철학에서의 주체의 이분화의 또 다른 사회·역사적 표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근대주체철학에서 이분화되었던 주체 중 어느 한쪽은 일반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규정하고 검증하고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뿐 경험적·구체적 주체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 또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을 망각했듯 인텔리틱 계몽주의는 인텔리타 자체가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화를 통해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과 인간의 변혁은 양자의 동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며, 양자의 일치는 혁명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의 논의에서와 같이 맑스는 근대주체철학의 지반을 해체시키고 있다. 따라서 탈근대론자들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맑스가 도매금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맑스의 철학 혁명의 요체를 잘못 파악하거나 일면만을 과장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맑스주의 내부의 제 흐름들 역시 맑스의 주체철학 해결의 효과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체-객체 관계라는 대상관계(연관)의 내부구조로 사회적 관계(연관)를 환원시키는 강한 경향이 존재한다. 이른바 정몽맑스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생산력주의, 경제결정론, 토대환원론은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를 대상관계의 내부 구조로 환원시킬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귀결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맑스가 근대주체철학의 지반을 어떻게 해체시키기를 살펴왔다. 그리고 맑스의 근대주체철학 지반의 해체는 근대주체철학의 논리에 의해 울타리쳐지고 억압되었던, 사회적 관계(연관)의 의미를 해방시키는 작업을 통해 가능

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렇듯 ‘천재적인 세계관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던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의 사유방식은 그후 더 이상 심도있게 정교화되지 못한다. 때문에 후기 맑스로 갈수록 맑스는 자신의 사유를 스스로 근대주체철학의 지반으로 되돌려놓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즉자계급’, ‘대자계급’이라는 헤겔식의 ‘의식화’ 개념과 경제영역에서의 운동법칙으로 사회의 작동 메커니즘과 동일시하거나 환원시키는 강한 경향은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본고의 목적을 벗어난 주제이므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맑스가 시대적 한계로 인해 근대주체철학의 지반으로 자신의 사유를 회귀시키려는 강한 경향이 존재했던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는 맑스의 사유를 보다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그러한 작은 곧 ‘사회적 관계(연관)’의 체계적 의미를 개념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 이를 보다 구체화해본다면 주체철학은 근대의 인식론적 질서의 변동에서 기인한 주체의 이분화와 시간구조의 변동에 기인한 ‘역사철학’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가(-)2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2) 하지만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밀도 있는 논의는 생략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를 전개되면서 최소한 이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맑스에게는 주체철학 지양의 어떤 것일량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리라고 본다.

3) 맑스(K.Marx), ‘제2관 후기’, ‘자본론 1-상’, 김수형 역, 비봉출판사, 1997, p.19. (강조는 인용자)

4) 엥겔스(F.Engels), ‘루드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 양재혁 역, 둘째계, 1992

5) 콘스탄티노프(F.V.Konstantinov), ‘철학의 기초이론’, 두레, 1992, p.51.

6) 엥겔스의 해결 변증법의 방법과 체계의 문제는 엥겔스의 ‘루드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특히 (엥겔스(F.Engels), 1992, pp.20~23, 77~78)를 참조하라.

7) 엥겔스(F.Engels), 1992, p.78.

8) 같은 책, p.23.

9) 같은 책, p.25.

10) 엥겔스(F.Engels), ‘반두린론’, 김진식 역, 새길, 1988, p.20.

11) 팔리니코스는 엥겔스가 맑스를 잘못 이해한 결과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이라는 개념은 … 진정한 연구를 방해하고, 리센코주의와 같은 사이비 과학적 헛소리를 조장했다’고 맹공을 퍼붓는다. (팔리니코스(A.Collinos), ‘현대철학의 두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장남영 역, 갈무리, 1995, pp.102~3.)

12) 이는 한편으로는 엥겔스가 해결 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중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기 도하다. 이중의 오류란 첫째, 엥겔스가 해결의 변증법적 ‘방법’의 핵심을 잘못 파악했다는 점. 둘째, 엥겔스의 생각과 달리 해결 철학에 있어 ‘방법’과 ‘체계’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엥겔스의 생각대로 해결 변증법에서 변화와 운동은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나 해결의 변증법에서 이러한 변화와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모순의 지양 운동을 통해, 분리되었던 정신이 자기인식을 일ता하여 일원적 통일성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변화와 운동은 어디까지나 그 중지와 절대정신의 완성 상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해결 변증법은 그 기원과 종결에 있어서 존재와 사유, 주체와 객관, 보편과 특수이 일원적으로 통일된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해결 변증법의 ‘방법’은 그 ‘체계’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엥겔스의 생각과 달리 해결 변증법의 ‘방법’은 중지 없는 변화와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운동이 정지되고 절대적 불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표현하며, ‘방법’과 ‘체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팔리니코스는 “헤겔의 관념론을 거부하면서 그 변증법의 형식적 구조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변증법적 방법 자체가 절대이념과 동일한 개념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같은 책, p.102)고 말한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알튀세 역시 신비적 외피란 바로 변증법 자체로서 체계와 방법은 구분될 수 없다고 말한다. (알튀세(L.Althusser), 맑스를 위하여’, 이중영 역, 백의, 1997의 ‘모순과 증증증정’ 장을 참조할 것.)

13)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네가지 유형에 대한 논의는 박명도, ‘현대사회이론에서의 비만페타디언의 구조분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109-114의 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14) 포퍼(K.R.Popper), ‘열린 사회와 그 적들 2’, 이명현 역, 민음사, 2001, p.123.

15) 알튀세(L.Althusser), 맑스를 위하여’, 이중영 역, 백의, 1997,를 참조하라.

16) ‘강하게 라고 표현한 이유는 알튀세가 전적으로 맑스에 외부적인 방법론의 통찰을 통해서만 맑스의 주체철학 지향을 설명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알튀세가 맑스의 유력존재에 대한 비판을 맑스의 주체철학 지양의 주요한 지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맑스에 내부적인 설명방식이다. 그러나 맑스와 헤겔의 변증법 구조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나, 주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설명, 맑스 저작 독해방식등은 다분히 맑스 외부적인 설명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17) 같은 책, p.132(이 책에서는 최후심급 대신 최후총위라는 개념으로 변역하고 있음을 밝힌다.

18) 같은 책, 같은 곳.

19) 그러나 이때 확실히 해리할 것은 필자는 알튀세가 최후심급을 경제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알튀세가 말하는 최후심급은 결코 ‘경제’ 그 자체와 동일시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알튀세는 경제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급들간의 위계를 불변적으로 정해버리고 그 본질과 역할을 고정시키고 심급들 사이의 관계의 의미를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맑

스주의적 전통이 아니라 ‘경제주의’이다. 경제주의는 … 역할들과 행위자들을 영원히 일치시켜 버린다. 경제주의는 미리 그리고 영구히, 최후총위에서 - 결정적인 - 모순을 지배적인 모순의 역할에 일치시켜 버리고, … 그렇지만 경제에 의한 최후심급에서의 결정은 … 역할의 치환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다.”(같은 책, pp.255-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최후심급(역할)은 경제(행위자)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알튀세는 여전히 최후심급의 결정이 경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맑스주의자로서의 경제에 대한 일종의 집착, 성급함을 내보이고 있다.

20) 푸코(M.Foucault), ‘질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1994, p.309. 강조는 인용자.

21) 허버마스(J.Habermas),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역, 문예출판사, 1998, pp.87~88. 강조는 인용자

22) 푸코의 맑스 해석의 오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맑스주의적 입장에서의 체계적인 푸코 비판에 대해서는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 1997의 ‘제3장’을 참조하라.

23) 허버마스의 맑스 해석의 오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맑스주의적 입장에서의 체계적인 허버마스 비판에 대해서는 박명도, 1994의 ‘제2부’를 참조하라.

24) 맑스(K.Marx), ‘경제학·철학 수고’, 김태경 역, 이론과 실천, 1987, pp.54~76.

25) 같은 책, p.56.

26) 같은 책,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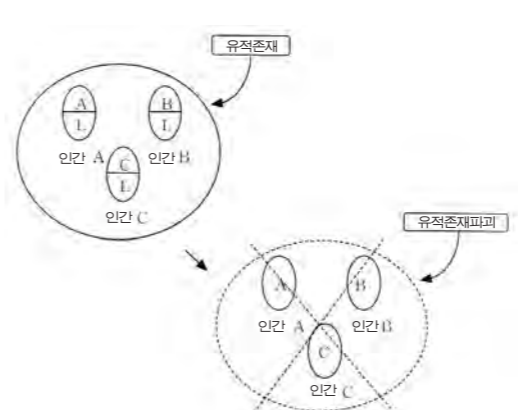
27) 같은 책, 같은 곳.

28) 같은 책, p.58.

29) 같은 책, 같은 곳.

30) 같은 책, pp.58~59.

31)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상술(象述)해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의 왕국은 공명과 부족한 필연에 의해 규정되는 노동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고유한 의미에서의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이 왕국(필연의 왕국)에서의 자유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에 있을 수 있다. 즉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들이 자 연과의 신진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그 신진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신진대사를 집단적인 통제하에 두는 것, 그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조건 하에서 그 신진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아직 필연의 왕국이다. 이 왕국을 넘어서지만 진정한 자유의 왕국-즉 인간의 힘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작된다.”(맑스(K.Marx, 1997c, pp.1010~11. 강조 및 필호는 인용자)

32) 맑스(K.Marx), ‘해결철학적 비판’, 홍성두 역, 아침, 1988a, p.186. 필호는 인용자. 이때 맑스가 말하는 철학은 단순히 해결 철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맑스가 해결 철학을 열두해주고 있었음을 분명하다. 한편 필자(인용자)는 이 문장을 본래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변형시켰음을 밝힌다.

33) 이 과정은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인간학’이 매개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4) 이 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절의 내용은 그 구도에서 있어서 푸코의 근대철학에 대한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푸코는 ‘경멸적’이 것’과 ‘실천적인 것’, ‘보기도와 사고되지 않은 것’, ‘기원의 후퇴와 회귀’라는 테마를 통해 칸트 이후 근대철학을 분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푸코, 1994, pp.385-8)를 참조하라.

35)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헤겔의 ‘절대정신’은 칸트의 ‘실현적 주체’처럼 역사 외부의 초월적 공간에서 존재하는 개념 범주가 아니라 는 점이다. 헤겔의 ‘절대정신’은 한편으로는 역사 외부에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의 이성’으로서 역사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유컨대 이는 한방울의 역사에 다른 한방울은 역사 외부의 초월적 공간에 담고 있는 형상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러나 헤겔의 절대정신이 역사에 한방울을 담은 결과는 정신의 역사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역사의 정신화, 철학화였다.

36) 맑스(K.Marx), 1987, p.62. 고리표시는 원자자.

37) 이외에도 맑스는 유력존재의 특성을 ‘노동’과 ‘의식’을 통해 설명하는 데, 특히 의식을 통해 설명한다는 사실은 맑스가 헤겔의 의식철학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맑스는 유력존재로서의 인간이 별, 개미, 비버와 같은 동물들과 다른 점은 그것이 의식적인 생명활동(노동)을 한다는 점에 있다고 파악한다. 이것은 맑스가 유력존재의 본질을 ‘노동’이라고 보았지만 노동을 다시 ‘의식’ 범주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헤겔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 다. (같은 책, pp.61~2)를 참조하라. 한편 맑스가 유력존재를 폐기한 후에도 의식 범주를 버리지 못하는 현상은 말기까지도 계속된다. 이것

은 맑스가 자신의 사유를 표현해낼 적절한 개념 범주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과 맑스는 자신의 사유를 근대적인 지점으로 다시 돌려놓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정도에서 접기로 한다.

38) 맑스는 근대의 시간구조의 파괴를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와 인간의 불안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다. ‘정신의 계속적인 변혁, 모든 사회관계의 끊임없는 교란, 항구적인 불안과 동요가 부르주아 시대를 그 정의 모든 시대와 구별해 준다.’ (맑스(K. Marx),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김재거 역, 거름, 1995, p.56)

39) 맑스(K.Marx), 1987, p.95. 고리 표시는 원자자.

40)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엥겔스가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를 ‘제1론 세계관의 천재적인 맹아’를 내포한 최초의 문헌’(엥겔스(F.Engels, 1992, p.16)이라고 정확히 파악한 점이다. 그러나 엥겔스는 그렇게 파악하면서도 그 ‘천재적인 세계관의 맹아’를 충분히 비교교하는데 실패한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1-가)절을 참조하라.

41) 맑스(K.Marx),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독일이데올로기’, 김대웅 역, 두레, 1988a, p.37. 앞으로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의 인용은 위해에 근거할 것이며, 인용근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테제 : N. 1)과 같은 형태로 명기할 것이다. 예컨대 (테제 : N. 1) 는 1번 단계를 의미한다.

한편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맑스가 포이어바흐를 ‘경제학·철학 수고’에서와는 상당히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맑스는 포이어바흐가 “헤겔의 변증법에 대하여 진지하고 비판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인물”(맑스(K.Marx, 1987, p.121)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룬 근본 원리로 삼음으로써 진정한 유토플론과 실제적인 학을 창조했다.”(같은 책, p.123)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테제 : N. 1)와 (테제 : N. 10)에서 맑스는 거꾸로 ‘포이어바흐를 포함해서 이제까지의 유토플론’을 ‘소박한 유토플론’으로 표현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만 보더라도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를 통해 맑스의 입장변화가 발생했음을 분명해진다.

42) 맑스(K.Marx), ‘자본론 1-하’, 김수형 역, 비봉출판사, 1997b, p.936. 강조는 인용자

43) 같은 책, 같은 곳. 강조는 인용자

44) 맑스(K.Marx), ‘자본론 3-하’, 김수형 역, 비봉출판사, 1997c, p.1004. 강조는 인용자

45) 맑스(K.Marx), 1997a, p.500.

46) 맑스(K.Marx)·엥겔스(F.Engels), ‘독일이데올로기 1’, 김대웅 역, 두레, 1989, p.81.

47) 같은 책, p.122.

48) 같은 책, p.82.

49) 같은 책, pp.80~81. 강조와 필호는 필자

50) 같은 책, p.78. 강조는 원자자.

51) 역사를 추동시키는 역사의 거대주체 개념을 폐기했다는 점은 분명히 역사철학의 중요한 핵심을 해체시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철학적 사유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맑스가 역사철학적 사유를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 어부들 확정하기 위해서는 맑스가 근대의 시간질서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는지 구조와 시간사를 어떻게 매개시키는지, 역사에서의 필연과 우연의 구조를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더 고찰해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필자에게 남겨진 과제로서 차후의 연구 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52)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의 왕국은 공명과 부족한 필연에 의해 규정되는 노동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고유한 의미에서의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이 왕국(필연의 왕국)에서의 자유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에 있을 수 있다. 즉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신진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그 신진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신진대사를 집단적인 통제하에 두는 것, 그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조건 하에서 그 신진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아직 필연의 왕국이다. 이 왕국을 넘어서지만 진정한 자유의 왕국-즉 인간의 힘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작된다.”(맑스(K.Marx, 1997c, pp.1010~11. 강조 및 필호는 인용자)

53) “스클라우이적”이라는 표현을 김대웅은 ‘공리공론적’으로(테제 : N. 2), 이진경은 ‘정당화주의적’으로 옮기고 있다.(이진경, ‘마르크스주의와 근대성’, 김성기·임정택·이진경 역,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p.87). 그러나 문맥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정당화주의적’이라는 표현이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4) 근대 인식론에 따를 때 진리란 ‘연필은 연필이다’라는 문장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대상으로서의 ‘합의 연필’과 인식된 대상으로서의 ‘뒤의 연필’은 끝끝한 통시를 통해 일치되어 있다. 누가 뭐래도 ‘A = A’이고 ‘B = B’이며, ‘C = C’이듯 ‘연필 = 연필’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역설은 ‘연필은 연필이다’라고 진리를 파악하는 순간 이 미 이것은 진리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연필 = 연필’이란 단지 동어반복일뿐 앞의 연필을 뒤의 연필이 전혀 설명해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연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연필 아닌 것’에 의존해야만 한다. 예컨대 ‘연필은 언제 흩을 품고 있는 길다란 나무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이렇게 연필을 설명하자마자 설명은 증자가 유개념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진리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어쩌면 근대인식론이 목표로 한 진리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55) 레닌(V.I.Lenin), ‘유토플론과 경험비판론’, 경명희 역, 아침, 1989, p.106.

56) 같은 책, p.107.

57) 같은 책, p.108.

58) 같은 책, p.136.

매체비평

영화편

섹즉시공

“대학생들의 성 사실적 묘사  
은폐됐던 성 담론 대중 품으로”



섹즉시공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기대 이상의 흥행 물의를 하고 있는 영화 '섹즉시공'.

얼마 전 '섹즉시공'이 개봉하자 그보다 한달 전에 개봉한 '몽정기'와 묶어 새로

은 장르로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이 두 영화를 두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성을 소재로 한 코미디라는 점에 착안하여 섹시 코미디 또는 섹스 코미디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저 혼성 잡탕 코미디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런 류의 영화는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할리우드 코미디는 '화장실 유머' (성과 배설물을 일초적으로 건드리는 유머)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아메리칸 파이'부터 '베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서 '뉴스 비갈로'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경향은 독일 영화에서도 보이는데, 독일 내 최고

의 흥행 성적을 올렸던 '걸스 온 탑'도 소년과 '아메리칸 파이' 혹은 '몽정기'이다. 국내에서 이런 영화들은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외면 받았지만 점차 특정 관객층에게 어필하며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몽정기'와 '섹즉시공'은 기대이상의 흥행물의를 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몽정기'는 중학교 남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성적 호기심과 교생 선생님에 대한 판타지, 욕망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에 반해 '섹즉시공'은 헬기왕성한 20대 남녀 대학생들의 섹스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덧붙여 은식(임창정)과 그의 친구들의 엽기적인 행동과 차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보여지는 에어로빅 같은 다양한 볼거리를 사건을 연결하며 관객의 웃음

보를 자아낸다. 특히 이 영화 후반부에는 은식의 순애보를 양념으로 곁들임으로써 감동까지 준비한다. 이처럼 두 영화가 '성'을 소재로 해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적 코드를 거부감이 들지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적재적소에 분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두 영화에서는 엔딩을 건전한 교훈으로 마무리지음으로써 '성'을 소재로 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는데 '몽정기'의 소년은 사랑하는 교생 선생님을 담임과 연결해줌으로써 소년은 사람이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 또 '섹즉시공'은 책임지는 성과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라 책임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 개조된

섹스 코미디는 대형 블럭버스터들이 줄줄이 참패한 뒤 급냉한 자금 시장에 저렴한 제작비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효자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선전이 기대된다. 사실 '몽정기'와 '섹즉시공'이 아니라도 올해 영화들에서는 성이 주요한 화두로 등장했는데, 노인의 성을 다룬 '죽어도 좋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불륜을 소재로 한 '밀애', 동성애를 다룬 '로드 무비' 등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숨겨지고 은폐되어왔던 성 담론들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성'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과감한 발언들이 사회내에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정  
문화예술대학원 영화 전공 석사

# 시와 노래로 풀어낸 양심 이야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장기수기축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1985년 12월에 창립된 이래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인권실현·민주화를 위해 각종 캠페인과 행사를 벌여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행사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하 양밤)'은 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인권콘서트이다. 대중가수들의 공연으로 진행되는 양밤은 1989년 문을 열어 14회를 맞이했으며 지난 해는 '보랏빛 수건'이라는 부제 아래 양심수 석방, 여성생 사랑 시 낭독,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집회 등을 통해서만 논해지던 사회 문제를 문화행사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양밤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고, 지난 해 행사를 되짚어보았다.

편집자

본사는 양밤의 의미와 역할 등을 이야기해보기 위해 양밤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활동했던 민가협의 임기란(73) 어머님과 본고 자원봉사단(이하 자봉단) 정지홍(아간강좌 정통1) 군의 대답을 마련했다.

**임기란(이하 임)=**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니던 막내아들이 3학년 때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어. 그 때는 우리 애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 그런 줄 알고 원망만 했지. 그러다가 애가 4학년 되던 해 또 다시 구속돼 애를 만나러 구치소에 갔는데 멀리서 시체 같은 게 보여. 달려갔더니 내 아들 이더라. 그 때 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에 민가협 활동을 시작했지.

**정지홍(이하 정)=**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요집회'의 경우 민가협 어머님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니까 관심이 되지만 다른 집회에서 어머님들을 보면 걱정이 앞서요. 젊은 대학생들도 경찰들과 대치하면 겁이 나거든요. 경찰과 마주하시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 민가협 활동은...

**임=** 경찰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아. 무엇보다 모성애가 먼저니까 앞줄에 나설 때도 겁은 안나. 물론 아이들이 많이 다칠 때는 우리들도 다쳐. 눈 앞에서 최루탄 세네 개

가 터질 때는 말도 못하지. 함께 활동하던 민가협 어머님들 중 지금까지 다섯 분이 다 돌아가셨어. 나도 고혈압과 관절염 때문에 수술날짜를 받아놓고도 집회가 있어서 가지 못했어.

예전에는 몸이 아파도 함께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절로 힘이 났는데 요즘은 달라.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 사회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 그래도 학생 같은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나.

### 양밤에 대해

**정=** 사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집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동아리 선배들에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하지만 운동권이라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분위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 그러다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이야기를 듣고 자봉단으로 참여하게 됐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권콘서트인 만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임=** 양밤은 벌써 14회를 맞았어. 탄압이 심했던 당시에는 마음대로 입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내용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문화행사 형식을 발민거지. 초기에는 오히려 빛만 샀었지만 의식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서 수익금을 양심수 석방운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정=** 양밤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노래와 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좋아요. 저처럼 관객들도 열린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연스럽게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와 학생들, 노동자 외에는 아무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어. 시대가 변하면서 음악가, 소설가, 미술가들도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호도 외쳐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지.

**정=**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노래나 춤을 통해 풀어내면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양밤 같은 문화 행사는 신이 나면서도 느끼는 게 많거든요. 여성생 사랑시낭독을 추모하는 촛불시위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 문화행사로서의 역할

**임=** 양심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양밤 같은 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정=** 세대가 변함에 따라 집회의 형식 역시 변하니까 양밤 같은 문화행사의 역할은 점점 커져갔지요. 덧붙여 비슷한 형식의 행사를 보다 활발히 개최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사회문제 관심갖고 더 많은 참여 해줬으면...”

민가협 임기란(73) 어머님



“문화행사 즐기는 사이 의식도 변해요”

정지홍(아간강좌 정통1) 군

**임=** 특히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양밤에 더 많은 참여를 해주었으면 해. 젊은이라면 풀도 있고 물도 있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완전 사막이야. 우리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양밤 같은 행사를 더 많이 마련할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면 민가협도 문을 닫을 수 있겠지.

**정=**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르거나 목청을 높이는 어머님들을 보면 가슴부터 아픈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 바라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난 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보라빛, 문화공연 타고 희망의 빛 발하다

### 대중가수 다수 참석 인권신장 한 목소리 ... 수익금 양심수 석방운동에 쓰일 예정

수많은 색깔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색, 노란색 등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색깔을 선호한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지닌 보라색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오늘도 보라색 수건을 머리에 두르는 민가협 어머님들이다.

양심수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17년 동안 인권신장을 위해 각종 행사를 벌여온 민가협은 양심수 석방 운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열네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인 '보랏빛 수건'을 지난 해 12월 14일 잠정체육관에서 진행했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러 대중가수들의 노래공연과 함께 메시지를 담은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았다.

먼저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크라이벳과 레이디본이 열정적인 공연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어서 가수 이정열 씨는 여성생 암사 사건을 애도하기 위해 여성생 추모곡 사진과 촛불시위 등의 영상과 함께 잔잔한 기타연주를 들려줘 보는 이의 눈시울을 적셨다.

또한 박정우(13) 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께 대한 염려를 담은 편지를 낭송할 때는 관객들 모두가 숙연해 지기도 했다. 박 군과 함께 등장한 탤런트 권해효 씨는 “정우의 병든 아버지를 이제 가족에게 보내달라”며 “지금껏 이 행사에 수차례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양심수 석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외에도 가수 김중서 씨는 청각장애인과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고 평소 TV에서 보기 어려웠던 가수 한대수, 전인권, 신혜철 씨도 참석해 양심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마지막 무대에는 보라색 수건을 머리에 두른 양심수 어머님들이 촛불을 들고 무대에 올라 여성생 사랑 사건 추모 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애도의 뜻을 전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던 이번 공연을 마친 후 사회자 최광기 씨는 “이 행사의 진행을 여덟 번째 맞는 동안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하루 빨리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돼 울화로 이 공연이 막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광화문에서 이뤄진 여성생 암사 사건 추모 촛불시위와 동시에 진행돼 예전에 비해 관객 수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은 패인 만큼 관객들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노래와 춤을 통해 인권 문제를 되짚어 본 '보랏빛 수건'. 이 행사를 통해 양심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이를 기반 삼아 어머님들의 보랏빛 머릿수건이 희망의 푸른빛으로 변하길 기대한다.



nature41@dongguk.edu

## 메아리

12월 32일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지난해 인기를 모은 신인가수 '별'의 12월 32일이라는 노래다. 해가 바뀌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노래 속 소녀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멈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법. 소녀도 끝내는 '새해가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눈물

을 흘려야 했다.

▲다사다난했던 2002년이 지나고 2003년 새해가 밝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2002년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결과와 관련,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고 한다. 대선 때 실린 전자개표를 받을 수 없으니 수작업으로 다시 개표를 해서 오류를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전자개표가 이번에는 심각한 오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당선무효소송은 당 안팎에서 강한 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이회창 후보가 패배를 승복하고 정계에서 은퇴한 마당에 ‘갑자기 웬 당선무효 소송이냐’는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 책임을 덮어버리고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한 쇄신 요구를 비켜가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한나라당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 이미 끝난 대선을 인정하지 싫다며 “내게 12월 19일은 없다고, 개표는 끝이 아니라고” 외치는 한나라당. 이제 새로운 정권, 새로운 2003년을 맞이해야 할 때인데 그들은 여전히 2002년 대선에서 자유를

지 못하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정치권의 개혁요구를 받아들여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한나라당을 기대해본다. 변화의 물결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가는 새해가 밝았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현  
caesar2000@dongguk.edu



# 만화로 돌아보는 2002년

만화 = 성덕환, 글 = 손상민 · 김도영 기자

## 오녹원 이사장 사퇴

지난해 초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올해 안에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녹원 이사장이 약속을 지켰다. 이로써 녹원 스님은 약 13년 동안 유지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사회는 차기 이사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선임했다.

불교병원 개원, 총장 선임 등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신임 이사장의 책임은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정대스님의 이사장 취임으로 총무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중단 내 정치적 지각변동도 예고된다고.



## 제15대 총장후보 추천선거 성사

지난 98년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을 경험한 바 있는 학내 구성원들은 민주적 총장선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번 총장후보 추천선거를 준비했다. 별도로 선거를 진행한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각각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을 재단에 추천한 상태다.

선거 과정에서 두 주체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선거 과정 등 다음 선거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고. 그러나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 불교병원 준공, 개원 연기

본교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불교병원이 약 30여 년 간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9월 준공식을 마쳤다. 그러나 재원확보 등 병원 개원 준비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원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약 2개월 동안 총학생회는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이사회, 학교, 병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개원준비위원회가 향후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 무산

2002년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학생회 위기'가 정점에 다다른 해였다. 지난해 초 '새터 사고' 당시 총학생회가 처량을 이면계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집행부들이 학생회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 내 성추행 사건이 공개되면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졌고 '학생회 고립'은 심화됐는데, 또한 총학생회 선거가 사상 첫 1.2%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해 학생회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됐다. 학생회는 목마라, 1.2% 부족할 때!



## 소리바다 논쟁 가열

개인간 MP3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가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지난 7월 서비스 중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외치는 음반업계와 정보공유를 위한 자유로운 자료 교환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서비스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재개, 네티즌을 등에 업고 음반협회와 끝까지 않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소리바다 파문은 복제와 배포가 자유로운 온라인상에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

사상 최초 당내 국민경선, 최초의 정치 팬클럽 노사모,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정치자금 모으기, 후보단일화 등 그야말로 한 편의 극적 드라마를 보여주었던 노무현 대통령. 그의 대선 승리는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이자, 시대적 요구임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선 정치인들도 있었으니, 이렇거나 철새 정치인들, 올해 최고의 철새는 단연 김민새이. 이에 정모씨도 질세라 한 마디 날린다. "나 윈전히 새됐어!"

## 하나되는 남과 북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남북간 교전이 발생, 25명의 사상자를 냈다. 북한측도 승무원 50여명 가운데 30여 명이 사상 또는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냉각기에 접어들었으나, 다행히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8, 9월에는 갖가지 남북행사를 열 수 있었다.

특히 민족통일대회, 남북축구대회, 남북청년학생대회, 여성대회에서 북의 아시안게임 참가,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 해였다.

이에 DJ 왈, "에... 이것은 햇볕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의 성과입니다."



## 월드컵 열풍

갖가지 진기록과 진풍경을 남겼던 지난 6월의 월드컵. 6월의 열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는 여전히 국민들의 공통분모로 남아있다.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킨 월드컵을 계기로 마련된 집단응원열풍은 전세계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붉은 악마 신드롬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수구보수언론에게 이는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것이었다는데. 급기야 그들은 이렇게 피해하기도 했다. "광화문은 선홍빛(?) 물결을 이루었다"고.



## 북, 핵개발 시인 파문

북의 핵개발 시인 발언과 함께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북미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의 중유지원 중단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감시 카메라 제거는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올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국민적 염원은 변함이 없는데, 따라서 정치인들은 그 동안의 대북정책의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논자의 '핵'을 해결책 모색으로 돌려야 할 때가 아닌지.



## 거세진 반미 여론

"우리 누이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 "부시~! 날 '부시' 어 버리겠어."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라!"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인한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과 가해자인 미군 병사의 무죄판결이 알려지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반미여론은 전국민적 '분노'로 확산됐다. 급기야 광화문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져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설이 제기된다고. 모 양초공장 사장의 공작설이 그것. 믿거나 말거나!

